

제18권 / 제7호
Vol.18 / No.7

2016년
7월

July

KDI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KDI

KDI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6. 7

KDI 북한경제리뷰 편집진

편집위원

조병구 | 선임연구위원(편집위원장)

이 석 | 연구위원

이종규 | 연구위원

김규철 | 부연구위원

위혜승 | 전문위원

명예편집위원

고일등 | 촉탁연구위원

편집

남진옥 | 연구원

김 옥 | 연구원

이우정 | 연구원

전은경 | 행정원

박상준 | 인턴

윤정원 | 인턴

임은혜 | 인턴

박서연 | 인턴

KDI 북한경제리뷰는

북한경제의 실태, 남북한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정리하여

정책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월별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4-550-4086

팩스번호 044-550-4090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http://www.kdi.re.kr>)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동향과 분석

3

총괄: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동향 개관 및 평가 | 이석

27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대북제재 | 이종규

37

2016년 상반기 북한산업 동향 | 이석기

47

2016년 상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 | 조남훈

59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임강택

75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농업 및 식량수급 동향 | 김영훈

경제자료

89

201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 남진욱

부문별 주요 기사

(6월 1일~6월 30일)

121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교류

동향과 분석

**총괄: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동향 개관 및
평가**

이석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대북제재

이종규

2016년 상반기 북한산업 동향

이석기

**2016년 상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

조남훈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임강택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농업 및 식량수급 동향

김영훈

총괄: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동향 개관 및 평가

이석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sukle@kdi.re.kr

KDI 북한경제연구부가 주관하는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 분석 작업은 조금은 특별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올해 실시된 대북제재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다수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올해의 대북제재로 인해 향후 북한경제가 어떻게 변모해 갈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KDI 북한경제연구부를 포함한 국책연구기관들에서 북한경제를 관찰하는 여러 연구자들은 서로가 이번 대북제재의 실질적 효과 및 이로 인한 북한경제의 변화 양상들을 분야별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토론의 과정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동향을 분석하는 작업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KDI 북한경제연구부에서는 본호에 수록되는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논문들의 작성을 토론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모든 연구자들이 이러한 분석 논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본호의 논문들은 이제까지 동일한 성격으로 KDI 북한경제리뷰에 의해 출판된 여러 논문들과 저자 및 관련 형식 등에 있어 약간의 차별성을 갖게 되었음을 밝힌다.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201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동향을 개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이 글과 함께 발표될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각 부문별 동향에 대한 논문들의 내용을 집약한다.¹⁾ 둘째, 이러한 부문별 동향에 대한 분석 내용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이야기 틀을 구성한다. 이러한 틀을 토대로 201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동향을 조금은 더 입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조망해 본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글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물론 그 본질적인 이유는 이 글이 서로 다른 연구자가 작성한 다양한 논문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틀 안에서 집약한다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KDI 북한경제리뷰에서 매년 발표된 북한경제 동향에 대한 총괄 논문들은 모두 이와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²⁾ 그러나 2016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북제재라는 요인이다.

이 글이 쓰여지는 2016년 7월 현재 북한경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은 단 하나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초반 실행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과연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관심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2016년 1월 북한은 전격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등 서구세계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갖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새로운 대북제재를 마련하여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북한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은 온통 새로운 대북제재의 성패 여부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형편이다.

당연히 이러한 대북제재는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동향을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지표가 201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동향 그 자체가 아님도 분명하다. 더욱이 곤혹스러운 점은 2016년 상반기에 국한해 볼 때 대북제재가 실행된 기간이 아직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어 이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일 이 글에서 대북제재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1) 이러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종규,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대북제재」, 이석기 「2016년 상반기 북한산업 동향」, 조남훈 「2016년 상반기 북한 군수산업 동향 및 성과 평가」, 임강택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김영훈,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농업 및 식량수급 동향」.

2) KDI 북한경제리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북한경제동향을 분석하는 다양한 분야별 논문들을 게재하며, 이들 분야별 논문을 집약하는 총괄 논문 역시 정기적으로 게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의 KDI 북한경제리뷰의 각 권호를 참고하라.

동향을 서술한다면, 자칫 그 결과는 ‘불확실한 요소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요소들에 대한 객관적 판단’마저 흔들리는 위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대북제재라는 요소를 아예 제외하고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을 서술하는 것 역시 가능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자체가 이미 이러한 대북제재에 대한 외부세계의 입장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 및 주민들의 기대(expectation)와 반응에 의해 주도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201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동향을 총괄해야 하는 이 글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유사한 총괄 논문들이 직면해 온 근원적인 어려움에 더해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처리해야만 하는가라는 추가적인 딜레마 역시 동시에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이 글에서는 조금은 자의적이지만 동시에 조금은 어쩔 수 없는 절충적인 방식을 선택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가 대북제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체 동향을 서술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글에서는 대북제재의 전반적 영향력의 여부 및 이의 객관적 계측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글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영향력을 줄 수도(또는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으며, 반대로 아직은 영향력을 주지 못할 수도(측면도) 있다’고 단순히 ‘가정’하여 전자와 후자의 경우에 각각 어떤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데 그친다. 이들 사례들의 영향력 여부 정도를 합산하여 제재의 전반적 파급 효과를 판단하는 일은 아예 시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대북제재가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구성하는 여타의 요소들과 어떻게 결합하여, 북한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켜왔는지를 파악하는 데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다.

아마도 이러한 글의 전개는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 및 이에 대한 대북제재의 영향력 여부에 관심을 갖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충분하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느낌은 이 글의 전반적인 주장 자체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연결될지도 모른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 스스로가 이러한 불충분함과 신뢰감 저하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허용된 데이터와 정보의 수준으로는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객관적이고도 엄밀한 분석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변명을 통해서나마 부디 이 글이 너그럽게 읽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시되기 이전에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가 이미 직면하고 있었던 다양한 제약요인들에 대해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2016년 실시된 대북제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제재가 앞서의 제약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적 반응 역시 토론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로 인해 형성된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모습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개괄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경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한 토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II. 제약요인 - 거시경제 추세와 변수들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에서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불확실성은 주로 2016년 3월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결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올해 북한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북한경제의 안정세를 유지시켜 주던 대내외의 여러 우호적인 경제여건들이 2013~14년을 기점으로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6년 들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우선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 북한경제에 예상되었던 대내외의 다양한 제약요인들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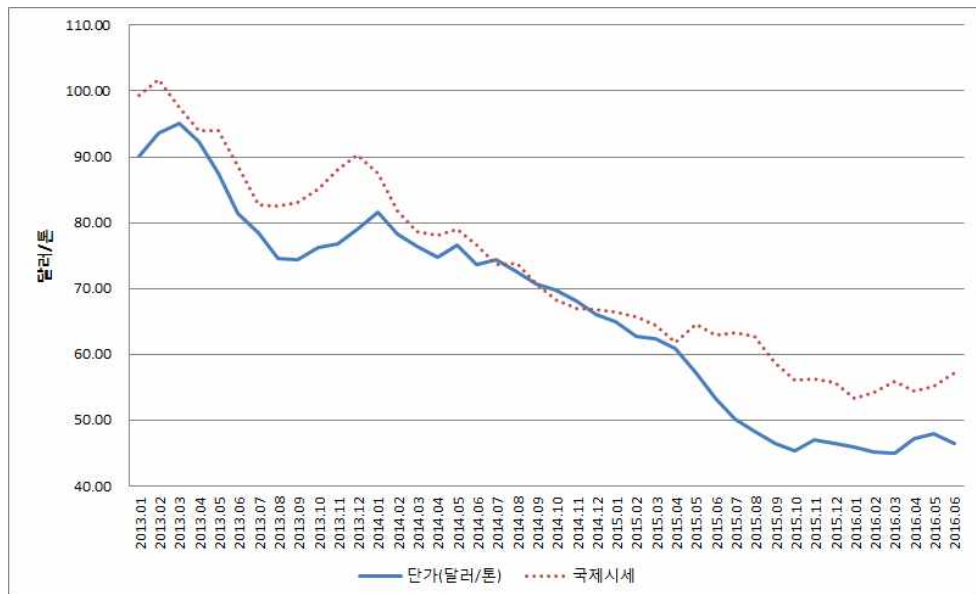
1. 악화되는 대외무역 환경

2016년 북한경제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상당수의 북한경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미 공감을 얻고 있었다. 2010년 한국의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간 북한경제의 상대적 안정세를 가져왔던 여러 가지 우호적인 대내외 경제환경들이 2013~14년을 기점으로 점차 추세가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북한경제는 중국을 대상으로 무연탄과 철광석 등 주요 자원의 수출을 급격히 늘림으로써 다량의 경화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체 무역의 확대와 국내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자원 수출 증대 배경에는 매우 우호적인 수출여건이 존재하였다.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주요 자원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물론, 이들의 주요 수요자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견조하여 이들 북한산 자원에 대한 해외의 수요 역시 꾸준히 증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2013년 초까지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 가격은 거의 80%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이들의 수출 규모는 무려 4배 가까이 증대하였다.³⁾ 2010년 이후 나타난 이러한 유리한 대외환경이 한국의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를 상대적으로 안정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외환경은 2013~14년을 기점으로 그 추세가 역전된다. 이제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6%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대중국 자원 수출 가격 역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물론, 2014년 이후에는 이러한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물론 북한은 이처럼 악화되는 대외환경에 처음에는 일종의 ‘물량 조정’으로 대응하였다. 대중국 자원 수출가격의 하락을 수출 물량의 증대로 상쇄함으로써 이를 통한 경제의 확보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

[그림 1] 국제 무연탄 가격 및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가격 추이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3), IndexMundi(<http://www.indexmundi.com/commodities/?commodity=coal-australian>, 검색일: 2016. 7. 23).

3)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가격은 2010년 1월의 톤당 52.88달러에서 2013년 3월에는 최대 95.17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동 수출금액은 2010년의 3.9억달러 수준에서 2013년에는 13.7억달러로 약 3.6배가 증가하였다.

으로 인한 전체 금액의 감소효과가 워낙 커서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는 바로 이러한 대외환경의 지속적 악화를 배경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이미 올해 북한경제가 예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했던 것이다.

2. 진행되는 대내외 구조조정

그런데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던 사실은, 북한경제 스스로가 이처럼 악화되는 대외환경을 인식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2014~15년을 기점으로 이미 자체적인 경제구조 또는 수출구조의 조정에 돌입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이였다. 예를 들어 <표 1>을 보자. 이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상품⁴⁾은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자원 관련 상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연탄과 철광석 등의 수출상품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상품의 순위는 2015년에 오면 거의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이제까지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던 자원품목들 가운데 무연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순위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중국과 북한의 임가공상품들이 대신 차지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2015년 현재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상품은 무연탄을 제외하고는 남성 및 여성용 의류와 같이 북한이 중국기업의 임가공 하청을 통해 생산하는 제조업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구조가 2014~15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자원 수출에서 제조업 수출로 점차 무게중심을

<표 1>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상품 비교 (2010년 vs. 2015년)

(단위: 백만달러)

순 위	2010년			2015년		
	HS 코드	품목명	수출액	HS 코드	품목명	수출액
1	2701	석탄	390	2701	무연탄	1,050
2	2601	철광	194	6201	남성코트류	169
3	7201	선철	64	6203	남성재킷류	151
4	0307	연체동물	53	6202	여성코트류	131
5	7901	아연괴	48	6204	여성재킷류	97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3).

4) HS 4단위 기준이다.

옳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현재 북한경제는 설사 국내부문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부가가치 사슬이 경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무연탄의 대중수출에 따른 경화의 획득을 중심으로 국내의 생산과 투자, 유통, 운송, 노동 및 소비 등이 모두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국내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도 무연탄의 수출 및 이에 따른 경화의 전반적인 지역적 유입이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4~15년 이후 앞에서도 같은 북한의 수출구조 변화가 정말로 추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 전체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2016년 북한경제의 향방은 이러한 북한의 수출구조 변화의 정도와 속도, 그리고 그것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지에 크게 영향을 받으리라는 인식이 존재했던 것이다.

3. 시장을 둘러싼 주민과 당국의 이해 갈등

한편, 2016년 상반기에는 북한경제 내부적으로 시장경제 행위를 둘러싸고 아주 미묘한 정책적·현실적 긴장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주목 받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 당국은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2012~13년을 기점으로 주민들의 시장경제 행위를 거의 통제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주민들의 시장경제 행위를 묵인하거나 이를 공공연히 부추김으로써,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보유한 달러를 국가가 획득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활성화된 장마당은 물론, 주민들이 주택을 매매하는 행위나 관료들과 결탁하여 소규모 운송사업을 시행하는 행위, 이른바 ‘돈주’라는 사람들의 자본을 끌어들이어 이미 형해화된 국영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시장을 매개로 되살리려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시장경제 활동을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입증이 라도 하듯이 그간 북한에서는 소위 ‘5·30 조치’나 ‘6·28 조치’와 같이 다양한 경제개혁을 시도하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또한 토론되고 있다는 보고가 끊이지를 않았다. 물론 이러한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정책과 태도가 얼마나 구체적이며, 또한 어떤 목적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13년 이후 2015년에 이르기까지 김정은 정권에서는 시장을 통제하거나, 또는 주민들을 과거 사회주의적

인 방식으로 강제 동원하여 시장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2016년 상반기에는 부분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은 2016년 상반기에 36년 만에 처음으로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공표하였고,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방임이나 격려보다는 오히려 이의 통제가 정치적으로 더욱 중요시 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7차 당대회 같은 대규모 정치행사는 그 자체가 이미 수많은 주민들을 동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동을 차단하는 효과가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강제로 환수하여 대대적인 ‘사회주의 경제활동’에 투입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2016년 상반기에 소위 ‘70일 전투’라는 강제적 노력동원을 실시한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 들어 처음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이를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정책이었으며, 당연히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에서는 과연 시장을 둘러싸고 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이해의 충돌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 하나의 중요한 관심대상이었다. 김정은 정권이 그나마 현재의 북한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그간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주민들의 후생수준이 과거보다 어느 정도 증대했다고 믿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덕택인데, 2016년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이러한 시장을 통제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이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70일 전투’와 같은 북한 당국의 강제적 노력동원 정책은 제7차 당대회가 끝나면 모두 종식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예년처럼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태가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경우 제대로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심지어 일부의 외부 관찰자들은 북한 당국이 ‘70일 전투’와 같은 강제적 노력동원 정책을 통해 제7차 당대회를 무사히 끝마치는 경우 이를 토대로 매우 개혁적인 시장정책을 발표할 개연성마저 존재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김정은 정권의 기본적 경제정책 방향이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조용히 논의해 온 각종 경제개혁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워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4.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식량생산

마지막으로 2016년 북한경제의 제약요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식량문제였다. 2015년 하반기 북한의 식량생산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함으로써 자칫 2016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식량상황이 다시금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⁵⁾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식량생산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식량상황 역시 점차 개선되었다는 평가 또한 일반적이다. 그런데 2015년 북한의 식량생산은 전년에 비해 8%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이러한 식량생산의 감소가 2016년 식량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가을 작물, 그것도 쌀과 옥수수라는 주곡분야에서의 생산감소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이다. 이는 당연히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식량상황이 예년에 비해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있음을 뜻하는 수치이다. 물론 현재의 북한경제는 과거와 달리 식량을 비롯한 제반 물자의 해외수입이 매우 탄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2015년 가을작물의 생산감소로부터 직접적인 식량난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들어 처음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사실은 2016년 북한경제에 그만큼 부담이 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말부터 이미 2016년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또 다른 관심거리로 등장해 있었던 것이다.

〈표 2〉 2015/16년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단위: 백만달러)

구분	쌀	옥수수	맥류	잡곡	서류	두류	계
공급량	1,284	2,516	66	156	515	264	4,801
소요량	1,705	2,654	182	165	515	275	5,495
부족량	421	138	116	9	0	11	694

자료: 김영훈,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농업 및 식량수급 동향」, 『북한경제리뷰』,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5) 이에 대한 자세한 토론은 본호의 김영훈,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농업 및 식량수급 동향」을 보라.

III.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반응

이처럼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는 ① 악화되는 대외경제 환경, ② 진행되는 대내외 경제구조 조정, ③ 시장을 둘러싼 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긴장관계, ④ 전반적 식량사정이라는 네 가지의 부정적 제약요인들을 전제로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에 대한 관심은 이들 제약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기존 북한경제의 모습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2016년이 실제로 시작되면서 북한경제에는 이러한 기존의 제약요인들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제약요인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 대북제재였다.

1.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북제재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간 북한경제는 다양한 양자적·다자적 경제제재로부터 ‘어떤 결정적인 영향도 받지 않는 수완’을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2016년 상반기에 실시된 국제적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정말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실정이다. 아마도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북제재가 상당 기간 더 진행되고 난 이후에나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북제재는 이제까지 실시된 대북제재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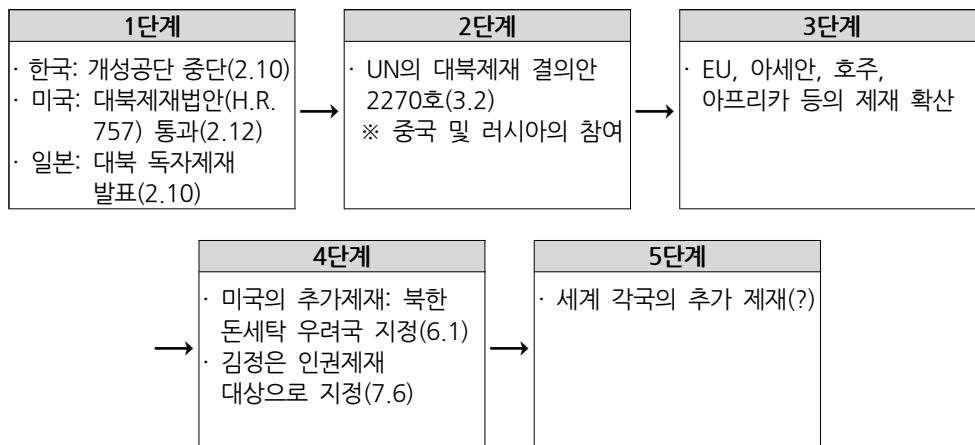
무엇보다 현재의 대북제재에는 중국이 매우 분명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사실상 유일무이의 무역 상대국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북한으로서도 어떤 형태로든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번 제재가 이제까지의 어떤 대북제재보다 북한에 더욱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더욱이 현재의 제재는 단순한 다자적 제재를 뛰어넘는 중층적·복합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물론 현재 제재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 및 러시아 등 세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UN의 대북제재가 핵심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번 제재가 이러한 UN의 대북제재를 중요 요소로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UN의 대북제재와 더불어 독자적인 양자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이나 미국의 대북제재법, 그리고 일본의

포괄적 대북제재 조치들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양자제재에 더해 한국과 미국 등은 EU와 아세안, 호주 등 여타 세계 지역 국가들과 더불어 또 다른 양자적 또는 소다자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재가 단순한 UN의 다자적 제재가 아니라 여기에 개별 국가들의 양자적 제재와 소다자적 제재를 함께 묶은 중층적 제재라는 뜻이다. 또한 이처럼 제재의 성격이 중층적으로 변모하면서 제재의 내용 역시 더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자원 수출 등 주로 상품무역 거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주도하는 양자적 소다자적 제재는 이러한 무역거래 이외에 북한의 노동력 수출이나 서비스 거래, 심지어는 인권문제와 같은 영역으로까지 제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재는 한 번에 모든 제재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는 정태적 성격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북한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더욱 제재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변화하는 동태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이번의 대북제재는 2016년 2월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전후하여 미국의 대북제재법 및 그에 상응하는 일본의 제재 조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제재는 이러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양자제재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이후 UN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적 제재로 확대된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이러한 UN의 다자적 제재로 멈춘 것도 아니었다. 이후 UN의 다자적 제재를 토대로 EU와 호주, 중동,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양자적 소다자적 제재 역시 연이어 실시되거나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 2016년 대북제재의 전개 과정



그리고 마침내는 이러한 양자적·다자적 제재를 배경으로 미국이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Money Laundering Concern State)’으로 지정한 한 것은 물론, 북한의 김정은 개인을 인권문제로 제재한다고 공표하였다. 이렇게 보면 이번 제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양자제재 →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는 UN의 다자제재 → EU,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국가들의 양자적·소다자적 제재 →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등으로 끊임 없이 확대 재편되었고, 이러한 확대 재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그림 2 참조). 이번 제재의 내용과 범위가 아직까지도 동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경제가 느끼는 부담감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재는 북한경제에 매우 직접적인 ‘제재의 체감 계층’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이에 종사하던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현재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음을 실감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의 제재 조치는 매년 최대 20만명에 육박하는 중국 방문 북한인들은 물론,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경제인들 대다수로 하여금 제재를 피부로 느끼게 만들 것이 당연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시 이후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한국행을 택한 것이 아마도 좋은 예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 체감계층의 형성은 북한으로서도 이번 제재에 대한 대응을 곤란하게 만들 여지가 충분하다. 이들 계층이 실제로 제재의 피해를 체감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사회경제적 인식을 형성할 경우, 이러한 인식 자체가 북한의 대응에 대한 하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2016년 상반기에 시작된 대북제재는 이제까지의 국제제재와는 형태와 내용이 매우 다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제재가 현실화되는 경우, 앞서 우리가 언급한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네 가지 제약요인들이 더욱 악화되어 경제 전반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은 수출여건을 중심으로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시행된다면, 그 결과는 객관적인 교역환경의 악화를 훨씬 뛰어넘는 타격을 북한에 미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특히 이러한 제재는 북한의 달러 박스라고 할 수 있는 자원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한의 교역구조는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의 부가가치 사슬에도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간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북한의 수출 및 경제구조 조정이 이제는 외부의 충격으로 매우 강제적이고 급박한 형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대북제재가 실시될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상업적 식량 수입 역시 예년보다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2015년 하반기의

북한의 농업생산량 하락과 이로 인한 2016년 북한의 식량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제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시장활동을 둘러싸고 북한 당국과 주민들 사이의 이해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다. 제재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 시장활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반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제재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시장활동을 더욱 엄격히 통제할 유인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만일 이러한 당국과 주민들의 갈등이 크게 증폭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번의 대북제재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북한에 행사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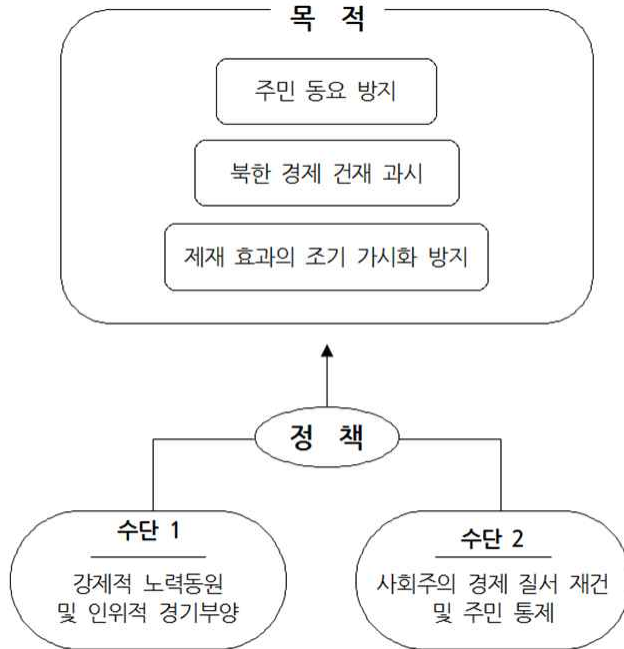
2. 북한경제의 대응 - 인위적 경기부양과 경제 통제

이처럼 2016년 상반기에 시작된 대북제재는 그것의 잠재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종래의 제재와는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가 처한 다양한 제약요인들에 의해 더욱 증폭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상반기 북한 당국은 과거와는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이 바로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물론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이며, 대외적인 경제적 교섭력 역시 미미하고, 무엇보다 제재에 대응해야 할 북한 당국의 재정적 능력이 극히 취약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대응은 경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실제로 2016년 상반기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① 강제적 자원동원에 기초한 인위적 경기부양과 ② 주민 통제를 위한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의 (재)강조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적인 방식의 강제적 자원동원 정책을 연이어 실시함으로써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제7차 당대회를 위한 ‘70일 전투’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200일 전투’라는 새로운 자원동원 정책을 연이어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16년 전 기간에 걸쳐 주민들을 동원하는 전시형 경제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 1~3월 사이에 가능한 한 대외교역의

[그림 3] 2016년 상반기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



규모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록 단기적이나마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대북제재의 효과를 차단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강제적 자원동원 캠페인과 인위적인 무역확대 정책은 비효율적이고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다.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와 같은 자원동원 캠페인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정치적으로도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 대외교역을 밀어내기식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각종 교역 조건에서의 상대적 불리함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초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예측하는데 있어, 상당수의 외부 관찰자들은 북한 당국이 제7차 당대회가 끝나면 ‘70일 전투’와 같은 노력동원 캠페인 역시 종결될 것이며, 북한의 대외무역 역시 2016년 초반에는 2015년 말의 추세를 이어받아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제7차 당대회 직후 곧바로 새로운 ‘200일 전투’라는 노력동원 캠페인을 또다시 시작하였고, 2016년 초반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제재가 실행되기 이전 북중무역을

가능한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이 북한경제의 실제 진행방향을 당초의 예상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간 북한 당국은 시장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나마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부문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논의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세계에서도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이른바 ‘5·30 또는 6·28 조치’ 등이 좋은 예이다. 이에 따라 일부의 외부 관찰자들은 당초 북한 당국이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일정 수준의 개혁적 경제조치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는 정반대로 북한 당국은 제7차 당대회에서 이제는 거의 사라진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 용어들을 다시금 대거 언급하였다. 사회주의적 경제개발 계획을 재천명하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청사진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와 선언은 현실적으로 매우 공허하다. 현재의 북한경제는 이미 이러한 용어와 선언으로부터 너무 멀리 시장 쪽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이러한 용어와 선언을 고집하면 할수록 현실에서는 시장과의 대립이 격화되어 북한경제의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2016년 상반기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개혁과 개방, 시장이라는 화두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2016년 상반기 북한 당국이 실제로 선택한 정책들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매우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북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항하여 ‘비록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과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길이 북한 당국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대북제재하에서도 대내외에 북한경제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상황에서 북한당국의 사회경제적 통제력을 유지하여 정권의 안정성과 함께 제재에 대한 저항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당국의 이러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뒤에서 언급하듯이 이러한 단기적 대응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제재의 부정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 북한 당국은 위와 같은 정책을 선택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북한경제의 모습 역시 이러한 정책에 상응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IV. 결과 -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모습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이 서로 교차하고, 또한 이들의 상호작용이 현재 북한경제가 처한 다양한 제약요인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체적인 현실의 경제현상들로 발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용을 통해 형성된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모습은 실제로 어떠했을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2016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의 북한경제에 대해 간략히 전망해 보도록 한다.

1. 극심한 경제침체는 아직은 'No'

아마도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반적인 경제상태가 예상만큼 급격히 악화되거나 침체하지는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이제까지의 제재와는 달리 북한경제에 잠재적으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는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다양한 제약요인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합치면 응당 201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상태는 예년에 비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거나 적어도 상당히 침체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데이터와 정보는 이처럼 당연한 예상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201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상태가 좋거나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같은 기간 북한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침체되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표 3〉을 보자. 이에 따르면 2016년 1~6월 사이 북한의 대중 무역은 누적 기준으로 총 2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⁶⁾ 이는 2015년 같은 기간의 25억 달러에 비하면 약 0.6%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실제로 2016년 1~6월 사이 북한의 대중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4.7%가 감소하였지만, 수입은 오히려 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2015년 1~6월의 북중무역은 전년 동기에 비해 13.4%나 감소하는 등 크게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2016년 1~6월 사이의 북중무역 규모가 0.6%가 증가했다고 해도 이는 결코 올해 상반기 북중무역이 예년에 비해 크게 활발했음을 의미하는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6) 이에 대해서는 본호의 이종규,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대북제재」를 참고하라.

〈표 3〉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합 계	무역 적자
2015년 전체	2,484 (-12.6)	2,947 (-16.4)	5,430 (-14.7)	463
2015년 1~6월	1,172 (-10.6)	1,333 (-15.8)	2,505 (-13.4)	161
2016년 1~6월	1,116 (-4.7)	1,404 (5.3)	2,520 (0.6)	288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이종규,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대북제재」, 『북한경제리뷰』,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수치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무역이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극적으로 위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은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산업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⁷⁾ 우선 이 기간 중 북한의 취약부문이라 할 수 있는 전력생산이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이른바 ‘70일 전투’를 통해 다양한 화력발전 시설이 신설 확장되고 이를 토대로 발전량 역시 증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4~15년 북한을 괴롭힌 가뭄현상도 올해에는 개선되어 수력발전 역시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북한의 보도매체들은 이 기간 중 북한의 다양한 전력생산이 당초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했다는 선전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선전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상대적으로 북한의 전력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2014~15년의 경우 이러한 보도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올해 전력생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으리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섬유 의류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경공업 생산이나 기계 및 화학공업과 같은 중공업 생산 역시 사정은 동일하다. 2016년 상반기 이들 분야에서 북한의 생산증대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 역시 올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정권의 가시적 치적달성을 위한 노력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생산증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상반기에는 북한 당국이 눈으로 보이는 경제성과를 만들기 위해 각종 건설 및 토목 공사를 진행해 완공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70일 전투’의 핵심 과제인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홍주청년3호발전소 등이 완공되었으며, 지난해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와 유사한 려명거리 건설공사 및 함흥과학자살림집 건설공사 등 다양한 건설 및

7) 이하의 북한산업 생산과 관련된 서술은 본호의 이석기, 「2016년 상반기 북한산업 동향」을 근거한 것이다.

토목 사업들이 완성되거나 진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산업생산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 비록 비약적으로 증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극적으로 감소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표 4〉 또한 앞서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물가 및 환율은 2016년 1~6월 사이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⁸⁾ 이는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전반적 경제상태가 비록 크게 호전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극적으로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수치들이다. 만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의 경제상태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했다면 현재의 북한경제 현실로 볼 때 시장물가 및 환율이 크게 변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전반적 경제상태는 ① 무역부문에서 제재의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② 국내 산업부문에서는 오히려 소폭의 생산증대가 이루어졌고, ③ 시장의 가격변수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세 가지 사실로 집약된다. 당연히 이는 201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상태가 비록 크게 호전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극적으로 악화되지도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비록 잠재적으로는 현재의 대북제재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이러한 영향력이 충분히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2016년 상반기까지는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 단기적으로나마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시도한 것이 어느 정도

〈표 4〉 북한 장마당 가격 동향

관찰 기간	1US달러 환율(북한원)			쌀 가격(1kg 당, 북한원)		
	평양	신의주	혜산	평양	신의주	혜산
16.7.2 ~ 7.8	8,325 (▼ 75)	8,310 (▼ 107)	8,320 (▼ 195)	5,100 (▲ 150)	5,169 (▲ 269)	5,500 (▲ 650)
16.6.7 ~ 6.13	8,400 (▲ 380)	8,417 (▲ 332)	8,515 (▲ 505)	4,950 (▼ 50)	4,900 (■ 0)	4,850 (▼ 150)
16.5.19 ~ 5.25	8,020 (▼ 80)	8,085 (▼ 165)	8,010 (▼ 90)	5,000 (▼ 120)	4,900 (▼ 150)	5,000 (▼ 50)
16.4.23 ~ 4.29	8,100 (▼ 28)	8,250 (▲ 100)	8,100 (▲ 35)	5,120 (▼ 30)	5,050 (▼ 40)	5,050 (▼ 30)
16.3.19 ~ 3.25	8,128 (▼ 62)	8,150 (▼ 110)	8,065 (▼ 145)	5,150 (▲ 131)	5,090 (▲ 90)	5,080 (▼ 70)
16.2.6 ~ 2.12	8,190 (■ 0)	8,260 (■ 0)	8,210 (▲ 20)	5,019 (■ 0)	5,000 (▲ 30)	5,150 (▲ 170)
16.1.7 ~ 1.13	8,190 (▼ 450)	8,260 (▼ 1500)	8,190 (▼ 610)	5,019 (▼ 381)	4,970 (▼ 430)	4,980 (▼ 520)

주: ()의 수치는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임강택,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경제리뷰』,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8) 이에 대해서는 임강택,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을 참고하라.

유효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2. 그러나 제재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몇 가지 징후들

그런데 앞서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2016년 상반기 국제사회가 실시한 대북제재는 실제로 북한경제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아니다’ 또는 ‘부분적이지만 영향이 나타나는 것도 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우선 <표 5>를 보자. 이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금광(Gold ores) 수출은 2016년 3월을 기점으로 극적으로 하락한다. 당연히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UN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금 관련 수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금 관련 수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금 관련 수출이 북한정권의 통치자금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이 그때그때의 통치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금 관련 수출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표 5> 북한의 대중국 금광(HS 261690) 수출 추이

(단위: 천달러,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5년	1,305 (-40.9)	1,025 (72.2)	2,945 (79.6)	2,816 (135.4)	2,278 (-9.7)	3,345 (45.1)
2016년	2,369 (81.6)	1,497 (46.1)	1,674 (-43.2)	251 (-91.1)	243 (-89.3)	0 (-100)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4).

<표 6> 2016년 상반기 월별 북중무역 규모와 증가율

(단위: 백만달러,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6	수출	178 (-4.0)	162 (2.5)	229 (13.1)	161 (-22.3)	176 (-12.6)	211 (-3.2)
	수입	211 (1.3)	162 (6.9)	236 (15.6)	268 (-1.5)	239 (-5.9)	288 (18.6)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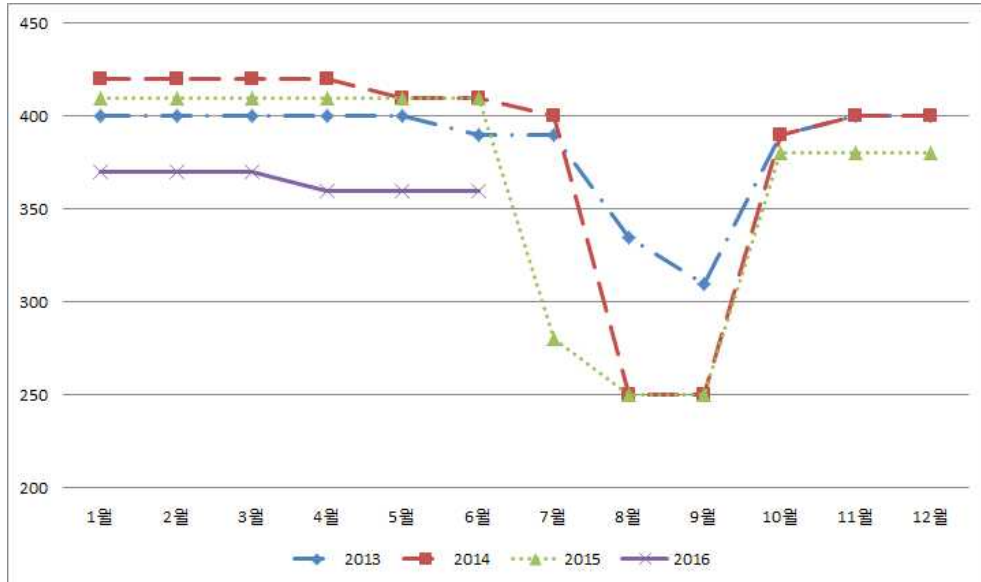
인식이다. 만일 이러한 인식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표 5>는 2016년 상반기 실시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정권에 일정한 타격 또는 최소한의 불편함을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표 6> 역시 매우 흥미롭다. 여기에 나타난 수치들은 북한의 대중수출과 수입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4월부터는 갑자기 마이너스(-) 증가율로 역전되며, 특히 수출의 경우에는 4월부터 연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급격히 감소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2016년 3월을 분기점으로 중국이 북한에 실제로 UN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UN제재의 핵심은 무연탄 같은 북한의 대중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는 앞에서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에 맞서 제재가 실행되기 이전 가능한 대외교역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수치들은 비록 북한당국이 제재가 실시되기 이전 인위적으로 북중무역 규모를 확대시켰지만, 이러한 노력은 이미 2016년 3월을 기점으로 효력이 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비록 앞서와 같이 2016년 1~6월을 누적하여 살펴본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제재의 실질적 이행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표 5>와 <표 6>을 서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것은 2016년 상반기에도 이미 부분적으로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일부 존재하고, 이러한 효과는 추세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지도 모른다는 말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2016년 4~6월이라는 3개월의 수치만을 가지고 도출한 것이므로 결코 맹신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 수치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대북제재의 효과가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과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에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경제변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그림 4]를 보자. 이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식량배급은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15년 북한의 식량생산이 저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하반기로 갈수록 북한경제에 미치는 제재의 영향력이 더욱 가시화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만일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북한 당국의 경제운용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경우 예년과 같이 북한이 해외로부터 식량을 조달하여 배급을 정상화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북한은

[그림 4] 북한의 월별 식량배급 추이(2013년 1월~2016년 6월)



자료: FAO, "GIEWS Updat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various years.

대북제재에 맞서 새로운 '200일 전투' 등 강제적 노력동원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은 주민들의 시장활동을 사실상 차단하기 때문에 식량과 같은 기본 물자를 일정 부분 정부가 제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현재 북한의 식량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그림 4]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여기에 더해 하반기로 갈수록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더욱 가시화될 경우 북한의 전반적 식량부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200일 전투'와 같은 강제적 노력동원 정책 역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해야만 하는 사실은, 만일 위에서 언급한 상황이 하나라도 벌어진다면, 이는 북한주민들의 제재에 대한 인식을 크게 뒤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상반기에 국한할 경우 아직은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 북한주민들의 제재에 대한 인식 역시 극히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현재의 '200일 전투'와 같은 강제적 노력동원 정책에 대한 일반 북한주민들의 이해도 역시 크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제재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력해 진다면 사정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제재의 영향력을 체감하는 북한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며, 동시에 현재 북한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200일 전투'와 같은 노력동원 정책이 결국에는 제재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역시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제재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대응정책에 대해 일반 북한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현재로서는 결코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움직임을 볼 때, 비록 아직까지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① 부분적으로는 일부 효과가 존재하고, ② 실제 효과는 2016년 상반기보다는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며, ③ 현재의 북한경제 자체가 이러한 제재에 취약한 여러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작정 제재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3. 그리고 더욱 우울해진 향후의 북한경제에 대한 전망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관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의 북한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일까? 물론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한 대답이 불가능할 것이다. 향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지속될 것인지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데다,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 대응이 어떤 형태로 변모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북한의 일반 경제주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가 모두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북한경제 추세만큼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 모두가 향후 북한경제의 성장에는 부정적 요인들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에는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기조가 표면화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둘러싼 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갈등 가능성이 나타남으로써 향후 북한 내부에서 ‘(당국의) 경제적 통제력 확보와 이른바 개혁을 둘러싼 대립의 딜레마’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2016년 상반기 북한 당국은 그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청사진을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 전면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70일 전투’에 이은 새로운 ‘200일 전투’라는 지속적인 강제적 자원동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마치 2000년대 후반 김정일 정권하에서 시장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과거로 되돌리려 실시했던 여러 조치들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그런데 매우 당연하지만 이러한 정책기조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첫째, 현재 북한경제의 유지와 성장이 과거와 달리 전면적인 시장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기조는 북한의 거시경제 추세에 직접적인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둘째, 만일 향후 대북제재의 효과가 점점 가시화될 경우, 그것은 곧바로 북한주민들의 후생감소로 이어져 북한경제 전반이 상당한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제재의 효과로 대외교역이 감소할 경우 이의 영향력을 완화시킬 시장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북한주민들이 입을 피해 규모는 커다란 편차를 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반발 역시 점점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을 통제하는 강제적 자원동원 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난 수년간 이의 반대 상황에 익숙한 북한주민들로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매우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현실 때문에 향후 북한경제 내부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항하여 경제적인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아니면 이와 반대로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을 더욱 장려하는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딜레마가 시작될 개연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북한 당국이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제재에 대항할 수 있는 정권의 역량을 비축하며, ② 주민들의 제재에 대한 기대(expectation)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의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③ 무엇보다 제재 자체를 정치적인 변명거리(excuse)로 이용하여 체제 결속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경우에는 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경제 활동의 제한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후생이 감소하며, ② 이로 인해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역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③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북제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자칫 김정은 정권 자체의 혼란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이와 정반대로 제재 국면에서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지지를 얻고 이들의 후생증대에는 기여하겠지만, 동시에 국가의 경제 통제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만일 제재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을 미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에 대항할 수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2016년 상반기 현재 북한 당국은 제재 국면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 이를 둘러싼 딜레마는 더욱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딜레마는 북한경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2016년 상반기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북한경제의 진행방향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같은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될 경우 북한경제의 안정성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V. 결과 -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모습

본고에서 우리는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개괄하기 위해 그것이 직면한 기본적인 제약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국제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성격 및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을 검토하고,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북한경제의 여러 특징들 역시 토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사실들을 요약하면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는 새로운 대북제재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① 악화되는 대외경제 환경, ② 진행되는 대내외 경제구조 조정, ③ 시장을 둘러싼 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긴장관계 가능성, ④ 전반적 식량생산 저하라는 제약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둘째, 여기에 부가된 2016년의 대북제재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중국이 이에 참여하고, 제재의 형태 자체가 중층적이며 복합적이고,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제재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는 동태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는 종래의 대북제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2016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물론, 김정은 정권하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사회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적극적 강조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그 결과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는 대북제재로 인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만큼의 극적인 경기침체 현상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경제 전반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재에 따른 경제적 혼란이 전면으로 표면화된 것 역시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재가 지속될 경우 향후의 북한경제는 상응하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징후는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되었다.

다섯째, 이상의 관찰 결과로 볼 때 2016년 하반기 및 그 이후의 북한경제는 조금 더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의 강제적 노력동원 정책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이 사실상 차단되어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후생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표면화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북한경제의 전반적 안정성 역시 더욱 취약해 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대북제재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jklee@kdi.re.kr

I. 머리말

2016년 상반기 북한 대외무역의 최대 변수는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라고 할 수 있었다. 제재의 주요 내용들이 북한의 수출입에 대한 통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UN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캐치올(catch-all) 방식의 전방위적 수출 통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을 수입금지품목¹⁾으로 지정했으며, 항공연료(가솔린, 나프타), 로켓연료(등유) 등은 수출금지품목²⁾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북한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했으며, 불법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금지시키는 등 압박이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가해지는 모습이였다.

작년 북중 무역액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리 수 감소 폭을 보이는 등 변화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악재 하나가 새롭게 추가된 것과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또한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는 대외경제 개선과는 별로 상관 없는 “김정은 영도자 지위 공고화, 당 중심 국가통치체제 재구축, 김정은 지지세력의 재편, 핵·경제 병진노선의 추진 입장 재확인,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외관계 기조 공표” 등의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됨으로써 개선의 여지를 더욱 없게 만들었다.³⁾

그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2016년 상반기 북한 대외무역의 추이를 제재와 연관시켜 분석해 보고, 2016년 하반기 주요 변수들도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 목적일 경우, 그리고 북한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금, 티타늄, 희토류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 항공연료는 인도주의 목적에서 UN 안보리가 승인할 경우 북한 민항기가 해외에서 연료를 급유 받을 때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3) 김중호,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경제변화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II. 2016년 상반기 북중무역 동향

2015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은 총 62.5억달러로 2014년도에 비해 약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KOTRA 기준).⁴⁾ 수출이 약 15% 감소했으며, 수입은 약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무역의 90%를 상회하는 북중무역의 감소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⁵⁾

그러면 작년 북중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15년의 경우 KOTRA와 중국해관통계의 기준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원유 수입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러하다. 중국해관통계는 2014년도부터 원유 수입에 대한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반면, KOTRA는 북한의 예년 원유 수입량과 최근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원유 수입액 추정치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KOTRA는 2015년 북중무역액을 57.1억달러(수출 24.8억달러, 수입 32.3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16.8%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지만, 중국해관통계는 54.3억달러(수출 24.8억달러, 수입 29.5억달러)로 2014년도에 비해 약 14.7% 줄어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⁶⁾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제재의 시작과 함께 외부 관찰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2016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약 0.6%). 대중 수출은 4.7% 줄어들었던 반면, 대중 수입은 오히려 늘어 5.3% 증가했다. 즉, 상반기 동안의 누적액으로 보면 북중무역은 작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합 계	무역 적자
2015년 전체	2,484 (-12.6)	2,947 (-16.4)	5,430 (-14.7)	463
2015년 1~6월	1,172 (-10.6)	1,333 (-15.8)	2,505 (-13.4)	161
2016년 1~6월	1,116 (-4.7)	1,404 (5.3)	2,520 (0.6)	288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주요 내용」, 보도자료, 2016.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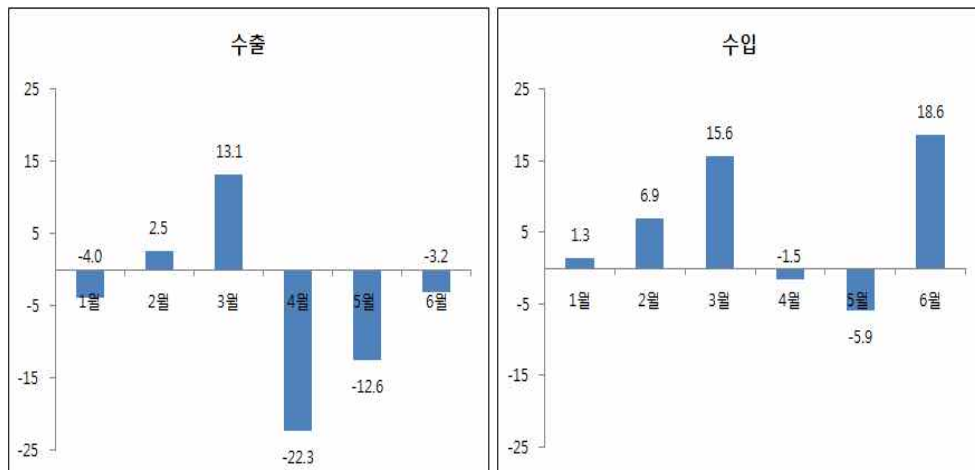
5) 중국 이외에 러시아,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등이 북한과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이나, 중국에 비하면 양적·질적으로 모두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KOTRA가 파악하는 무역액의 감소 폭이 중국해관통계보다 더 큰 이유는 원유 가격이 작년보다 더욱 하락하여 북한의 원유 수입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 무역액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해관통계는 원유 수입 자체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감소 폭이 더 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를 월별 단위의 변화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재의 이행 시점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2016년 상반기 북중무역이 중국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이전과 이후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면 북한의 제4차 핵실험(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 이후에 한국 개성공단 폐쇄(2월 10일), 일본 대북 독자제재(2월 10일), 미국 대북제재법안(H.R.757) 통과(2월 12일), UN 안보리결의 2270호(3월 2일) 채택 등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의 북중무역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경제주체들이 거래를 앞당겨서 진행하는 바람에 3월 북중무역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1 참조).⁷⁾

하지만 이 같은 증가세는 중국 상무부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품목 25종을 발표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면서 변화가 시작된다(4월 5일).⁸⁾ 그 결과 북중무역 추세에 급격한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4월과 5월에 무역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세는 다시 6월부터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작년 2분기와 비교해본다면 3.7%나 감소한 수치이다. 다만 6월부터 그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림 1] 2016년 상반기 월별 북중 무역액 변화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7) 이때 2016년 북중무역액 누적액(1~3월)은 11.8억달러로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한다.

8) 물론 중국정부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대표나 책임자의 직인이 찍힌 서약서를 해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해 수출입 업무에 부담을 줄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대북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수출입 품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 2016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은 약 4.7% 감소했다. 작년 감소 폭이 워낙 컸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기저 효과(基底效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부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특히 석탄 수출은 작년보다 올해의 감소 폭이 현저하게 크다. 작년에는 0.5% 감소하는데 불과했으나, 올해는 14.6%나 감소했다.⁹⁾ 이는 북한 외화의 주요 원천인 석탄 수출에 지속적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¹⁰⁾ 결국 석탄은 올해 상반기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을 감소세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작년에 유독 부진했던 수산물과 철광석 수출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는데, 수산물(HS03)은 12.7% 증가했으며, 철광석은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재의 예외 대상인 민생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의류제품(HS61, HS62)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¹¹⁾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는 특이할 정도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품목도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아연광(2,202만달러, 273%), 아연괴(1,880만달러, 13,248%) 등이다.¹²⁾ 또한 변압기(1,166만달러, 9.9%), 목재(948만달러, 4.3%)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HS 코드	품목명	2015년(1~6월)		2016년(1~6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2701	석탄	570	-0.5	487	-14.6
2	6203	남성 재킷	69	-17.4	97	41.2
3	6204	여성 재킷	42	-16.5	53	26.6
4	6202	여성 코트	39	-29.4	46	19.0
5	6109	티셔츠	46	98.3	37	-18.6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 총계			954	-10.6	1,116	-4.7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9) 산동성, 허북성, 요녕성 등으로의 석탄 수출은 작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강소성과 복건성으로의 수출은 크게 늘었다.

10) 물론 석탄을 해외로 수출하는 대신 국내에서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산업생산을 늘리고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경화 확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북한경제(특히 재정)에 부담을 주는 현상이라고 분석된다.

11) 의류 수출 증가율: 2013년(33.5%), 2014년(26.2%), 2015년(7.9%)

12) 아연광의 경우 주로 요녕성으로 수출되었고, 아연괴는 거의 전량이 강소성으로 수출되었다.

〈표 3〉 무연탄 수출단가 및 국제시세(월평균)

(단위: 달러/톤)

		무연탄	
		북한 수출단가	국제시세
2014년	상반기	76.91	80.22
	하반기	70.28	70.06
2015년	상반기	60.29	64.41
	하반기	47.37	58.83
2016년	상반기	46.38	5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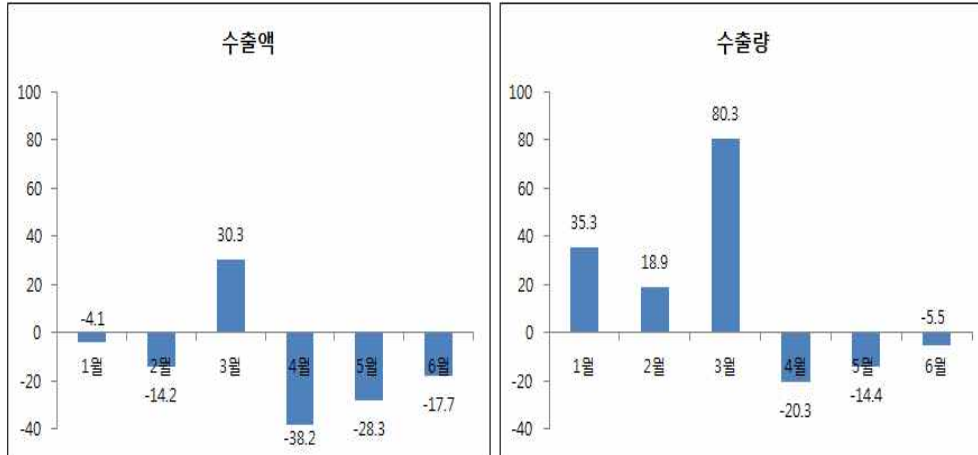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Index Mundi(<http://www.indexmundi.com>, 검색일: 2016. 7. 23).

2016년 상반기 석탄 수출은 북한의 전체 수출 부진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2014년과 2015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약간의 내용상 차이가 있다면 2014년에는 석탄 수출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하락,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었던 것이고, 작년에는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물량을 상당히 증가시켜 봤지만 가격 하락의 폭이 워낙 커서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었던 경우이다. 2016년 상반기 동안의 석탄 수출액은 약 14.6% 감소했는데, 부진의 패턴은 작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북한산 석탄의 수출단가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하락했으며(2015년 60달러, 2016년 46달러), 물량은 오히려 10%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석탄의 경우 이번 UN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다. 그런 만큼 제재의 영향이 상반기에 어떠한 패턴으로 변화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상반기 석탄 수출의 월별 변화도 중국 상무부의 제재 이행 발표(4월 5일)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1월과 2월 연속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3월에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¹³⁾ 하지만 중국의 발표 이후 4~6월에는 모두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량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15년부터 단가 하락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올해 4월 처음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또다시 5월과 6월에 연속으로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할 것이다.

13) 이때까지 누적 수출액(1~3월)이 2.5억달러,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4.3% 증가하는 등 석탄 수출이 작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게까지 했다. 이는 물량 증대 효과가 가격하락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2015년과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2016년 상반기 월별 석탄 수출액 및 수출량 변화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한편,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은 늘었다(5.3%). 앞서 [그림 1]에서와 같이 1~3월 월별 수입 변화는 정(+)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4~5월 월별 수입 변화는 부(-)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다시 6월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면(裏面)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대중 수입 변화에 관한 추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조금 더 모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¹⁴⁾

현재까지의 대중 수입 패턴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원유 수입에 관한 통계가 여전히 누락되어 있는 가운데 2014년과 2015년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석유제품의 수입도 줄었다(-0.4%). 특히 3월에는 석유제품 수입이 급감했는데(-32%), 이때 일부 장마당에서 휘발유 가격의 상승이 관찰되기도 했다.¹⁵⁾ 둘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수입이 늘었다. 이 같은 품목의 수입 증대는 의류 수출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이들 제품이 민생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성필라멘트사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질소비료 수입이 크게 증가(183%)했는데, 이는 김정은의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자강력 체일주의 강조, 본격적인 국제제재에 대한 대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매우 특이하게 사과, 배 등 과일 수입이 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다.

14) 제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무역 추이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컨센서스를 이룬다. 즉, 올해 연말 정도는 되어야 제재의 효과를 논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가 준비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같은 원칙은 수입 뿐 아니라 수출도 마찬가지이다.

15) 「연합뉴스」, 「AP 통신, 북한 휘발유 값 3월에 14% 급등... 대북제재 등 영향」, 2016. 4. 14.

〈표 4〉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HS 코드	품목명	2015년(1~6월)		2016년(1~6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66	-17.8	75	13.8
2	0808	사과, 배	13	14.5	68	418.3
3	8704	화물자동차	56	27.6	56	1.1
4	2710	석유제품	47	-36.8	47	-0.4
5	1506	대두유	43	-12.1	42	-0.3
북한의 전체 대중 수입 총계			1,333	-15.8	1,404	5.3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III. 2016년 상반기 남북교역 동향

지난 2월 10일 우리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이 전부라고 할 수 있었으나, 이마저 중단됨으로써 남북경협은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역대 최대¹⁶⁾ 남북교역액을 달성했던 2015년의 월평균 수준보다 2016년 1월의 교역액이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남북교역액은 올해 다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표 5〉 개성공단 교역 추이

(단위: 천달러)

연 월	개성공단 반입	개성공단 반출	합 계
2013년 월평균	51,221	43,127	94,348
2014년 월평균	99,361	93,674	193,034
2015년 월평균	121,050	105,192	226,242
2016년 월평균(1~2월)	92,940	72,877	165,817
2016년 1월	147,344	119,192	266,536
2월	38,536	26,561	65,097
2016년 소계	185,880	145,753	331,633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2~16년, 각년도.

16) 또한 2015년 생산액은 5.6억달러로 연간 생산액이 최초로 5억달러를 돌파했다(통일부[2016]).

IV. 평가 및 전망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북중무역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제재 효과의 유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북중무역을 분석했다. 북중무역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소폭 늘어나기는 했으나(0.6%), 지난 4월 5일 중국 상무부의 제재 이행 결의 발표 이전(1분기)과 이후(2분기)의 추세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즉, 1분기에는 북중무역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했으나,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인 2분기에는 3.7% 감소한 것이다. 또한 2분기에는 그동안 줄곧 증가세를 이어오던 석탄 수출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석탄의 경우 북한이 단가 하락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을 늘림으로써 전체 총액의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해오던 상황이어서 제재로 인한 외화획득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유제품 수입이 줄어들자 장마당에서 휘발유, 경유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1~2분기 정도만 지속된 후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재의 실효성을 논하는 작업은 조금 더 추세를 보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제재의 지속성 측면).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민생품목은 제재의 예외대상인 만큼 이와 관련된 품목들의 수출을 늘려 외화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비록 외화가득률이 낮다고는 하나(김석진[2015]), 재정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물품에 대한 수출을 의도적으로 늘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둘째, 非상품 거래를 통한 외화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다. 노동자 송출에 대한 제재가 상품 거래에 대한 내용에 비해 불확실하고, 국가들 간 컨센서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노릴 수도 있다(이석[2016]). 또한 비공식부문에서 지대를 추구(rent-seeking)하는 것도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인데, 이러한 채널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공식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를 조금 더 정교하게 공식화·제도화하려 할 것이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최근 동북아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제재에 균열을 일으키고 북중무역에서 돌파구를 찾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하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 변화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변수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석탄 수출물량의 변화이다. 그동안 북한은 석탄 수출단가 하락에 대응하여 물량을 증가시키면서 수출액 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왔으나, 석탄이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이러한 대응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더구나 석탄은 민생용품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따라서 석탄 수출량이 향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제재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둘째, 외화벌이 채널의 변화 여부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지하자원 수출 감소에 따른 북중무역 부진(무역 측면), 경제개발구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 실적 저조(투자 측면) 등을 경험하면서 외화 확보 채널 변화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비록 제7차 당대회에서 대안이 제시되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당국의 지시가 없더라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재와 관련이 없는 부문, 즉 위험도가 낮은 부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품목은 제재의 예외대상인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들로 예상되는 바, 의류 수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석탄·철광석이 아닌 아연, 구리 등의 다른 지하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정도이다. 그동안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제재를 가하는 국가 입장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체가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지역경제 자체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성장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들어 다른 지역들로의 수출은 감소한 가운데 요녕성, 강소성, 복건성 등으로의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같은 추세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은 석탄 수출 감소가 전체 북중무역의 감소를 이끄는 모양새를 보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제재 이행 발표가 있었던 4월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향후 이는 북한당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과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경화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비상상품거래에서는 제재의 허점을 파고들며 대안을 찾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석진,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 김중호,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경제변화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pp.45~5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주요 내용」, 보도자료, 2016. 6. 15.
- 『연합뉴스』, 「AP 통신 “북한 휘발유값 3월에 14% 급등...대북제재 등 영향」, 2016. 4. 14.
- 이석,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KINU 통일나침반 16-01』, 통일연구원, 2016.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2~16년, 각년도.
- 통일부, 『2016 통일백서』, 2016.

〈웹사이트〉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3).
- Index Mundi(<http://www.indexmundi.com>, 검색일: 2016. 7. 23).

〈관련자료 목록〉

- 이종규, 「북한의 대외무역: 2015년 평가 및 201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pp.3~12.
- 이종규,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 및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5년 8월호, pp.22~32.

2016년 상반기 북한산업 동향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I. 머리말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분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대북 경제제재 등 악화된 대외경제 관계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에 따른 단기적인 노동력 투입의 증가 및 생산활동의 증가라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양호한 기상상황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감소는 주요 수출부문인 광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지만, 수입 감소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2016년 상반기에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노동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생산활동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상반기에는 이 효과가 대외무역 감소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아직 그 영향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2015년 하반기 이후 강수량이 예년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2014년과 2015년 상반기까지 농업 및 수력발전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가뭄이라는 기상요인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 등 2016년의 속도전은 대규모 신규 설비의 건설을 통한 생산능력 확충이나 전력, 철강 등 전략적인 품목의 생산목표 달성 등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주로 각 생산단위 생산계획의 조기 수행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상반기 계획을 70일 전투 기간 중에 조기 완수한다거나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조기 완수목표에는 생산목표뿐만 아니라 각 공장·기업소가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하던 개보수나 신제품 개발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즉,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의 목표는 어느 정도 개별 공장·기업

소의 역량과 자체 계획을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전면적인 top-down 방식이 어느 정도 지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야심적인 양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김정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목표달성에 대한 성과보도가 크게 늘어났다. 『노동신문』은 70일 전투에 대해 목표가 44% 초과달성 되었으며, 공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0% 늘어났으며,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대상이 준공, 조업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 또한 6월부터 시작된 200일 전투 첫달 동안 공업 총생산 계획이 20% 초과 수행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²⁾

대부분의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1,600여 개의 기업에서 70일 전투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선전되었다. 다만, 전력과 함께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금속소재를 생산하는 핵심 설비인 김책제철소의 생산성과 보도가 거의 없다는 점, 석탄화학공업 부문의 성과보도가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는 점, 경공업 부문에서는 식품가공부문보다 섬유·의류의 성과보도가 상대적으로 많다든가 하는 것들이 눈에 띄이는데, 이는 성과보도가 어느 정도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기존 설비의 개보수와 함께 새로운 제품, 공정, 기술의 도입에 관한 성과보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속도전이라는 특성에도 기인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인 국산화 정책 및 과학기술 중시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부문에서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3호기, 평양려명거리, 대규모 물길공사, 각급 보육 및 교육 시설, 체육시설, 일부 새로운 생산설비 건설 등 활발하게 생산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전년 같은 기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II. 2016년 상반기 북한산업 및 실물동향

1. 전력 및 광업

가. 전력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70일 전투 및 6월부터 시작된 200일 전투의 영향, 그리고 가뭄의

1) 『노동신문』, 2016. 5. 6.

2) 『노동신문』, 2016. 7. 4.

해소 등으로 전력부문 생산은 전년에 비해 적지 않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초부터 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와 수풍발전소 등 수력발전소의 생산성과가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보도는 70일 전투가 시작된 3월부터 크게 늘었다. 노동신문은 전력부문에서 70일 전투 목표를 10% 초과수행하였으며, 200일 전투 첫달 생산계획을 20% 초과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 등 속도전이 추진되면 성과보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난해 전력부문에 대해서 『노동신문』이 거의 침묵을 지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생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화력발전의 경우 북창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등에서 70일 전투 기간 동안 전력 생산계획을 11% 초과달성하였다고 하며, 특히 북창화력발전소는 70일 전투 기간 동안 매일 평균 백수십 만kWh의 전력을 증산하였으며, 순천과 청천강 화력발전소는 각각 1,750만kWh와 1,635만kWh의 전력을 증산하였다고 한다.⁴⁾ 석탄공급의 증가와 함께 발전소의 개보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이후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 제재에 따라 수출용 무연탄이 화력발전소에 공급되어 발전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⁵⁾

수력발전부문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량부족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⁶⁾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전력 생산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10월경부터 소수의 성과가 보도되던 전년대와 달리 연초부터 많은 수력발전소의 발전성과가 다수 보도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증산 수치나 목표 초과달성 정도가 보도된 화력발전부문과 달리 70일 전투의 구체적인 성과가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월 초순까지는 수력발전부문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월의 성과도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

투자 측면에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가 완공, 조업하였으며, 홍주청년 3호발전소 등 일부 중소형 발전소도 완공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송배전망의 현대화와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전년에 이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관련하여 북한은 평성자동화기구공장, 새날전기공장,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연구소 등에서 10kW, 100kW 풍력발전기를 자체 제작하였다고 하며, 태양광전지판의 자체 생산능력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다.⁷⁾ 태양광을 전원으로 하는

3) 『노동신문』, 2016. 5. 6; 2016. 7. 4.

4) 『노동신문』, 2016. 5. 4; 2016. 5. 6.

5) 2016년 1~5월 기간 동안 무연탄의 대중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4월과 5월은 물량도 줄어 들었다. 그러나 줄어든 수출 물량이 내수로 돌려졌을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영 화력발전소에 공급할 때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한 매체는 5월 이후 북한의 전력사정이 개선되었는데, 이는 수출용 무연탄이 내수용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지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6) 2015년 하반기부터 강수량이 늘어나서 2015년 전체로는 평균 강수량이 예년 수준을 넘어섰다. 2016년에도 평년 수준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 중인데, 5월의 경우 평균 강수량은 148mm로 평년 대비 92%가 증가하였다.

7) 『노동신문』, 2016. 5. 14.

유람선 건조 성과도 보도되었다.⁸⁾

나. 광업

여타 산업과 달리 광업은 수출의 비중이 큰 업종이다. 따라서 전년도에 이은 수출 감소, 그리고 4월 이후 중국의 공식적인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통제 등이 어떤 형태로든 광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16년 1~5월 동안 북한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약 12% 감소하였다.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의 대중 수출은 3억 8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하였다. 이러한 대중 수출의 감소는 수출단가의 하락에 의한 것인데,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은 86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4% 증가하였다. 철광석의 경우 금액과 물량 측면에서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이 대북 경제제재 품목으로 지정되었지만 석탄의 예에서 보듯이 아직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4월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전년보다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으로도 크게 줄어들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수용 생산의 경우에는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의 영향 등으로 생산활동이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70일 전투 기간 동안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목표보다 10만톤의 석탄을 증산하고, 덕천, 구장, 북창, 득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석탄 생산을 10%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으며, 6월에는 목표보다 40% 많은 석탄을 생산하였다고 보도하였다.⁹⁾ 다만, 최근 2년간 석탄 증산에 대해서는 증산 규모가 수치로 제시되었는데, 2016년에는 개별 광산연합기업소에서 산발적으로 증산 규모가 수치로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석탄공업성 전체로는 증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증산 규모가 실제로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철광석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채, 무산광업연합기업소와 재령광산을 중심으로 생산성과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8) 『노동신문』, 2016. 5. 15.

9) 『노동신문』, 2016. 5. 6; 2016. 7. 4.

2. 제조업

가.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 부문에서는 기계(수송기계 포함), 중전기, 화학 공업 등에서 성과가 두드러지며, 금속부문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에 이어 기계 및 전기 부문의 성과보도의 비중이 크다. 기계공업성은 3월 경제계획을 107% 초과 수행하였으며,¹⁰⁾ 70일 전투 기간 중 대안중기계연합기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금성트랙토르연합기업소 등에서 공작기계 생산계획을 60% 초과달성하는 등 수력발전기와 터빈, 공작기계, 자동차, 트랙터, 굴착기, 압축기와 전동기, 감속기, 변압기 등을 계획보다 평균 50%, 최고 100% 초과달성하였다고 한다.¹¹⁾ 6월에는 채취기계부문이 월 생산목표를 70% 초과수행하는 등 기계공업 전반이 생산계획을 20% 초과달성하였다고 한다.¹²⁾ 또한 금성트랙토르공장 등에서 농업부문에 공급할 트랙터 부속품 공급계획을 조기에 완수하는 등 각 산업부문에 공급하는 기계부품의 공급도 증가하였다. 이는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에 따른 전반적인 생산활동 증가와 함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수력발전소 건설, 농기계 및 어선 등 농수산부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산 설비 및 자재에 의한 개보수 및 현대화 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 기조가 기계공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1~5월간 중국으로부터의 기계류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 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제품의 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13.4% 줄어들었지만, 일반 기계류의 수입은 오히려 6.1% 증가하였다. 수송기계 중 철도 관련 제품의 수입은 소폭 늘었으며, 철도 이외 제품의 수입은 소폭 감소하였다. 기계류의 수입 감소는 북한 기계공업 전반, 나아가 북한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화되었다고 볼 근거는 많지 않다. 특히 일반 기계류 수입이 3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각급 기계공장에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와 청진버스공장에서는 각각 5톤 신형 화물차와 버스를 개발하였으며, 금성트랙토르공장에서는 50마력 신형 트랙터를 개발하였다고

10) 『중앙통신』, 2016. 4. 3.

11) 『노동신문』, 2016. 5. 3; 2016. 5. 6.

12) 『노동신문』, 2016. 7. 4.

한다. 령남배수리공장에서 5,000톤급 화물선과 태양광전지 유람선을 건조하였으며, 구성공장 기계공장에서는 신형 CNC내면연마반과 외면연마반을 개발·생산하였고,¹³⁾ 대안전기공장은 100kW와 10kW 풍력발전기를 개발·생산하였고 한다. 아울러 감자수확기, 자행식분무기, 종합발갈이기계, 종합토양관리기계, 소형다기능농기계, 벼종합탈곡기 등 20여 종 70여 대의 농기계들이 개발·제작되었다고 한다.¹⁴⁾

화학공업도 다소 성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0일 전투 기간 중 남흥청년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생산계획이 20% 초과달성된 것으로 보도되는 등 석탄가스화 공정에서의 비료 생산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비날론과 기초화학제품의 생산도 증가하였다고 보도되었다.¹⁶⁾ 6월에는 비료와 비날론, 염화비닐 등을 중심으로 화학공업의 생산계획이 30% 초과수행되었다고 한다. 투자동향에 대한 보도는 많지 않은데, 주요 투자동향 보도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새로운 기계제염공정을 건설하였다는 보도 정도이다. 한편, 플라스틱, 비료 등 화학제품의 대중 수입은 북한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적어도 2016년 상반기에는 대외무역이 화학 원부자재의 공급 감소와 그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모양새이다.

금속공업은 지난해 준공·조업한 황해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를 통한 선철 생산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공업 전반으로는 여타 산업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황해제철소가 70일 전투 기간 동안 선철 및 압연강재 생산계획을 각각 29%와 11% 초과수행하고, 전리마제강소와 산하 보산제철소에서도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고 한다. 반면,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생산성과는 70일 전투 기간 내내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6월에는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 없이 황해제철소와 김책제철소에서 성과가 있었다고만 보도되었다. 이러한 성과보도는 공업 전반의 구체적인 목표달성 수치와 핵심 설비의 성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된 기계공업이나 화학공업의 성과보도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2016년 상반기 금속부문에서 성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1~5월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철강재의 수입이 15% 가량 증가하고, 수출은 45% 정도 줄어들었다. 수출 감소는 대북 경제제재 및 중국 측 수요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데, 수입이 증가한 것은 국내 수요 증가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핵심설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황해제철소에서

13) 『노동신문』, 2016. 5. 12.

14) 『노동신문』, 2016. 5. 14.

15)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가스화 비료생산 공정과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요소비료 생산공정은 조업 이래 최고의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보도 되기도 하였다. (『노동신문』, 2016. 4. 18; 2016. 4. 27).

16) 4월 19일 현재 70일 전투 비날론 생산목표를 50% 초과달성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노동신문』, 2016. 4. 21).

산소열법용광로 현대화 공사와 함께 무연탄 가스발생로와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압연가열로가 완공되었으며, 중랑레루완성직장의 레루수평교정기 설치, 후판압연가열로 고온공기연소 기술도입, 선탄공정 확립 공사 등 10여 개의 새로운 공정 건설 및 현대화 공사가 완료되었다.¹⁷⁾ 김책제철소에서는 대형 무연탄알탄 생산기지가 완공되었으며, 천리마제강소에서는 산소분리기 설치와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내화물 생산기지 건설이 추진되었다.¹⁸⁾ 시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공업은 늘어난 건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 및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나. 경공업

경공업은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신문』은 70일 전투 기간 중 경공업 부문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이 54% 초과수행되었으며, 방직, 편직, 신발공업 부문에서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60% 증가하였고, 잠업비단공업국의 생산은 2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방직실, 일반천, 뜨개옷 등은 물적 생산실적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200일 전투 첫달인 6월에는 일반천, 뜨개옷, 양말 등을 중심으로 경공업 총 생산액 계획이 20% 초과달성되었다고 한다.

2016년 1~5월 기간 동안 대중 섬유류의 무역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수입이 감소하였던 섬유 원자재(HS 54, 55)의 수입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의류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 대외무역은 섬유·의류 부문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년과 달리 식품가공부문은 성과보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6월에 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을 중심으로 식료일용공업성 기업들이 계획을 30% 초과달성하였다는 보도가 대표적인 성과보도였다.

설비투자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들레학습장공장, 류경김치공장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공업 공장들이 완공·조업하였다.

17) 『노동신문』, 2016. 5. 25.

18) 『노동신문』, 2016. 5. 3.

다. 건설 및 국토관리

건설부문은 전년에 이어 활발하게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 70일 전투의 핵심 과제인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완공되었으며, 원산군민발전소 및 홍주청년3호 발전소 등이 완공되었다. 지난해의 미래과학자거리와 유사한 성격의 려명거리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함흥과학자살림집 건설 1단계가 완공되었다. 함흥, 해산 육아원, 유아원이 완공되는 등 전국에서 보육시설 건설공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평양중등학교 등 각지의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동물원 2단계 개선공사가 진행 중이며, 평양시의 100여 개 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지의 650개 체육시설이 개보수 및 현대화되었다. 또한 600여 km의 강하천을 정리하고, 200여 정보의 호안림을 조성하였으며, 10여 만 정보의 산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백수십km의 도로를 개보수하며, 수십 개의 다리를 건설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아울러 청천강-평남관개 자연흐름식 수로공사가 새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루벌물길공사, 황해남도물길공사 등 대규모 수로공사와 능금도, 용매도 간석지 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 추진과정에서의 설비 개보수 및 현대화 등 기업 투자를 수반한 건설공사도 상반기에는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당창건기념일 이벤트를 위하여 대규모 건설공사가 다수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건설활동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III. 2016년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의 성과는 대외경제 관계의 악화와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라는 속도전을 통한 자원의 집중 투입이라는 상반된 요인이 작용하였다. 전년과 달리 기상조건은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나 대북 경제제재 등 대외경제 관계의 악화에 따른 영향은 무연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의 수출 감소라는 형태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석탄광업을 비롯한 광업 부문의 실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2016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수출 감소가 설비 및 원부자재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북한산업 전반의 생산활동을 저하시키는 작용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계류의 수입이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감소 폭은 전년과 유사하며, 오히려 일반 기계류는

수입이 증가하였다. 철강재는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화학 원부자재도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섬유류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 대북 경제제재가 광업을 제외하고는 북한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가운데, 단기적으로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속도전인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의 영향으로 2016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산업생산 활동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70일 전투의 계획이 44% 초과달성되고, 기간 중 공업 생산액이 전년에 비해 60% 성장하였으며, 200일 전투 첫달인 6월에는 공업생산 계획이 20% 초과 달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신문』의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노동력과 자원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하는 속도전이 해당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증산효과를 거두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때, 상반기 중 북한산업 및 실물부분은 전반적으로 생산활동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 내부에서는 전력, 기계, 석탄광업, 화학, 섬유·의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컸을 것으로 추정되며, 금속공업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가뭄에 따른 수량부족으로 수력발전소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사정이 악화되었던 발전부문이 2016년 상반기에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대북 경제제재의 지속에 따른 대외경제 관계의 악화와 노동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200일 전투에 따른 단기적인 생산활동의 증가라는 서로 상반된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상반기에는 산업생산 활동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북 경제제재가 현재의 강도로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에도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제제재에 따라 산업생산 활동이 갑작스럽게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대외 의존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북한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며, 점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의 70일 전투에 이은 200일 전투의 지속으로 북한은 3월부터 거의 연말까지 속도전을 추진하는 셈이 될 것이다. 속도전이 단기간에 그친다면 자원배분 효율성의 희생을 통하여 단기간에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지속되면 생산활동 자극 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후유증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가 각 생산단위의 기존 계획의 수행 기간을 앞당기는 형태의 목표를 주로 설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하반기 북한산업의 성과는 대북 경제제재의 지속 속에 이미 추진 중인 200일 전투가 얼마나 자원의 낭비를 줄이면서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2016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북한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상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및 성과 평가

조남훈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chonh@kida.re.kr

I. 머리말

북한의 군수산업은 사실상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포괄한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무기체계 또는 의복 같은 공산품뿐만이 아니라 곡식 및 해산물 등과 같은 1차산업 제품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공장뿐만 아니라 농장 및 수산기업소 등으로부터 공급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군수품을 공급하는 군수업체의 상당 부분은 북한군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북한의 군수산업은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 및 수산업 등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수산업이라고 칭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무기체계 또는 군수품을 가공 및 생산하는 군수공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수산업과 군수공업 또는 국방공업을 상호 호환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본고에서 북한 군수산업의 2016년 전반기 동향 및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런데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공식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아서 산업의 성과를 가늠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 산업의 동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북한 군수공업은 농업 및 광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욱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그 성과를 추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 파악에 그나마 도움을 주는 것은 『노동신문』, 『조선신보』 및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정부 또는 재일조총련 등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의 보도기사 들일 것이다. 또한 일부 국내 및 해외의 북한 관련 전문 언론매체가 보도하는 기사도 북한 군수산업을 이해하는 데에 단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북한 연구에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이러한 자료들조차도 북한 군수산업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 또는 기사들의 상당 부분이 정보 부족의 결과로 왜곡되어 있거나 북한정부 선전선동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와 비판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1차 자료의 절대적인 미비로 인해서 부족하나마 상기의 자료들을 분석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북한 언론매체의 자료를 포함, 가용한 자료들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북한 군수산업의 상반기 성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 군수산업의 2016년 전반기 동향 및 성과

2014년 5월 30일 발표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 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정은 담화 이후에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는 원료의 수요와 상품 공급을 정부 차원이 아닌 공장 및 기업소 차원에서 결정하고 있다.¹⁾ 공장 및 기업소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진 것이다. 그 결과 공장 및 기업소의 생산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민생분야 제품의 생산에만 적용된다. 무기 및 군수품 생산은 여전히 국가의 사전계획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정부의 정책결정 및 생산량 배정이 군수산업분야 공장의 생산량 실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각 군수공장이 정부로부터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배정 받았는지가 그 공장의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편, 원료 공급의 원활성도 각 공장의 생산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자원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원활한 원료수급이 뒷받침되어야만 각 공장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력 및 용수 공급과 같은 생산기반 요소의 원활한 공급도 생산량 증가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군수품을 생산하는 북한의 군수공장은 이러한 원료 공급 및 생산기반 요소의 부족을 상대적으로 덜 걱정하였다. 왜냐하면 김일성 및 김정은 시대에 ‘국방·경제 병진노선’과 ‘선군노선’ 등을 따르던 북한에서는 군수공장에 대해서만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우선적

1) 『노컷뉴스』, 「북한 ‘5·30 조치’,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 관련 담화」, 2016. 1. 6.

으로 공급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방공업정책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북한 군수공업의 성과를 추정하는 데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판단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된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생산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부의 공업투자정책은 재래식 분야 군수공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데에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먼저 최근 북한 국방공업정책의 방향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전반기 북한 군수산업의 동향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2016년 김정은 정권의 국방공업정책 방향

2016년 현시점에서 북한은 자신의 국방공업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즉, 김정은은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총결기간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에서 세상을 놀래도록 만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국방중시사상을 높이 받들어 우리 식의 새로운 주체무기 개발사업을 힘 있게 벌려 국방공업 발전에서 최첨단 돌파의 전망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핵무기 연구부문에서는 세 차례의 지하핵실험과 첫 수소폭탄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 ”라고 보고함으로써 국방공업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한 바 있다.²⁾

그런데 북한이 이처럼 국방공업부문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이 분야, 즉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국방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핵개발 및 민생경제 분야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북한이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모양이다. 2016년 들어서도 국방공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의

2) 『노동신문』, 「사업총화보고」, 2016. 5. 8.

‘사업총화보고’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정치군사적 위력강화’이다. 즉, 김정은은 “국방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운명,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 국방과학부문에서는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조국통일대전의 진군 길을 열어제길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국방공업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³⁾

그런데 이와 같은 김정은의 주장은 2016년 1월 발표한 신년사에도 나타난 바 있다. 즉,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군수공업부문에서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군자리 혁명정신을 발휘하여서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핵무력 발전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생부문 발전도 함께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정은의 정책은 ‘사업총화보고’에 나타나 있는데,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5가지 방안 중 하나인 ‘경제강국 건설, 인민경제 발전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즉, 김정은은 경제 전반을 평가하면서 “첨단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인민경제 부문들 사이의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부문이 앞서나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 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 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입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낙후된 전력 및 수송 등의 선행경제 및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김정은의 민생경제 발전전략은 그의 인사정책에서도 표출된다. 김정은은 지난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내각총리 박봉주를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여서 향후 핵무력과 민생경제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⁴⁾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건대 북한은 2016년에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기반으로 핵무기, 재래식 무기 및 민생경제 등 세 분야 모두의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국방비는 한국의 30% 수준인 100억달러 정도이고

3) 『노동신문』, 「사업총화보고」, 2016. 5. 8.

4) 『연합뉴스』, 「북 박봉주 당 중앙군사위원회 포함 ... 병진노선 경제측면 지원」, 2016. 5. 10.

이 중 전력증강비도 한국의 약 40%에 달하는데,⁵⁾ 이것이 북한의 군수산업이 민수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제동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이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근거로 북한의 2016년도 국방예산을 들 수 있다. 2016년 북한의 국방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5.8%로서 2015년 예산비율인 15.9%에 비하여 약 0.1% 정도 감소하였다. 물론 북한이 발표하는 공표군사비가 북한의 실제 국방비의 약 30% 정도에 불과하여서 발표된 수치만으로는 국방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약간이나마 감소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2016년 국가예산 증가율이 5.6%에 달하고⁶⁾ 부문별로도 작년 예산과 비교하여 기본건설 13.7%, 교육 8.3%, 문화 7.4%, 산림 7.5% 및 수산 6.9% 등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2016년 국방예산은 다른 부문의 2016년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군수산업의 2016년 전반기 동향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수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북한군에 의한 국내 군수품 수요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국가의 무기수입에서 비롯된 해외수요이다. 그런데 북한의 내수는 매년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노후화된 무기를 대체하는 북한 재래식 무기의 대체수요와 기존 무기에 대한 운영유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수요 분야의 급격한 변동은 거의 없는 듯하다.

북한은 매년 상당 규모의 신규 무기체계를 전력화시키고 있다. 주로 노후화된 무기체계를 대체하는 수요인데 2016년 전반기에도 노후화된 전자 및 장사정포 등을 신형으로 대체하려는 통상적인 수요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규 조달 무기체계의 일부는 선전선동 측면에서 일부 계층의 헌납 형식을 빌려서 조달된다. 북한 관영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6월 1일 조선소년단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서 북한 소년들이 ‘소년호’로 명명된 122mm 방사포 10여 문을 인민군 부대에 기증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신규 무기체계의 일부가 이러한 형식을 빌려서 매년 북한군에게 공급되고 있다.⁷⁾

그런데 이와 같은 통상적인 재래식 무기체계의 대체수요 이외에 최근 특별히 부각되고

5) 『중앙일보』, 「한민구, 북한 실제 국방비 11조 5000억」, 2016. 5. 5.

6) 『경향신문』, 「북한, 국가예산 15.8% 국방비에 투입 ... 2016년 예산안 채택」, 2016. 3. 31.

7) 『노동신문』, 「소년호 방사포증정식 거행」, 2016. 6. 3.

있는 군수산업 활동은 미사일분야의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상반기 북한은 미사일의 연구개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활동은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진입 지상모의실험,⁸⁾ 대출력 고체로켓 엔진의 분출시험과 단분리실험,⁹⁾ 그리고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의 대출력 엔진 지상분출실험¹⁰⁾ 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인데,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사일분야 연구개발이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분야 연구개발의 투자 증대는 2016년 전반기 여러 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실험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최근 4년간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일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스커드 계열		2발(2월 27일), 2발(3월 3일), 2발(6월 29일), 2발(7월 9일), 2발(7월 13일), 1발(7월 26일)	2발(3월 2일)	2발(3월 10일)
신형 단거리		1발(9월 1일) 3발(9월 6일)	5발(2월 8일)	
노동 계열		2발(3월 26일)		2발(3월 18일)
무수단 계열				1발(4월 15일), 2발(4월 28일), 1발(5월 31일) 2발(6월 22일)
KN 계열	수발(2월 10일), 2발(3월 15일), 2발(5월 20일)		1발(4월 2일), 4발(4월 3일), 2발(4월 7일), 3발(5월 9일), 3발(6월 14일)	
SA 지대공			7발(3월 12일)	3발(4월 1일)
SLBM			1발(11월 28일), 1발(12월 21일), 1발(12월 25일)	1발(4월 23일)
300mm 방사포	6발(5월 18일) 1발(5월 19일) 4발(6월 26일)	4발(2월 21일), 4발(3월 4일) 3발(6월 26일), 2발(6월 29일) 2발(7월 2일) 4발(7월 30일) 5발(8월 14일)		6발(3월 3일), 5발(3월 21일) 1발(3월 29일)
240mm 방사포		3발(3월 4일) 100여 발(7월 14일)		
프로그 미사일		25발(3월 16일), 28발(3월 22일) 16발(3월 23일)		

자료: 『연합뉴스』, 「북 김정은 집권 이후 중단거리 발사체 발사 일지」, 2016. 6. 22를 재구성함.

8) 『노동신문』, 「탄도로켓트 대기권 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성공 …」, 2016. 3. 15.

9) 『노동신문』, 「대출력고체로켓트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성공 …」, 2016. 3. 24.

10) 『노동신문』,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트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 …」, 2016. 4. 9.

〈표 1〉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전반기에 26발에 달하는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사일별 집중발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한은 2013년에는 KN 계열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2015년에는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및 300mm 방사포의 시험발사를, 2015년에는 KN 계열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그리고 2016년에는 무수단 계열 미사일 및 대공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무수단 계열의 미사일 발사는 의도적인 고각발사로 미루어 볼 때, 대륙 간 탄도탄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획득을 위한 시험발사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북한은 2015년 1월 23일 및 5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SLBM 사출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해 11월 28일, 12월 21일 및 12월 25일에 SLBM 발사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2016년 4월 23일에도 신포 동북방 해상에서 SLBM을 발사하여 30km 정도의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¹¹⁾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해당 분야 국방산업의 가동률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험발사를 위해서는 탄두 및 추진체 같은 하부체계와 전자제품 같은 부품들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조립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북한 전체에 얼마나 많은 군수공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약간씩 다르다. Andrea Berger(2015)는 북한의 군수공장이 약 55~100여 개에 달한다고 추정하는¹²⁾ 반면에 미국은 북한의 군수공장이 약 134개 정도이며 그 대부분은 지하에 위치한다고 추정한다.¹³⁾ 한편, 북한 군수공장 중 군수완제품 및 군수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공장은 약 180개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전문가도 있다.¹⁴⁾

그런데 이 중에서 미사일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북한의 군수공장은 십여 개에 달한다. 2016년 이와 같은 미사일 공장들의 가동률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히 2016년 상반기에 김정은이 현지지도를 수행했던 대표적 미사일 생산공장인 태성기계공장¹⁵⁾과 2015년에 현지지도를 수행했던 미사일 부품공장인 평양약전기계공장¹⁶⁾ 등의 생산활동이 상당히 활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 『세계일보』, 「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일지」, 2016. 4. 23.
12) Andrea Berger(2015), p.36.
13) Andrea Berger(2015), pp.36~37.
14) 신범철 외, 『북한 군사연구 2012』, 2012. p.258.
15) 『노동신문』, 「태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 ...」, 2016. 3. 2.
16) 『동일뉴스』, 「북 김정은 평양약전기계공장 찾아 우리식 제품 개발하라」, 2016. 4. 8.

3. 북한 군수산업의 2016년 전반기 성과

2016년 상반기 재래식 무기의 대체수요를 포함한 북한 국방공업의 국내수요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고 추정된다. 특히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2월 23일에서 5월 2일까지 진행된 ‘70일 전투’가 군수공장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2016년 북한 국방공업의 가동률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미사일개발 분야는 2016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병행하여 활발한 생산활동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수요와는 달리 해외수요는 2016년 전반기에도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대북제재의 여파로 북한무기에 대한 해외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2016년 1월에 실시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다자차원에서는 ‘UN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발효되었으며, 미국, 일본 및 스위스 등 양자차원의 제재도 시작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무기수출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최근 북한은 해외 무기수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종완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공장 단위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국가에 대해서 무기 생산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해 주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나미비아 및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무기 생산공장 건설인데, 나미비아 정부는 북한이 아프리카에 무기 및 탄약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나미비아 사관학교 및 병영 건축 등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2016년 3월 17일에 발표한 바 있다.¹⁷⁾ 이러한 군수공장의 건설은 단기적으로는 최종완제품의 수출 감소를 가져올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무기의 운용유지 부품 및 하부체계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다.

III. 북한 군수산업의 2016년 하반기 전망

1. 대북제재가 북한 군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발효된 지 약 3개월 정도가 경과하였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17) *Defense News*, “Namibia Confirms North Korean-Built Arms and Ammunition Factory,” March 17, 2016.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대북제재 발효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제재가 북한 군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역시 시기상조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북제재가 군수산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분야에서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첫째는 국제시장에서의 북한 무기수출 감소이다. 북한의 무기수출은 대북제재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다. 그로 인해서 북한의 무기수출은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그런데 금번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포함된 재래식 무기의 catch-all 조항이 북한의 무기수출을 감소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대북수출 통제는 WMD 활동과 관련된 북한물품의 수출 통제에 중점이 주어져 왔다. 하지만 금번 UN 결의안은 북한 WMD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즉 북한 군대의 작전수행능력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그 결과 북한의 무기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이 주로 수출하는 미사일과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AK-47 기관총과 같은 소규모 휴대무기의 수출도 급격히 감소하리라 전망된다.

한편, UN 제재에 규정된 모든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검색도 북한 무기수출을 감소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북한의 무기수출은 이전의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선박 및 항공에 대한 느슨한 검색으로 인해서 국제적 감시망을 벗어난 북한의 무기수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형태의 북한 무기수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금번 UN 결의안은 수리 및 서비스 제공 목적의 무기운송조치도 위반임을 명시하였으며,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해운 및 항공의 자국 내 검색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은 ‘관련 회원국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UN 결의안을 준수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그동안 자국 내 화물검색에 크게 열의를 보이지 않던 중국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검색임무를 수행할지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시점에서 판단하건대 중국의 태도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듯하다. 즉, 중국은 과거보다도 상대적으로 열의를 갖고 UN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재래식 무기수출에 대한 중국의 규제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다. 즉, 중국은 UN 결의안 이행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양자제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북한의 외화소득이 핵개발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5일에 25개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4월 25일에는 WMD 및 무기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40개 품목에 대한 대북 금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로 판단해 보건대 중국의 대북제재는 이전과는 다른 강도로 이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이행준수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북한의 무기수출은 향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2. 북한 군수산업의 2016년 하반기 전망

지난 6월에 발표된 중국 해관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석탄의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 감소가 대북제재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러한 수입물량의 감소는 대북제재의 여파가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경기침체 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감소 때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북한의 해외소득 감소는 북한의 무기 생산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기 생산에 쓰이는 티타늄 같은 필수 원료의 대북수출 금지는 결과적으로 북한 무기 생산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들어서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중국의 수출금지를 우회하기 위하여 무기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의 불법수입이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트럭 밑에 티타늄 강판을 숨겨서 밀반입한 사례도 보도되고 있다.¹⁸⁾ 이러한 상황의 지속 여부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 및 국경무역 단속 정도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의 무기수요 감소는 필연적으로 2016년 하반기 북한 국방공업 가동률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하반기 경제성과 제고를 위하여 '70일 전투'가 끝나자마자 다시금 '200일 전투'를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200일 전투'의 대표적 성과로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성공을 꼽은 바 있다. 한편 군수공업이 속한 기계공업의 6월 실적이 12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품의 국내수요는 2016년 하반기에도 꾸준히 유지되리라고 생각된다. 북한이 국방공업 발전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험발사를 통한 미사일 분야의 가동률 제고는 2016년 하반기 국방공업의 전반적인 가동률 유지에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된다.

한편, 민생경제 투자 확대를 통한 재래식 무기 생산의 감소 경향이 중장기적으로 표출될

18) 「데일리NK」, 「북, 무기제조에 필요한 금속 트럭 밑에 숨겨 밀수입」, 2016. 4. 26.

19) 「동일뉴스」, 「북, 200일전투 한 달, 공업총생산액 계획 120% 초과 달성」, 2016. 7. 5.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는 핵개발이 상당 수준에 도달하여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미 억제력’을 확보하게 될 때의 상황이며,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생산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국방공업도 꾸준히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북한, 국가예산 15.8% 국방비에 투입 … 2016년 예산안 채택」, 2016. 3. 31.
- 『노컷뉴스』, 「북한 ‘5.30조치’,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관련 담화」, 2016. 1. 6.
- 『노동신문』, 「태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 …」, 2016. 3. 2.
- 『노동신문』, 「탄도로케트 대기권 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성공 …」, 2016. 3. 15.
- 『노동신문』, 「대출력고체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성공 …」, 2016. 3. 24.
- 『노동신문』,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 …」, 2016. 4. 9.
- 『노동신문』, 「사업총화보고」, 2016. 5. 8.
- 『노동신문』, 「소년호 방사포증정식 거행」, 2016. 6. 3.
- 『테일리NK』, 「북, 무기제조에 필요한 금속 트럭 밑에 숨겨 밀수입」, 2016. 4. 26.
- 『세계일보』, 「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일지」, 2016. 4. 23.
- 신범철 외, 『북한 군사연구 2012』, 한국국방연구원, 2012.
- 『연합뉴스』, 「북 박봉주 당중앙군사위원회 포함 … 병진노선 경제측면 지원」, 2016. 5. 10.
- 『연합뉴스』, 「북 김정은 집권 이후 중단거리 발사체 발사 일지」, 2016. 6. 22.
- 『중앙일보』, 「한민구, 북한 실제 국방비 11조 5000억」, 2016. 5. 5.
- 『통일뉴스』, 「북 김정은 평양약전기제공장 찾아 우리식 제품개발하라」, 2016. 4. 8.
- 『통일뉴스』, 「북, 200일전투 한 달, 공업총생산액 계획 120% 초과 달성」, 2016. 7. 5.
- Andrea Berger, Target Market: North Korea's Military Customers in the Sanction Era, *Whitehall Paper 84*, RUSI, 2015.
- Defense News*, "Namibia Confirms North Korean-Built Arms and Ammunition Factory", March 17, 2016.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임강택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tlim@kinu.or.kr

I. 머리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경제적으로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재의 주요 목표가 북한 당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함으로써 핵 관련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대북제재의 효과성이나 유효성을 평가·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제재의 성격이나 특징들이 제재 대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제출한 이번 대북제재법안(H.R.757)은 예전과는 달리, 미국의 정치권과 행정부가 북한 핵프로그램을 ‘실체가 있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정권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목표는 4가지로, 첫째, 북한의 도발행위들로 인해서 발생할 다양한 위기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북한 당국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협상용 외교적인 지렛대를 제공한다. 셋째,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완화시킨다. 넷째, 2004년에 통과된 북한 인권법(H.R. 4011)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재확인한다.¹⁾ 요약하면 북한 당국의 국제사회의 안보에 대한 위협적인

1) 2004년 상하원을 거쳐 부시 대통령의 서명(2004. 10. 18)으로 발효되었으며, 2012년 8월에 2017년까지 연장되었다. 이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표는 ① 북한 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② 탈북자들이 처한 곤경을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지속적인 인도적 해결책 촉진, ③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에 대한 관찰과 접근성 및 투명성 촉진, ④ 북한 내외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촉진, ⑤ 민주적인 정치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과정 촉진이다.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비군사적인 다양한 압박수단을 동원하며,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안(H.R.757)에 담긴 특징적인 조치로는 북한과의 거래 상대방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였고,²⁾ 제재 대상과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³⁾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 2270호(2016. 3. 2)에도 반영되었다.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는 무역제재와 금융제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무역제재’에서는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석탄, 철, 철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⁴⁾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는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또한 대북 항공유(로켓연료 포함) 판매와 공급도 금지품목에 포함되었다.⁵⁾ 여기에 금수대상 사치품 예시목록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하였다. 한편, ‘금융제재’는 WMD 관련 기관의 자산 동결과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시켰으며,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행의 유엔회원국 내 지점과 사무소의 신규 개설 등을 포함한 관련된 활동 금지와 90일 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와 은행계좌 개설 등의 활동을 중단하고 90일 내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하였다.⁶⁾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중국정부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움직임은, 지난 4월 5일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 25종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공고에 따르면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그리고 희토류 등 총 20종에 대해 대북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를 포함한 로켓연료 등 5종에 대한 대북 수출이 금지되었다.⁷⁾ 다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철, 철광석, 석탄에 한해서 민생목적이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 중국은 이어 6월 14일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하였다. 상무부 공고문을 통해서 발표된 조치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

2)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3) 무기 개발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광물의 거래를 금지시켰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활동과 인권유린 등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4) 석탄, 철, 철강 수출과 관련해서 2가지 예외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① WMD와 무관한 민생목적인 경우, ② 북한산이 아닌 석탄이 나진항을 통해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로, WMD와 무관하며 제재위에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5) 다만,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전에 제재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예외로 하였다.

6)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지원과 비엔나협약에 근거한 외교활동 및 유엔활동과 관련된 거래는 예외로 하고 있다.

7) 「연합뉴스」, 「中 중앙정부, 대북제재 공식화… 석탄·항공유 등 금지품목 발표」, 2016. 4. 5.

8) 예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을 중심으로 40여 종이 대북 수출 금지품목에 추가되었다.⁹⁾

이 밖에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 등이 단독으로 제재조치를 단행하는 등 국제사회가 강력한 연대를 바탕으로 북한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국제사회의 독자적·다자적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떤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시장(장마당)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자 한다.

II.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 파급경로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대해 제재를 선택하는 상황은, 특정 국가의 정책적 선택이나 행태가 심각한 위협을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적 수단 대신에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제재는 제재 대상국가에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에 따른 비용을 상승시키거나 경제적 거래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최고 권력자나 지배계층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문제가 된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북한의 경우에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고 있고, 주요 자원의 소유권과 중요한 물자들의 무역권한 등 경제적 이권을 당과 군의 주요 기관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이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장마당)은 돈주와 내각 산하 국영기업소 및 보따리상들과 중소 규모의 장사꾼들이 국가의 계획영역 밖에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철저하게 이원화된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점차 전통적인 계획경제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1. 경제제재의 효과가 파급되는 경로

경제제재가 대상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그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간접적, 우회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다른 분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경제제재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과 경로를 5가지로 구분하여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9) 『연합뉴스』, 「中, 핵·미사일 전용 가능 품목 40여 종 대북수출 추가 금지(종합)」, 2016. 6. 15.

[그림 1] 대북 경제제재 효과의 파급경로

대북 경제 제재	주요 조치 및 내용	⇒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	⇒	종합적 효과
	북한산 수출 통제		외환 수입 감소	-		외화 유동성 감소
	북한산 수입 제한		물자부족 심화	-		생산능력 위축
	해외 금융거래 중단		자금조달 및 거래비용 증가	-		설비투자 축소
			-	외국인 투자 감소		불법 및 비공식무역의 증대
			-	인도적지원 감소		

첫째, 수출통제에 따른 파급효과이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핵심은 북한 당국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여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광물들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WMD 개발과 연관될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이 중앙 집권적 통제경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북한의 광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출 제한조치는 북한의 외환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차적으로 국가재정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군수부문에서 필요한 외환 수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각부문의 외환 지출을 축소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계획경제 부문의 생산실적 감소라는 현상으로 표출될 수 있다.

둘째, 수입제한에 따른 파급효과이다. 북한이 무기개발 및 운용에 필요한 물자를 해외로부터 조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무기제작이나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전자·전기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재수단으로서의 수입 제한조치는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국가의 물자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번 제재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심각한 물자부족 사태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석유 등과 같은 품목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입 제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력갱생’과 ‘자강력’ 강화,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금융제재에 따른 효과이다. 유엔회원국으로 하여금 북한 (금융)기관과의 어떠한 거래도 중단토록 요청하고 있으며, WMD 개발과 관련된 무역활동을 금융부문에서 지원하는 행동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에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금융질서에서 북한을 배제시킴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무기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북한의 금융거래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자금조달 및 금융부문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효과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제재 대상국을 불량국가로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결국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외국자본의 신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기존의 투자사업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외국인 투자는 주로 설비와 원자재 반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투자의 감소는 북한경제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가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경제제재와 인도적 지원을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지원기구들의 대북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¹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축소는 다른 제재효과와 맞물려 북한 내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과 의료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현상은 이들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¹¹⁾

이상의 효과들을 종합하면 외화 유동성의 감소, 주요 물자의 부족, 설비투자의 위축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능력의 저하와 그에 따른 물자공급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밀무역이 제재에 따른 반작용으로 증가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제재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RFA』, 「국제 제재로 대북지원 극심 제한」, 2016. 4. 13.

11) 세계식량계획(WFP)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전역에서 5세 이하 6개월 이상 어린이의 영양실조 비율이 25.4%로 집계되었으며, 저체중 비율은 10.2%로 나타나고 있다(『미국의 소리』, 「WFP, 북한 양강도 어린이 영양실조율 최고」, 2016. 6. 28).

2. 경제제재가 북한시장(장마당)에 미치는 효과

본고는 경제제재에 따라 북한의 시장(장마당)이 받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차적인 의문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하여 북한경제가 전체적으로 받는 영향과 북한의 시장(장마당)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이다. 북한의 시장(장마당)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에 단행된 대북제재가 예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민생 목적은 예외 조항을 두어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들이 대부분 일반 주민들의 생계문제 해결과 생활경제에 필요한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시장(장마당)에서의 대북제재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시장(장마당)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시장(장마당)물가의 변화이다. 경제제재에 따른 시장물가의 변화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외환 수입 축소에 따른 시장 내 유동자산의 감소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시장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수입 제한과 외국인 투자 위축에 따른 물자공급의 감소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적인 물가는 두 가지 요인들이 결합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물가수준보다는 주요 물자별 시장물가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 거래량 규모의 변화이다.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작동할 경우, 시장가격의 변화방향과는 별도로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거래량 규모의 감소 폭을 통해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시장(장마당)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북한의 시장(장마당)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시장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수준의 변화이다. 시장에서의 거래량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고용효과와 소득창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일감이 줄어들고 소득창출 기회도 더불어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소득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II. 북한 당국의 대응 조치 및 전망

1. 주민들의 불안감 확산 방지

경제제재에 따른 파급효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 심리적인 충격을 통해서 경제·사회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제재가 예상되면 물자 부족과 물가상승을 예견하고 미리 생필품 등 관련 물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종종 특정 품목의 ‘사재기현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경제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이 통과되자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는 ‘정보유통의 통제’이다. 유엔 제재 소식이 북한 내부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북한을 방문한 중국상인들이 유엔 제재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추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재가 장기화되면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제강·제철·탄광 기업소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 북한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외화자산을 확보하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¹³⁾ 둘째는 부분적인 ‘가격 통제’가 추정된다.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북한지도부는 어느 정도 대비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¹⁴⁾ 즉, 경제제재의 시행에 따른 불안심리로 인하여 식량과 환율 등 주요 물가가 증가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요 돈주와 도매기관들에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식용유와 달걀과 같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¹⁵⁾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할 정도로 크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문제는 제재국면이 장기화되고 지속적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북한경제와 시장이

12) 『RFA』, 「북, 유엔 제재 내용 발설자 신고 지시」, 2016. 3. 18; 「북, 유엔 제재 발설한 중국인에 벌금 부과」, 2016. 3. 23.

13) 『DailyNK』, 「광산 주변 北 주민들, 대북제재 동요...『집 팔아 돈 마련』」, 2016. 4. 18.

14) NK 지식인연대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한 북한 내부문건(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78호(2016. 5. 20))에 따르면,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비해 전쟁 예비물자를 비축하라는 지시가 전달되었다고 한다. (『국민일보』, 「김정은, 유엔 제재 대비 전쟁예비 물자 비축 지시」, 2016. 6. 24).

15) 『연합뉴스』, 「北 “제재 이후 상품값 내려...자립경제 갖겠다” 주장」, 2016. 4. 10.

체감하는 충격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제재에 대한 불안과 불편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수출입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경제제재가 장기화되면 대부분의 제재 대상국에서는 제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며, 필요할 경우 자원의 흐름을 변경하는 산업구조의 조정까지도 시도된다고 한다. 주로 사용되는 제재 회피방법으로는, 제재 대상기업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위장 거래 및 밀무역 등이 있다.

이번의 제재조치에서 ‘민생목적’일 경우 광범위하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세관 당국이 개인들의 거래는 생계형 무역으로 보고 거래품목이나 결제내용을 철저하게 따지지 않고 있는 점이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¹⁶⁾ 이에 따라 제재 이전에는 북한의 무역기관들이 하던 생필품 수입을 이제는 개인 장사꾼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공식무역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북·중 접경지역에서 많은 밀무역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중 사이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둥지역의 사업자들에 따르면, 제재 초기에는 밀무역 조직들을 단속하기도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밀무역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제재의 여파로 밀무역을 통한 거래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취급하지 않았던 품목들의 거래까지 밀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⁷⁾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 당국은 위에서 언급한 회피방안 등을 활용하여 무역 제한을 통한 경제제재 조치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명의변경을 통해서 제재를 피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변화상황을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관찰·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3. 외화수입 감소분 보충 노력

북한 당국의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줄어든 외화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시도는

16) 『RFA』, 「북, 외화벌이기관 위장거래로 제재 피해」, 2016. 4. 14.

17) 『연합뉴스』, 「대북제재 강화 후 밀수업자 더 활개 … 화확·철강 수요 늘어」, 2016. 3. 31.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재 레짐 밖에서 새로운 외화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정부의 재정부문에 흡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제재의 대상이 아닌 영역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요즘 인권문제로 주목 받고 있는 해외 노동력의 파견을 확대하고, 다양한 관광사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¹⁸⁾ 이 밖에도 요즘에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근해 어업권의 판매와 같이 상대적으로 쉽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화자산, 주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국가가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확정된 이후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가장 먼저 동원한 방법으로는 당과 군의 특수기관 외화벌이 회사들에 수출입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에 판매할 물품을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외화자금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¹⁹⁾ 다음으로는 권력을 동원하여 ‘돈주(북한의 신흥 부자)’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있다고 한다.²⁰⁾

마지막으로 위안화 위폐 제조가 의심되고 있는 등 불법적 활동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²¹⁾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외화량이 경제제재로 인한 감소분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며, 특히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 물자부족 가능성에 대비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물자부족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재에 따른 물자부족 현상은 주민들의 불만 증대와 체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종합적·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정치적 대응으로 ‘자강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에서 행한 사업총화보고(2016. 5. 8)를 통해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의 제재가 결의되고 중국의 대북제재조치가

18) 『미국의 소리』, 「대북제재 불구, 중국인 북한 관광 활성화」, 2016. 7. 9.

19) 『RFA』, 「북, 돈줄 막히자 장마당 외화에 눈독」, 2016. 4. 22.

20) 『RFA』, 「북, 돈주 재산 노리고 표적수사」, 2016. 5. 25.; 북, 「국가명의 빌린 사기업 재산도 일부 압류」, 2016. 5. 26.

21) 『문화일보』, 「북 위안화 위폐 대량 제조, 부글부글 끓는 중」, 2016. 6. 28.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립경제’를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²²⁾ 국제사회의 ‘제재가 오히려 자강력을 강화해 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²³⁾

둘째,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전략물자의 수입이 제한되는 제재 국면을 국산화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산업기반이 붕괴된 이후 경제기반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강력’과 ‘제품의 국산화’가 강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통해서 국산화와 우수한 국산품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²⁴⁾ 따라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될 경우 국산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책적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²⁵⁾ 같은 맥락에서 수입 대체품의 개발 노력도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경제·사회적 접근인 대중동원운동을 통해서 생산력 확대와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단기간에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동원운동을 활용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제7차 당대회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70일 전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는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국민 총동원 생산성 향상운동으로 ‘200일 전투’를 추진하고 있다. 대중동원운동인 ‘전투’가 시작되면 장마당도 오후 늦게 열리게 되고, 각종 노동현장에 동원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시장에서 개인 돈벌이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사상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완현상을 억제해 결집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노력동원으로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동원되어야 하는 각종 기관들의 간부들까지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대중동원운동을 고집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응하여 사회적 결집력 강화와 생산력 증대, 그리고 시장활동에 대한 간접적 제약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대중동원운동을 통한 노동력 투입 확대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연합뉴스」, 「北, 제재 이후 상품값 내려... 자립경제 갖췄다」, 2016. 4. 10.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주간지 「통일신보」(2016. 4. 6)의 「제재 효과에 대한 생각」, 수필형식의 글을 통해서 식료품점에서 달걀 가격이 하락한 것을 소개하면서 “농들은 제재를 한다고 야단인데 오히려 공장은 더 쉿쉿 돌아가고 상품 값은 점점 내려가니 자강력이 줄긴 줄구나”라는 대화를 싣고 있다.

23)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연합이 추가 제재안을 발표(2016. 5. 27)한 것과 관련하여 “제재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며 제재는 우리의 자강력만 더욱 강화해줄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합뉴스」, 「EU 제재 우리 변화시키지 못해, 자강력 강화할 것」, 2016. 5. 30.

24) 「RFA」, 「주체에서 이름만 바뀐 국산화」, 2016. 2. 3.

25)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가 “오히려 군수공업의 국산화비율만 높아지게 할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15. 12. 16).

26) 「RFA」, 「북 주민들, ‘200일 전투’ 노골적 불만」, 2016. 5. 30.

IV. 대북제재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북한시장(장마당)의 반응

제재에 대한 북한시장의 반응은 앞으로 진행될 제재의 성격과 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북한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러한 시장의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북·중 접경지역의 사업가들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와 북한 관련 언론의 소식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접경지역의 반응은 인터뷰 시기와 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시장에서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북한시장에서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가운데 접경지역의 북·중 무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불안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측에 북한 거래 측과의 신용거래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제재로 인하여 북·중 무역거래의 불편함이 커졌다는 사실을 토로하면서,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고충을 조심스럽게 표출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북한주민들의 반응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이나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제재로 인해 주민들이 동요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주민들의 통태 파악 및 소문 확산의 차단, 그리고 불안감 증대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²⁷⁾ 다만,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제재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과 그룹들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소리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제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특정 광물 생산지역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우려의 움직임이 관찰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⁸⁾

27) 『Daily NK』, 「北, 제재에 동요 가능성 우려? “주민 철저감시” 지시」, 2016. 3. 8.

28) 『Daily NK』, 「광산 주변 北 주민들, 대북제재 동요…“집 팔아 돈 마련”」, 2016. 4. 18.

2. 주요 영역별 변화 추세

제재의 여파가 북한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물가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자재의 수입 제약 등으로 제재에 따른 물자 공급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반면에 제재에 따른 유동자산의 감소로 수요 위축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상품과 대외수출이 제약을 받는 상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물가의 추세보다는 제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상품별 가격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거래량과 그에 따른 소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제재의 충격이 어느 정도나 미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재의 목적과 추진 전략이 대상국가의 경제적 거래와 소득창출 활동을 압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자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정책변화를 강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성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소득변화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⁹⁾

〈표 1〉 대북제재 이후 주요 지역과 물품의 가격 추이

(단위: 조선원)

시기	지역	백미(1kg)	옥수수(1kg)	가솔린(1L)	경유(1L)	중국원 환율(1원)
2009년 12월	평양/함경북도	35	15	-	-	5
2011년 3월	평양	1610	800	3300	-	405
2013년 12월	양강도	4000	1000	-	-	1400
2014년 7월	함경북도	5500	2500	-	-	1210
2015년 12월 3일	함경북도	3700	1000	-	-	1350
2016년 2월 2일	함경북도	4100	900	-	-	1220
2016년 3월 12일	함경북도	4000	700	7500	4500	1280
2016년 3월 16일	함경북도	4500	1000	9000	7000	1270
2016년 3월 25일	함경북도	4300	950	9000	7000	1280
2016년 4월 11일	함경북도	4200	650	9000	7000	1280
2016년 4월 14일	양강도	4300	850	9700	6800	1320
2016년 4월 18일	청진시	4600	800	9200	7000	1300
2016년 4월 말	평안남도	4800	1050	7000	3000	1320
2016년 5월 중순	함경북도	5000	850	8500	4000	1245

자료: 『RFA』, 「대북제재, 당장 주민에 영향 미치」, 2016. 5. 28 기사에 인용된 ASIAPRESS 그림을 재구성함.

29)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소득 변화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표 2〉 북한 장마당 가격 동향

관찰 기간	1US달러 환율(북한원)			쌀 가격(1kg 당, 북한원)		
	평양	신의주	해산	평양	신의주	해산
16.7.2 ~ 7.8	8,325 (▼ 75)	8,310 (▼ 107)	8,320 (▼ 195)	5,100 (▲ 150)	5,169 (▲ 269)	5,500 (▲ 650)
16.6.7 ~ 6.13	8,400 (▲ 380)	8,417 (▲ 332)	8,515 (▲ 505)	4,950 (▼ 50)	4,900 (■ 0)	4,850 (▼ 150)
16.5.19 ~ 5.25	8,020 (▼ 80)	8,085 (▼ 165)	8,010 (▼ 90)	5,000 (▼ 120)	4,900 (▼ 150)	5,000 (▼ 50)
16.4.23 ~ 4.29	8,100 (▼ 28)	8,250 (▲ 100)	8,100 (▲ 35)	5,120 (▼ 30)	5,050 (▼ 40)	5,050 (▼ 30)
16.3.19 ~ 3.25	8,128 (▼ 62)	8,150 (▼ 110)	8,065 (▼ 145)	5,150 (▲ 131)	5,090 (▲ 90)	5,080 (▼ 70)
16.2.6 ~ 2.12	8,190 (■ 0)	8,260 (■ 0)	8,210 (▲ 20)	5,019 (■ 0)	5,000 (▲ 30)	5,150 (▲ 170)
16.1.7 ~ 1.13	8,190 (▼ 450)	8,260 (▼ 1500)	8,190 (▼ 610)	5,019 (▼ 381)	4,970 (▼ 430)	4,980 (▼ 520)

주: ()의 수치는 증감율을 의미함.

자료: Daily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접속일자: 2016. 7. 10).

유엔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북한 내부에 전해지면서 잠깐 동안이기는 하지만, 쌀과 휘발유 가격이 한동안 빠르게 증가했다고 알려지고 있다.³⁰⁾ 그러나 〈표 1〉에서 나타난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역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대체로 제재 이전과 이후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도 제재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7월에 들어와서 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환율이 감소한 사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제재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계절적 요인인지 아니면 제재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 『RFA』, 「중국 제재 동참 소식에 장마당 물가 상승」, 2016. 3. 24.

V. 향후 전망

일반적으로는 제재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경우, 북한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기존에 체결한 거래가 거의 소화되고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 오면, 거래처를 찾기가 보다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북한 측이 외국의 거래 상대방에게 과거보다는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가 감소하게 되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며, 북한경제의 침체와 시장경기의 위축이라는 현상으로 표출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건적인 요소는 제재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대북제재의 지속성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대북제재처럼 다자적 제재를 추진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긴밀하고 강력한 국제연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제재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비용은 일차적으로 대상국에 부과되는 것이지만, 제재 대상국과 제재국 사이의 경제관계에 따라서는 제재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¹⁾ 또한 북·중 접경지역은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수익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동북 3성지역의 하락세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중국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부차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³²⁾ 최근에는 이란이나 쿠바의 사례를 기초로 제재의 장기화가 일반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인도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제재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1) 최근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Oxenstierna, Susanne and Per Olsson,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Impact and Prospects of Success," FOI, Sep. 2015; Acoleyen, Michiel Van, "Assessing Sanctions and Their Impact on Trade: An Application to the European-Russian Case," Master of Economics KU Leuven, 2015.

32) Bossuyt(2000).

참고문헌

- 『국민일보』, 「김정은, 유엔 제재 대비 전쟁예비물자 비축 지시」, 2016. 6. 24.
- 『문화일보』, 「북 위안화 위폐 대량 제조, 부글부글 끓는 中」, 2016. 6. 28.
- 『미국의 소리』, 「WFP, 북한 양강도 어린이 영양실조율 최고」, 2016. 6. 28.
- 『미국의 소리』, 「대북제재 불구, 중국인 북한 관광 활성화」, 2016. 7. 9.
- 『연합뉴스』, 「대북제재 강화 후 밀수업자 더 활개, 화학·철강 수요 늘어」, 2016. 3. 31.
- 『연합뉴스』, 「中 중앙정부, 대북제재 공식화·석탄·항공유 등 금지품목 발표」, 2016. 4. 5.
- 『연합뉴스』, 「北 “제재 이후 상품값 내려…자립경제 갖겠다” 주장」, 2016. 4. 10.
- 『연합뉴스』, 「EU 제재 우리 변화시키지 못해, 자강력 강화할 것」, 2016. 5. 30.
- 『연합뉴스』, 「中, 핵·미사일 전용 가능 품목 40여 종 대북수출 추가 금지(종합)」, 2016. 6. 15.
- 임강택,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통일정세분석 2013-5』, 통일연구원, 2013.
-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15. 12. 16.
- 『통일신보』, 「제재 효과에 대한 생각」, 2016. 4. 6.
- 『Daily NK』, 「北, 제재에 동요 가능성 우려? “주민 철저감시” 지시」, 2016. 3. 8.
- 『Daily NK』, 「광산 주변 北 주민들, 대북제재 동요…“집 팔아 돈 마련”」, 2016. 4. 18.
- 『RFA』, 「주체에서 이름만 바뀐 국산화」, 2016. 2. 3.
- 『RFA』, 「북, 유엔 제재 내용 발설자 신고 지시」, 2016. 3. 18; 「북, 유엔 제재 발설한 중국인에 벌금 부과」, 2016. 3. 23.
- 『RFA』, 「중국 제재 동참 소식에 장마당 물가 상승」, 2016. 3. 24.
- 『RFA』, 「국제 제재로 대북지원 극심 제한」, 2016. 4. 13.
- 『RFA』, 「북, 외화벌이기관 위장거래로 제재 피해」, 2016. 4. 14.
- 『RFA』, 「북, 돈줄 막히자 장마당 외화에 눈독」, 2016. 4. 22.
- 『RFA』, 「북, 돈주 재산 노리고 ‘표적수사」, 2016. 5. 25.
- 『RFA』, 「국가명의 빌린 사기업 재산도 일부 압류」, 2016. 5. 26.
- 『RFA』, 「북 주민들, ‘200일 전투’ 노골적 불만」, 2016. 5. 30.
- Acoleyen, Michiel Van, “Assessing Sanctions and Their Impact on Trade: An Application to the European-Russian Case,” Master of Economics KU Leuven, 2015.

Bossuyt, Marc, “The Adverse Consequences of Economic Sanc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Fifty-second session, June. 2000.

Oxenstierna, Susanne and Per Olsson,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Impact and Prospects of Success,” FOI, Sep. 2015.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농업 및 식량수급 동향

김영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yhoon@krei.re.kr

I. 최근 북한 농업의 변화와 기대

2014년 들어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중요한 개혁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김정은의 ‘5·30 노작’을 토대로 한 개혁조치).¹⁾ 2015년부터 북한 내 협동농장과 기업소에서 자율경영제를 도입하며 협동농장의 작업분조를 폐지하고 가족 단위의 영농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장 노동력 1인당 농지 1,000평을 할당하여 영농하게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은 국가와 개인이 각각 40%와 60%로 나누는 방식을 취했다는 내용이었다.²⁾

이 조치와 여기에 포함된 개혁적 내용의 사실 여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이고 이 개혁 조치가 당초 예고된 바와 같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농업생산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면, 1978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농업부문에서 급속히 추진된 ‘생산책임제’ 개혁의 성과에 비견될 만큼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작년 북한 농업의 생산성과 올해의 식량수급 상황은 자못 흥미를 자아낸다. 비록 현 상황에서 북한이 급격한 개혁을 선택하기는 어렵고, 단기적으로 ‘개혁 부진과 자본 부족의 함정’에서 탈출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농정의 변화가 농업생산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조선신보』(2015. 1. 8); 『연합뉴스』(2015. 1. 9); 『통일뉴스』(2015. 1. 9); 『통일뉴스』(2015. 5. 6) 재인용.
2) 현대경제연구원(2014); 『조선비즈』(2015. 1. 27)

II. 2016년 북한의 농업 및 식량수급

1. 2015/16 양곡년도 식량작물의 생산

가. 재배면적

2015/16년도 북한의 총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1.9% 증가한 200만ha로 추정되고 있다. 이 추정치는 2015년의 주 작물(가을 수확작물) 재배면적에 대한 북한 농업성의 추정치와 2016년 봄작물 재배면적에 대한 FAO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도출된 것이다.³⁾

2015년 북한 당국자가 국제기구 조사단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FAO[2016. 4. 27]) 곡물, 감자, 대두의 재배면적은 총 126만ha이며, 이는 2014년 재배면적에서 0.6%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쌀 재배면적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쌀 재배면적은 46만 5천ha로 2014년보다 11% 축소되었다. 이는 2015년 봄철 가뭄과 이에 따른 관개용수 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개가 어려워진 논은 옥수수, 기장, 수수, 대두와 같은 대체작물로 전환되었다. 2015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2014년에 비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대두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5만 8천ha로 추정된다. 대두 재배면적의 2년 연속 증가는 콩을 간작작물로 활용해 작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려는 북한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북한농업에서 콩은 토양의 질소성분 함유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감자, 기장, 수수, 메밀을 포함한 기타 식량작물의 재배면적도 2014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2014/15년, 2015/16년)

	2015/16년			2014/15년			2014/15년 대비 2015/16년 증감률		
	면적	단수	생산량	면적	단수	생산량	면적	단수	생산량
	천ha	톤/ha	천톤	천ha	톤/ha	천톤	%	%	%
가을 주작물 소계	1,260.7	3.8	4,778.2	1,253.2	4.3	5,347.1	0.6	-11.2	-10.6
벼	465.2	4.2	1,945.8	525.0	5.0	2,626.4	-11.4	-16.4	-25.9

3) 북한 농업성이 제공한 면적에는 산림 소토지와 텃밭 등 비공식적 재배면적을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기존의 북한지역 적황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FAO 추정치에는 55만ha의 산림소토지와 2만5천ha의 텃밭이 포함되어 있다.

〈표 1〉의 계속

	2015/16년			2014/15년			2014/15년 대비 2015/16년 증감률		
	면적	단수	생산량	면적	단수	생산량	면적	단수	생산량
	천ha	톤/ha	천톤	천ha	톤/ha	천톤	%	%	%
옥수수	559.8	4.1	2,287.8	531.8	4.4	2,349.1	5.3	-7.5	-2.6
기타 곡물	45.0	3.5	156.3	25.6	2.1	53.7	75.6	65.7	190.9
감자	32.3	5.2	168.3	28.2	5.6	157.5	14.5	-6.7	6.8
대두	158.4	1.4	222.0	142.5	1.1	160.4	11.1	23.4	37.2
겨울 봄작물 소계	173.0	2.1	363.0	144.0	2.1	301.0	20.1	0.4	20.6
밀과 보리	47.0	1.4	66.0	37.8	1.0	36.1	24.4	47.1	82.9
감자	126.0	2.4	279.0	126.7	1.8	233.0	-0.5	28.2	27.5
기타 소계	1,433.7	3.6	5,141.2	1,397.2	4.0	5,648.1	2.6	-11.3	-9.0
경사지	550.0	0.4	203.0	550.0	0.4	220.0	0.0	-7.7	-7.7
개인텃밭	25.0	3.0	75.0	25.0	3.0	75.0	0.0	0.0	0.0
합 계	2,008.7	2.7	5,419.2	1,972.2	3.0	5,943.1	1.9	-10.5	-8.8

주: 함경남북도와 양강도에서 재배된 밀과 보리가 일부 포함됨.

자료: FAO(2016. 4. 27).

나. 단수와 생산량

2015/16년 식량작물 생산량은 총 542만톤으로서⁴⁾ 20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양은 전년에 비해서는 9% 감소, 최근 5년의 평균에 비해서는 3%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보면, 2011/12년에는 전년 대비 4.4%, 2012/13년에는 8.7%, 2013/14년에는 3.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4/15년에는 정체된 후 올해는 감소했다.

가을 주 작물 생산량은 2014년 대비 10.6% 감소한 478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적은 강수량과 관개용수 부족으로 쌀 생산량이 26% 감소한 데 주된 원인이 있다. 쌀 대체작물로 옥수수 재배면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생산량 역시 봄·초여름 가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229만톤으로 추정되었다.

쌀과 옥수수와 달리 기장, 수수, 대두 등 가뭄에 잘 견디는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대로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했다. 대두 생산량은 2014/15년 대비 37% 증가한 22만톤으로 추정되었으며, 기타 곡물은 2014/15년 크게 증가하여 15만 6천톤이 생산되었다. 2015년 가을감자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7% 증가한 16만 8천톤으로 보고되었다. 비록 단수는 감소했으나 재배면적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곡물은 도정되기 전 조곡 기준이며, 대두와 감자는 곡물상당치 기준임에 유의해야 한다.

〈표 2〉 2015년 북한의 작물·지역별 가을 수확 시즌의 경작면적, 단수, 생산량

지역	벼			옥수수			가을감자			대두			기타 곡물			합계		
	면적	단수	생산	면적	단수	생산	면적	단수	생산	면적	단수	생산	면적	단수	생산	면적	단수	생산
	천 ha	톤/ha	천톤	천 ha	톤/ha	천톤	천 ha	톤/ha	천톤	천 ha	톤/ha	천톤	천 ha	톤/ha	천톤	%	%	%
평양	13.0	5.7	74.5	7.2	6.3	45.5	0.1	3.5	0.3	1.8	1.3	2.4	1.5	0.7	1.1	23.6	5.3	123.8
평안남도	74.1	5.5	409.9	65.8	4.2	276.8	0.5	4.1	2.1	21.4	1.4	30.0	4.5	4.7	21.1	166.2	4.5	740.0
평안북도	97.0	4.9	477.2	82.8	4.5	375.8	1.1	4.2	4.6	20.4	1.4	28.0	4.9	3.1	15.4	206.2	4.4	901.0
자강도	5.9	4.7	27.8	34.5	4.0	138.9	1.9	3.3	6.2	8.7	1.6	13.8	0.8	2.4	1.8	51.7	3.6	188.5
황해남도	121.9	3.1	375.6	104.4	3.6	380.3	0.3	4.4	1.1	22.3	1.7	38.1	8.5	2.9	24.3	257.4	3.2	819.5
황해북도	27.2	2.9	78.1	94.7	3.1	290.7	0.4	4.3	1.9	26.1	1.4	37.4	14.9	5.0	74.7	163.3	3.0	482.7
강원도	21.8	3.6	78.3	38.5	4.2	161.4	0.7	3.6	2.4	15.5	1.4	21.8	1.5	0.9	1.4	78.1	3.4	265.2
함경남도	54.5	4.2	229.2	49.9	5.4	269.6	6.2	4.3	27.0	14.8	1.3	19.3	3.4	3.2	10.9	128.8	4.3	556.0
함경북도	26.0	4.1	106.4	63.1	4.4	277.5	3.1	3.8	11.9	16.8	1.2	20.0	2.4	1.0	2.5	111.5	3.8	418.3
양강도	1.3	3.0	3.9	10.1	2.6	26.4	17.9	6.2	110.4	6.3	0.5	3.3	1.7	1.0	1.7	37.3	3.9	145.6
남포시	22.6	3.8	85.1	8.8	5.1	44.9	0.1	4.5	0.4	4.2	1.4	5.8	0.8	1.6	1.4	36.6	3.8	137.6
합계	465.2	4.2	1,945.8	559.8	4.1	2,287.8	32.3	5.2	168.3	158.4	1.4	220.0	45.0	3.5	156.3	1,260.7	3.8	4,778.2

주: 감자의 경우 곡물상당치 환산을 위하여 0.25의 환산계수를 적용함.

자료: 북한 농업성 제공자료와 FAO(2016. 4. 27)에서 재인용함.

쌀과 옥수수 등 주 작목과는 달리 봄감자, 밀, 보리 등 올해 봄작물의 생산량은 급격히 상승해 36만 3천톤으로 전망되고 있다.⁵⁾ 봄감자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27% 증가해 29만 7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밀과 보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6만 6천톤으로 전망된다.⁶⁾ 봄작물 생산의 대폭 증가는 겨울철과 봄철의 강우로 비교적 풍부해진 관개용수 공급 때문으로 보인다.

2. 식량작물 생산에 영향을 끼친 요인

가. 기상

농업생산 기반, 특히 관개시설 정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생산

5) 북한 농업성이 제공한 공식 자료이다.

6) FAO는 북한 농업성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사지와 텃밭에서의 생산량을 각각 20만 3천톤, 7만 5천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반은 일반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림의 황폐화로 사소한 기상 변동에도 농업생산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농업생산에서 기상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합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는 2015년 4월 중순부터 6월까지의(주 작물 파종시기) 누적 강수량이 대부분의 북한지역에서 평년 수준보다 낮았음을 밝히고 있다. 2014년 7월 이래 북한지역은 전반적으로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어 관개용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2015년 봄과 여름 가뭄으로 인해 주 작물의 파종과 이식기에 영향을 끼쳐 농작업이 늦어졌으며 재배면적도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작물 생육기에도 영향을 끼쳐 단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대개 한반도에서 7~8월은 연간 총 강수량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2015년 여름은 전반적으로 건조하여 농업용수 부족을 심화시켰는데, 특히 북한의 남부지방에 가뭄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식물성장에 대한 2015년 봄과 초여름 가뭄의 영향은 위성영상으로 도출된 식물생장지수(Vegetation Index)로 확인할 수 있다(FAO[2016. 4. 27], p.5 참조). 식물생장지수의 이상치(anomaly)는 6~7월 황해남·북도, 평양, 평안남·북도 일부를 포함하는 주요 쌀 생산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8월이 되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온다.

작물 재배기간 동안의 관개용수 부족은 2015년 쌀, 옥수수, 감자 등 중요 식량작물 생산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다. 다행히 기장, 수수, 대두 생산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가뭄에 잘 견디는 이들 작물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10~11월의 강우는 저수지 수량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2012년과 2013년 수위의 60% 수준으로 회복시켰을 뿐이다(표 3 참조). 그러나 2014년에 비해 늘어난 관개용수 공급은 2015/16년의 겨울·봄밀과 보리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표 3〉 2012~15년 북한의 저수지 수량

(단위: 10,000m³)

연도	목표량	실제량
2012	357	375
2013	357	364
2014	240	100
2015	245	233

자료: FAO(2016. 4. 27).

나. 투입자재의 공급

FAO/WFP가 북한농업에 대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 공동조사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s: CFSAM)’들에는 농기계와 연료 등 농작업에 필요한 동력의 제약과 가용성에 대해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2013년 CFSAM 보고서에는 전체 농경지의 60%에서만 주요 농작업이 기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여전히 축력을 이용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올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북한농장에서 유류(경유와 휘발유) 사용은 2014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만큼 연료 부족은 적기 농작업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농업생산성을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개용수의 공급 수준도 2015년 농업생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2014년 7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5년 3월 이후 발생한 가뭄 때문에 북한 전역의 저수지 수위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 북한 농업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주요 작물 재배기간 동안 농업용수의 가용성은 2014년 수준보다 증가했으나, 2012년과 2013년 수준에 비해서는 60% 정도에 불과했다(표 3 참조).⁷⁾

〈표 4〉 농기계 연료공급(2013~15년)

(단위: 톤)

연료	2013(A)	2014(B)	2015(C)	(C-B)/B %	(C-A)/A %
경유	64,425	55,171	53,700	-3	-16.6
휘발유	7,000	5,500	7,000	27	0.0
계	71,425	60,671	60,700	0.0	-15.0

자료: FAO(2016. 4. 27).

〈표 5〉 비료공급(2009~15년)

(단위: 톤)

연도	질소비료	인비료	칼리비료	계
2009	434,807	2,776	8,400	445,983
2010	475,100	11,402	12,314	498,816
2011	735,943	5,545	4,477	745,965
2012	686,517	21,460	18,650	726,627
2013	686,015	18,396	2,788	707,199
2014	727,993	18,977	2,700	749,670
2015	612,194	7,817	2,595	622,606

자료: FAO(2016. 4. 27).

7) 반면 2016년도는 6월 말 현재까지 기상조건이 비교적 양호해 봄작물의 생산과 주 작물의 파종과 이식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농업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투입재는 화학비료이다. 따라서 북한의 농업 당국은 언제나 화학비료 확보에 농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질소·인산·칼륨 성분 화학비료의 총 공급량이 크게 감소해 약 62만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약 17% 감소한 양이며(표 5 참조), 한 해 정상 소요량의 41%에 불과한 양이다.

3. 2015/16년 식량수급과 배급

가. 식량수급

2015/16 양곡연도 북한의 식량수급 추정치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⁸⁾ 2015/16년 북한의 곡물생산은 전년 대비 5.5% 감소해 약 48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생산 감소는 주 작목인 쌀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동 기간 북한의 곡물 소요량은 약 550만톤이다. 이 소요량은 식용 438만톤, 사료용 12만톤, 종자용 24만톤, 손실분 75만톤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올해 북한의 곡물 부족량은 약 70만톤이며, 이 중 상업적 수입으로 30만톤을 도입할 수 있다면⁹⁾ 순 부족량은 약 4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연간 40만톤의 순 부족량은 201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이다.¹⁰⁾

<표 6> 2015/16년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단위: 천톤)

구분	쌀	옥수수	맥류	잡곡	서류	두류	계
공급량	1,284	2,516	66	156	515	264	4,801
소요량	1,705	2,654	182	165	515	275	5,495
부족량	421	138	116	9	0	11	694

자료: FAO(2016. 4. 27).

8) 쌀의 도정수율은 66%를 적용했다. 또한 여기에는 곡물뿐만 아니라 곡물상당치로 환산된 감자와 대두 양도 포함되어 있다. 감자의 환산율은 0.25, 대두의 환산율은 1.20이다.

9) 이는 북한 농경 당국자가 조사단 일원에게 전한 매년의 상업적 수입 규모인데,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ata/>, 접속일자: 2016. 7. 7)에 나타난 각국의 대북 식량 수출 규모를 합산해 북한의 식량 도입량을 산출해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10) 2010년대 이래 지금까지 최고 수준은 2011/12 양곡연도의 33만톤이다.

〈표 7〉 북한의 농식품 수입(2000~14년)

(단위: 백만달러)

연도	식량	과실류	채소류	식물성 유지류	연초류	기타 농식품류	합계
2000	125.1	13.0	16.2	2.1	0.6	73.2	230.1
2002	104.6	12.8	23.0	2.9	1.0	93.9	238.2
2004	146.1	29.5	30.3	5.7	2.2	182.1	395.9
2006	69.3	39.4	33.1	4.9	1.6	128.2	276.5
2008	120.1	54.3	52.5	4.9	5.6	151.2	388.5
2010	126.4	40.1	42.7	7.6	9.1	145.4	371.3
2012	257.5	80.5	66.3	16.6	23.1	202.2	646.2
2013	168.8	88.2	66.7	28.0	29.7	227.5	608.9
2014	109.7	113.3	66.9	42.8	28.5	207.3	568.5
2012~14 평균	178.7	94.0	66.7	29.2	27.1	212.3	607.9

자료: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ata/>), 접속일자: 2016. 7. 7).

FAO(2016)에서 2015/16년도 북한의 식량 소요량을 추정하기 위해 도입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구:** 2013년 12월 말 북한의 총인구는 70만명의 특수단체 인원(Special Entity Personnel)¹¹⁾을 포함하여 2,488만명으로 공식 추정됨.
 - ㉠ 이에 2008~13년 연간 평균 인구성장률의 공식 추정치인 0.55%를 적용하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인구는 2,509만명으로 산출됨.
- ② **식량 소비:** 곡물, 감자, 대두를 포함한 기본적인 식량 소요량은 연간 1인당 175kg임. 이는 지난 FAO/GIEWS 곡물수급표로부터 최근 5년 평균 주요 식품 소요량¹²⁾을 기반으로 도출되었음. 개별 품목의 소요량은 당해 연도의 가용성을 고려해 조절한 것임.
 - ㉡ 품목별 식품 소요량은 곡물 151.3kg(쌀 58kg, 옥수수 81.8kg, 밀과 보리 6.2kg, 기타 곡물 5.3kg), 감자 13.4kg, 대두 10kg임. 2014년 대비 2015년 작물 생산량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 쌀 소비를 기타 곡물로 대체하여 예상식단에 포함시킴.
 - ㉢ 곡물, 감자, 대두는 북한주민의 주요 영양공급원이며, 1인당 소요량 추정치 175kg은 1일 1인당 약 1,640kcal에 해당함.

11) 이 인원은 보통 군인으로 예상한다.

12) 예외적으로 매우 좋거나 안 좋은 연도를 제외한 평년 몇 해의 1인당 평균 식품 소비량을 추정한 결과이다.

- ㉞ 추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는 어류, 가금류, 육류, 고구마, 채소, 과일 등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가정했음.
- ③ **공급 목표량:** 북한 당국의 공급 목표량은 연간 1인당 207kg으로서, 이 수준은 최적의 소비량에 해당함.
 - ㉟ 이 목표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2015/16년 곡물 수입은 110만톤이 되어야 함.
- ④ **사료공급:** 2015년 가축 사육 두수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전년도 수준에서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음.
 - ㊱ 2015/16년 사료 소요량은 2014년 추정치 12만톤(옥수수 10만톤과 감자 2만톤)으로 가정함.
- ⑤ **종자공급:** 종자 소요량은 23만 8천톤으로 추정했음. 이는 북한의 파종률(seed rates)과 지난 3년의 재배면적을 기초로 함.
- ⑥ **수확 후 손실:** 2014년 쌀, 옥수수, 밀, 보리의 수확 후 손실(Post-Harvest Losses: PHL)에 대한 연구가 FAO/UNDP의 지원을 받아 평양농업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동으로 수행되었음.
 - ㊲ 이 연구 결과로 쌀, 옥수수, 밀·보리·기타 곡물에 대한 수확 후 손실률이 각각 15.56%, 17%, 16.35%로 추정되었음.
 - ㊳ 단, 감자와 대두에 대한 수확 후 손실 조사가 생략되어 과거 보고서에 사용된 15%와 5%를 각각 적용했음.
- ⑦ **도정률:** 쌀의 도정률은 66%¹³⁾로 정했음. 이 수치는 아시아 다른 국가와 유사함. 다른 곡물은 도정된 형태로 변환하지 않음.
- ⑧ **대두의 포함:** 북한주민에게 대두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므로 식량수급표에 포함했음.
 - ㊴ 평균적으로 대두의 영양성분(칼로리)이 다른 곡물보다 약 20% 높음. 따라서 1.2의 곡물상당치로 변환함.
- ⑨ **재고:** 재고에 관한 정보가 없어 모든 작물에 대한 재고량은 이전 수준과 같다고 가정함.¹⁴⁾

¹³⁾ 2010년 CFSAM 보고서는 65%의 표준 도정률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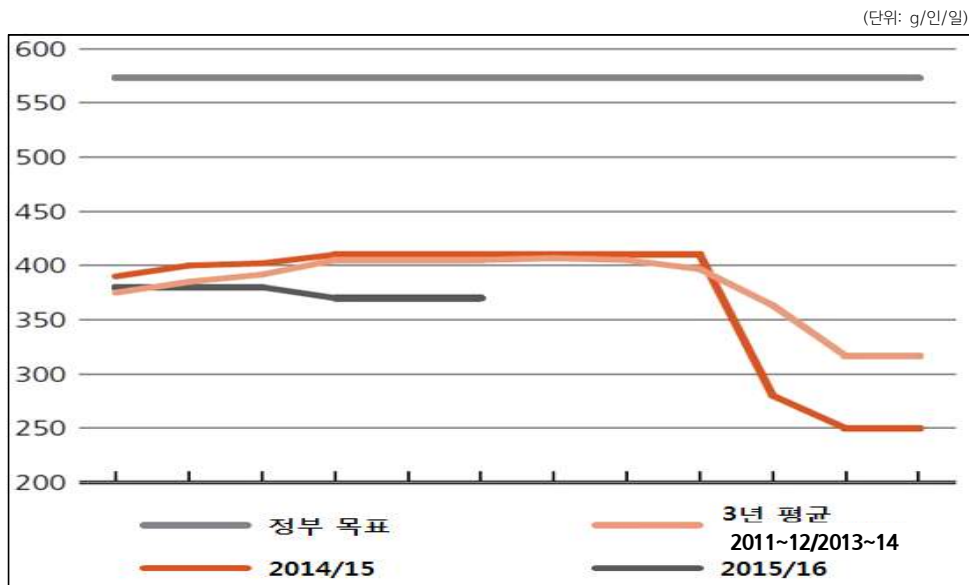
¹⁴⁾ 2010년 CFSAM 보고서는 재고량을 국가 전체의 식량 소요량에서 2주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계산하였다.

가. 주민에 대한 식량배급

북한의 국가식량배급체계(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¹⁵⁾는 총인구의 70%에 해당하는 1,800만명의 주민에 대한 주요 식량공급 기반이다. 그러나 배급은 일정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식량의 절대적인 부족이나 국가 수매 식량의 시장 유출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근년 월평균 배급량의 불규칙한 패턴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국가 배급량 목표는 1인 1일 평균 573g으로 책정해 놓고 있으나 장기간의 식량 부족 때문에 실제 배급량은 목표량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2015년 1~6월 기간 평균 배급량은 1인당 하루 410g이었는데 7월부터 배급량이 급격하게 감소해 8~9월에는 250g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10월에는 주 작목 수확기의 시작과 함께 다시 380g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들어서는 평균 370g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 낮아진 것일 뿐 아니라, 최근 3년 평균 배급량에 비해서도 낮아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된다.

[그림 1] 북한의 공적 식량배급 실태



자료: FAO(2016).

15) 식량분배에 대한 정부관리시스템으로써 공공분배시스템은 1946년에 수립되었다. 이 중앙통제시스템은 국가 전체 생산량 추정치와 식량 수입 계획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식량조달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곡물, 식용유, 콩의 배급량을 결정하고 전체 인구에 할당한다. 공공분배시스템의 두 소비 그룹은 협동농장 농장원들과 식량배급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두 그룹의 구성비는 3:7이다.

III. 요약 및 개략적 전망

2012년과 2014년의 농업개혁 조치의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5년 북한의 농업생산은 크게 감소했다. 2015/16년 북한의 식량 총 생산량은 전년대보다 5.5% 감소한 480만톤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2010/11년 이래 처음으로 생산량 감소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가뭄과 관개용수 부족에 있다. 주식인 쌀 생산량은 26%가량 하락했으며 옥수수 생산량도 감소했다. 대두와 기타 곡물의 생산은 증가했지만 쌀과 옥수수의 생산량 감소를 부분적으로만 상쇄했을 뿐이다.

FAO는 2015/16 양곡연도의 총 식량 소요량을 정곡 기준 549만톤으로 추정했다. 이는 69만 4천여 톤의 곡물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수입 목표가 30만톤이고, 순조롭게 수입할 수 있다면 순부족량은 39만톤이 될 것이다. 올해의 식량 부족 규모는 작년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것이며 2011/12년 이래로 가장 크다. 식량생산과 공급량 감소는 배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반기의 국가식량배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식량 부족 상황에서 유엔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북 경제제재 여파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 농업생산과 식량공급은 기본적으로 민생과 인도적 사안에 해당되므로 이 부문에 대한 경제제재의 직접적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제재의 간접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비록 미미한 수준이겠지만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위축될 개연성이 있다. 또한 전반적인 수출 감퇴로 외화가 부족해지고 해외 거래와 운송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그 간접적 영향으로 비료와 식량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 북한의 식량수급 여건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2016년 6월까지의 식량의 배급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시장의 곡물가격도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2015/16년도 국내 식량 생산량 감소와 해외 도입 여건의 악화는 하반기 식량공급 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자구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2015. 1. 9.

『조선비즈』, 2015. 1. 27.

『조선신보』, 2015. 1. 8.

『통일뉴스』, 「김정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
2015. 1. 9.

『통일뉴스』, 2015. 5. 6.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현안과 과제』, 제14-36호,
2014. 9. 24.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s(CFSAM) DPRK”, 각년도 보고서
FAO, “GIEWS Updat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5/16(November/October),” 2016. 4. 27.

〈웹사이트〉

FAO Statistics(<http://faostat.fao.org/>).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ata/>).



경제 자료

201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남진욱

201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남진욱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namjw@kedi.re.kr

본 자료에서는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 평가를 위한 제반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물론 북한은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외부에 발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외부기관의 추정 통계는 그 출처에 따라 성격이 상이하며, 동일 항목에 대한 통계 수치 역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자료에서는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 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외부기관의 추정통계들 가운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대표적인 통계 항목들만을 선정하여, 가능한 한 이들 항목의 통계 수치들을 복수의 출처로부터 서로 대비시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통계항목 및 그것의 출처들은 다음과 같다.

1. GDP 및 성장률: 한국은행 및 UN 통계국
2. 무역: 통일부, 한국무역협회(KITA) 및 중국 해관
3. 환율 및 시장가격: 데일리NK
4. 식량: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및 통계청
5. 북한의 중국 방문자 수 추이: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통계들의 구체적인 특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되는 통계표에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다.

I. GDP 및 성장률

〈표 1-1〉 GDP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은행 (원화 기준)	GDP (10억원)	20,223	21,277	21,887	23,707	24,735	24,358	24,758	27,241	28,484	29,880	32,228	33,211	33,614	33,949
	1인당 GDP (만원)	88	92	94	101	105	103	104	114	118	124	133	136	137	138
한국은행 (달러 기준)	GDP (1억달러)	157	170	184	207	241	255	266	247	223	258	291	295	307	322
	1인당 GDP (달러)	684	737	790	885	1,025	1,075	1,117	1,032	927	1,068	1,196	1,207	1,251	1,307
UN (달러 기준)	GDP (1억달러)	110	109	111	112	130	138	144	133	120	140	157	159	166	174
	1인당 GDP (달러)	476	468	471	473	548	575	597	551	494	570	638	643	666	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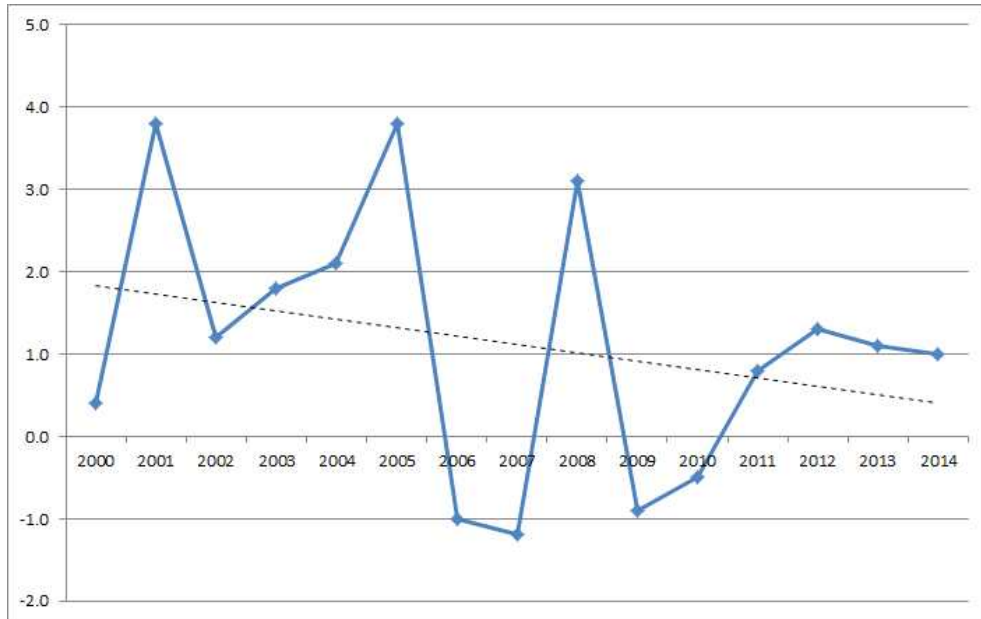
주: 한국은행 자료는 본래 한국 원화 기준으로만 되어있으나, 편의상 이를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전환한 수치 역시 제공함.
자료: 한국은행(<http://ecos.bok.or.kr/>), UN(<http://unstats.un.org/unsd/nationalaccount/>), 검색일: 2016. 7. 7.

〈표 1-2〉 GDP 성장률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합		3.8	1.2	1.8	2.1	3.8	-1.0	-1.2	3.1	-0.9	-0.5	0.8	1.3	1.1	1.0
부 문	농림·어업	7.3	4.2	1.7	4.1	5.3	-2.6	-9.1	8.0	-1.0	-2.1	5.3	3.9	1.9	1.2
	광공업	3.7	-2.2	2.9	1.0	4.3	0.9	1.0	2.5	-2.3	-0.3	-1.4	1.3	1.5	1.1
	전기·가스·수도업	3.9	-4.0	4.3	4.7	4.4	2.7	4.8	6.0	0.0	-0.8	-4.7	1.6	2.3	-2.8
	건설업	7.1	10.5	2.1	0.4	6.1	-11.5	-1.5	1.1	0.8	0.3	3.9	-1.6	-1.0	1.4
	서비스업	-0.3	-0.2	0.6	1.3	1.3	1.1	1.7	0.7	0.1	0.2	0.3	0.1	0.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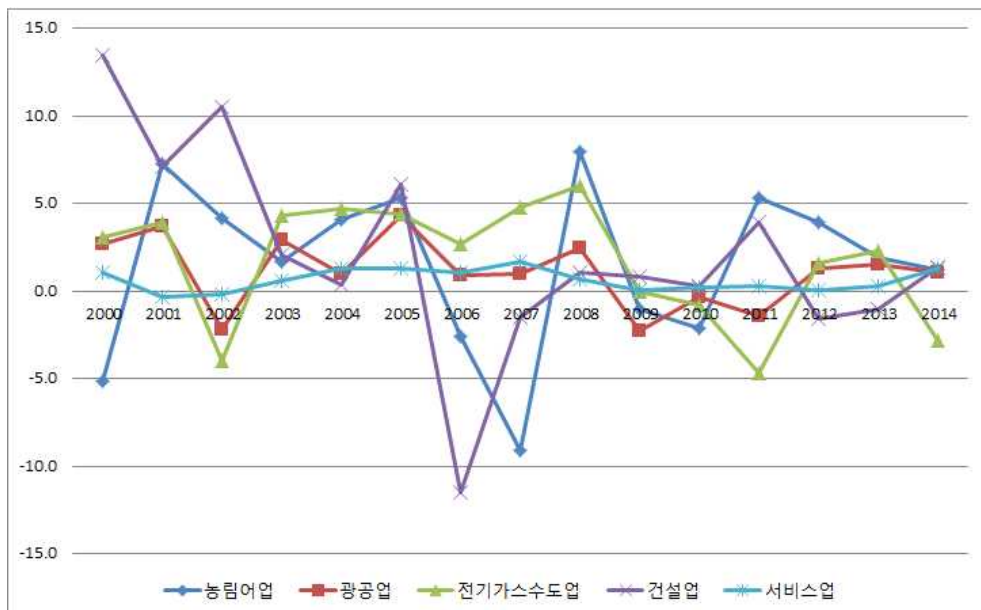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검색일: 2016. 7. 7.

[그림 1-1] GDP 성장률 추이



주: 점선은 2000~14년 북한의 GDP 성장률 추세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검색일: 2016. 7. 7.

[그림 1-2] 산업별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검색일: 2016. 7. 7.

II. 무역

1. 남북교역

〈표 2-1〉 남북교역

(단위: 백만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2월
반입	176 (15.6)	272 (54.2)	289 (6.5)	258 (-10.8)	340 (31.9)	520 (52.7)	765 (47.3)	932 (21.8)	934 (0.2)	1,044 (11.7)	914 (-12.5)	1,074 (17.5)	615 (-42.7)	1,206 (96.1)	1,453 (20.4)	186 (-16.5)
반출	227 (-16.9)	370 (63.2)	435 (17.5)	439 (0.9)	715 (63.0)	830 (16.0)	1,033 (24.4)	888 (-14.0)	745 (-16.1)	868 (16.6)	800 (-7.8)	897 (12.1)	521 (-42.0)	1,136 (118.3)	1,262 (11.1)	146 (-29.5)
계	403 (-5.2)	642 (59.3)	724 (12.9)	697 (-3.8)	1,056 (51.5)	1,350 (27.8)	1,798 (33.2)	1,820 (1.2)	1,679 (-7.8)	1,912 (13.9)	1,714 (-10.4)	1,971 (15.0)	1,136 (-42.4)	2,343 (106.2)	2,715 (15.9)	332 (-22.8)

주: 1)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간 내부거래로 보고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수입·수출이라는 용어 대신 반입·반출이라는 용어를 씀.
2)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3) 통일부는 매월 발표하던 「월간남북교류동향」을 2016년 2월 이후 내놓지 않고 있음.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월호.

〈표 2-2〉 형태별 남북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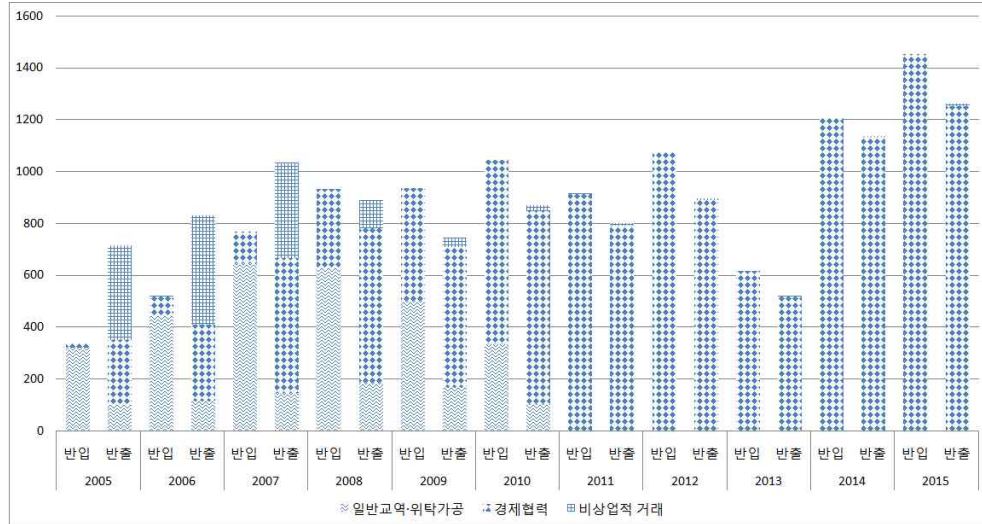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구분	남북교역 유형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2월
반입	일반교역위탁가공	320	441	645	624	499	334	4	1	1	0	0	0
	경제협력	20	77	120	308	435	710	909	1,073	615	1,206	1,452	186
	비상업적 거래	-	1	-	-	-	-	1	-	-	0	0	-
	반입 합계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1,206	1,452	186
반출	일반교역위탁가공	100	116	146	184	167	101	-	-	-	-	-	-
	경제협력	250	294	520	596	541	744	789	888	518	1,132	1,252	146
	비상업적 거래	366	421	367	108	37	23	11	9	3	4	10	-
	반출 합계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1,136	1,262	146

주: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및 기타경제협력을 의미함.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월호.

[그림 2-1] 연도별 남북교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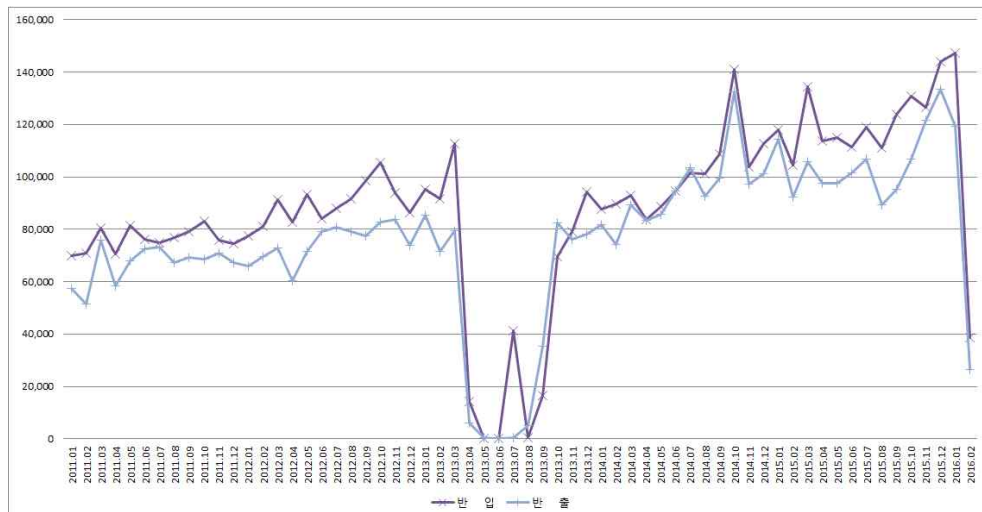


주: 경제협력(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 경공업협력 포함), 비상업적 거래(정부·민간 지원/사회문화협력/경수로 사업 포함)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월호.

[그림 2-2] 월별 남북교역 추이

(단위: 천달러)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월호.

2. 북중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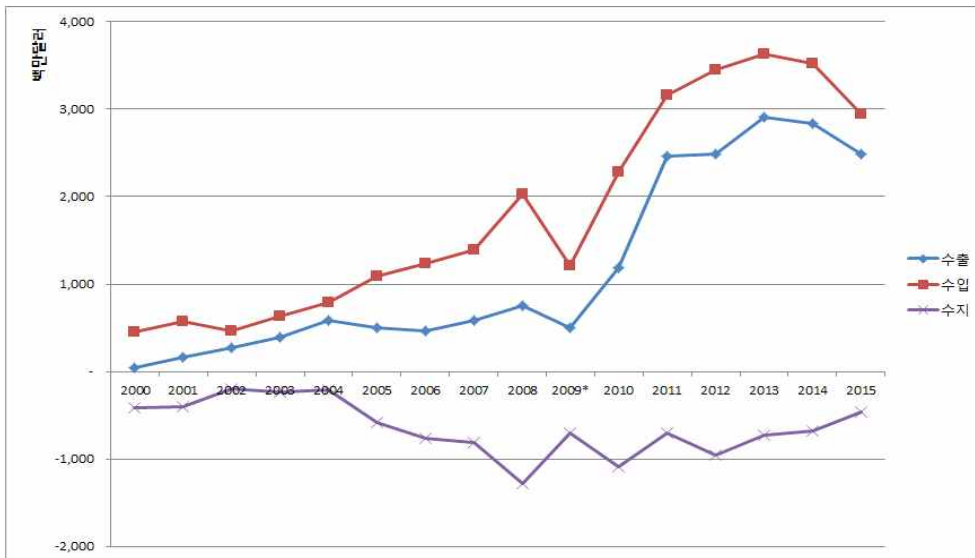
〈표 2-3〉 북중무역 - 연간

(단위: 백만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월
수출	167 (348.2)	271 (62.4)	396 (46.0)	582 (47.2)	497 (-14.7)	468 (-5.8)	582 (24.3)	754 (29.7)	501 (-33.6)	1,188 (137.3)	2,464 (107.4)	2,485 (0.8)	2,912 (17.2)	2,842 (-2.4)	2,484 (-12.6)	1,116 (-4.7)
수입	571 (26.6)	467 (-18.1)	628 (34.4)	795 (26.5)	1,085 (36.5)	1,232 (13.6)	1,393 (13.0)	2,033 (46.0)	1,210 (-40.5)	2,278 (88.3)	3,165 (38.9)	3,446 (8.9)	3,633 (5.4)	3,523 (-3.0)	2,946 (-16.4)	1,404 (5.3)
계	738 (51.1)	738 (0.1)	1,024 (38.7)	1,377 (34.5)	1,581 (14.9)	1,700 (7.5)	1,974 (16.1)	2,787 (41.2)	1,710 (-38.6)	3,466 (102.6)	5,629 (62.4)	5,931 (5.4)	6,545 (10.4)	6,364 (-2.8)	5,430 (-14.7)	2,520 (0.6)

주: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그림 2-3] 연도별 북중무역 추이



주: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표 2-4〉 북중무역 - 월간

(단위: 백만달러, %)

	수출액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
2014.01	222.5 (17.8)	323.3 (14.8)
2014.02	155.9 (-8.4)	98.8 (-21.2)
2014.03	226.4 (-1.2)	245.3 (-21.9)
2014.04	225.9 (-10.8)	301.1 (4.2)
2014.05	233.6 (-15.4)	302.5 (-6.9)
2014.06	246.2 (0.1)	311.1 (21.1)
2014.07	267.8 (-6.3)	322.9 (15.6)
2014.08	258.7 (28.0)	313.2 (-16.6)
2014.09	300.2 (25.0)	333.2 (-5.2)
2014.10	252.2 (-2.7)	332.3 (6.5)
2014.11	208.1 (-23.5)	278.3 (-17.4)
2014.12	243.9 (-15.5)	360.5 (-6.6)
2015.01	184.8 (-16.9)	208.2 (-35.6)
2015.02	158.0 (1.3)	151.1 (52.9)
2015.03	202.7 (-10.5)	204.0 (-16.8)
2015.04	207.8 (-8.0)	272.2 (-9.6)
2015.05	201.0 (-14.0)	254.4 (-15.9)
2015.06	217.4 (-11.7)	243.0 (-21.9)
2015.07	239.3 (-10.6)	266.2 (-17.6)
2015.08	245.4 (-5.2)	238.0 (-24.0)
2015.09	245.4 (-18.3)	270.7 (-18.8)
2015.10	186.7 (-26.0)	247.0 (-25.7)
2015.11	190.9 (-8.3)	275.0 (-1.2)
2015.12	204.6 (-16.1)	316.8 (-12.1)
2016.01	177.5 (-4.0)	211.0 (1.3)
2016.02	161.9 (2.5)	161.5 (6.9)
2016.03	229.2 (13.1)	235.8 (15.6)
2016.04	161.4 (-22.3)	268.0 (-1.5)
2016.05	175.7 (-12.6)	239.4 (-5.9)
2016.06	210.5 (-3.2)	288.2 (18.6)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그림 2-4] 월간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주: 점선은 수출액과 수입액의 12개월 이동평균임.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표 2-5> 북한의 대중국 무역 적자 추이 - 월간

(단위: 백만달러, %)

	적자액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	6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증가율)	12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증가율)
2014.01	100.8 (8.7)	100.0 (21.7)	60.8 (1.1)
2014.02	-57.1 (27.6)	61.6 (-38.4)	59.8 (-1.7)
2014.03	18.9 (-77.7)	46.3 (-24.9)	54.3 (-9.2)
2014.04	75.2 (111.7)	50.0 (8.1)	57.6 (6.1)
2014.05	68.9 (40.9)	50.7 (1.3)	59.2 (2.9)
2014.06	64.9 (489.4)	45.3 (-10.7)	63.7 (7.6)
2014.07	55.1 (-981.2)	37.7 (-16.8)	68.8 (8.0)
2014.08	54.5 (-68.6)	56.3 (49.4)	58.9 (-14.4)
2014.09	32.9 (-70.4)	58.6 (4.1)	52.4 (-11.1)
2014.10	80.1 (52.2)	59.4 (1.4)	54.7 (4.4)
2014.11	70.2 (8.2)	59.6 (0.4)	55.2 (0.8)
2014.12	116.6 (19.6)	68.2 (14.5)	56.8 (2.9)
2015.01	23.3 (-76.8)	62.9 (-7.8)	50.3 (-11.4)
2015.02	-6.9 (-87.8)	52.7 (-16.3)	54.5 (8.3)
2015.03	1.3 (-31.1)	47.4 (-10.0)	53.0 (-2.7)
2015.04	64.4 (-14.4)	44.8 (-5.5)	52.1 (-1.7)
2015.05	53.4 (-22.4)	42.0 (-6.2)	50.8 (-2.5)
2015.06	25.6 (-60.5)	26.9 (-36.1)	47.6 (-6.4)

〈표 2-5〉의 계속

	적자액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	6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증가율)	12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증가율)
2015.07	26.9 (-51.2)	27.5 (2.2)	45.2 (-4.9)
2015.08	-7.4 (-113.5)	27.4 (-0.3)	40.0 (-11.4)
2015.09	25.3 (-23.1)	31.4 (14.6)	39.4 (-1.6)
2015.10	60.3 (-24.8)	30.7 (-2.2)	37.8 (-4.2)
2015.11	84.1 (19.8)	35.8 (16.6)	38.9 (3.1)
2015.12	112.2 (-3.8)	50.2 (40.3)	38.5 (-1.0)
2016.01	33.5 (43.3)	51.3 (2.2)	39.4 (2.2)
2016.02	-0.4 (-94.0)	52.5 (2.3)	39.9 (1.4)
2016.03	6.6 (405.3)	49.4 (-5.9)	40.4 (1.1)
2016.04	106.6 (65.6)	57.1 (15.7)	43.9 (8.7)
2016.05	63.7 (19.2)	53.7 (-6.0)	44.8 (2.0)
2016.06	77.7 (203.0)	47.9 (-10.7)	49.1 (9.7)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그림 2-5]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표 2-6〉 북한의 대중국 수출 상위 5개 품목(HS 4단위 기준)

(단위: 백만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석탄	162.6	석탄	201.3	석탄	208.6	석탄	390.4	석탄	1,140.9
철광	80.0	철광	172.3	철광	48.5	철광	194.3	철광	324.5
아연광	47.7	연체동물	36.1	선철	20.6	선철	64.4	남성재킷	111.4
연체동물	25.8	선철	35.0	연체동물	19.3	연체동물	53.2	선철	105.8
선철	22.2	페로얼로이	31.0	남성재킷	18.1	아연의 괴	47.7	남성코트	85.3
2012		2013		2014		2015		2016년 1~6월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석탄	1,198.5	석탄	1379.8	석탄	1,135.7	석탄	1,049.8	석탄	486.9
철광	248.6	철광	298.7	철광	221.9	남성코트	168.5	남성재킷	97.3
남성재킷	95.2	남성코트	126.7	남성코트	157.3	남성재킷	151.3	여성재킷	53.2
연체동물	91.4	남성재킷	122.2	남성재킷	152.9	여성코트	130.5	여성코트	46.2
남성코트	88.8	여성코트	116.5	여성코트	137.1	여성재킷	96.9	티셔츠	37.2

주: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표 2-7〉 북한의 대중국 수입 상위 5개 품목(HS 4단위 기준)

(단위: 백만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원유	282.0	원유	414.3	원유	164.2	원유	325.8	원유	518.4
석유제품	95.4	석유제품	120.1	석유제품	46.4	석유제품	104.9	석유제품	192.4
합성폴리메리트 사의 직물	47.5	합성폴리메리트 사의 직물	52.4	화물자동차	41.8	화물자동차	88.3	화물자동차	146.2
돼지고기	39.2	대두유	45.1	합성폴리메리트 사의 직물	33.2	합성폴리메리트 사의 직물	71.7	합성폴리메리트 사의 직물	99.3
밀가루	35.2	석탄	44.4	대두유	26.1	전화기	62.8	질소비료	94.2
2012		2013		2014		2015		2016년 1~6월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원유	577.9	원유	598.1	석유제품	154.8	합성폴리메리트 사의 직물	138.2	합성폴리메리트 사의 직물	74.8
석유제품	161.9	화물자동차	143.3	합성폴리메리트 사의 직물	152.8	석유제품	116.5	사과/배	68.5
화물자동차	141.2	합성폴리메리트 사의 직물	136.8	전화기	112.3	화물자동차	108.1	화물자동차	56.2
합성폴리메리트 사의 직물	120.0	석유제품	104.5	대두유	112.2	대두유	104.0	석유제품	46.9
전화기	93.2	대두유	85.0	화물자동차	108.7	전화기	73.5	대두유	42.4

주: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표 2-8〉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1: 무연탄(HS코드 270111)

(단위: 천달러, 천톤, 달러/톤, %)

	수출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4.01	101,551 (21.3)	1,245.11 (34.0)	81.56 (-9.5)
2014.02	72,112 (-20.3)	921.65 (-4.5)	78.24 (-16.5)
2014.03	98,763 (-24.1)	1,291.04 (-5.6)	76.50 (-19.6)
2014.04	95,238 (-40.0)	1,272.25 (-26.0)	74.86 (-18.9)
2014.05	100,449 (-33.3)	1,311.86 (-23.8)	76.57 (-12.5)
2014.06	103,109 (-20.7)	1,398.86 (-12.5)	73.71 (-9.4)
2014.07	97,585 (-25.9)	1,312.40 (-21.8)	74.36 (-5.2)
2014.08	93,381 (45.1)	1,285.17 (49.0)	72.66 (-2.7)
2014.09	98,556 (7.5)	1,394.15 (13.3)	70.69 (-5.1)
2014.10	88,434 (-14.0)	1,268.13 (-6.0)	69.74 (-8.6)
2014.11	79,598 (-34.5)	1,169.70 (-26.0)	68.05 (-11.4)
2014.12	103,406 (-12.4)	1,562.01 (4.7)	66.20 (-16.3)
2015.01	79,713 (-21.5)	1,227.14 (-1.4)	64.96 (-20.4)
2015.02	79,595 (10.4)	1,269.24 (37.7)	62.71 (-19.9)
2015.03	80,979 (-18.0)	1,297.32 (0.5)	62.42 (-18.4)
2015.04	116,617 (22.4)	1,915.00 (50.5)	60.90 (-18.7)
2015.05	103,915 (3.5)	1,813.16 (38.2)	57.31 (-25.2)
2015.06	106,826 (3.6)	1,998.53 (42.9)	53.45 (-27.5)
2015.07	100,869 (3.4)	2,008.54 (53.0)	50.22 (-32.5)
2015.08	87,961 (-5.8)	1,821.34 (41.7)	48.29 (-33.5)
2015.09	81,871 (-16.9)	1,757.34 (26.1)	46.59 (-34.1)
2015.10	59,647 (-32.6)	1,312.80 (3.5)	45.43 (-34.8)
2015.11	65,703 (-17.5)	1,392.94 (19.1)	47.17 (-30.7)
2015.12	82,095 (-20.6)	1,765.99 (13.1)	46.49 (-29.8)
2016.01	76,450 (-4.1)	1,660.14 (35.3)	46.05 (-29.1)
2016.02	68,274 (-14.2)	1,509.20 (18.9)	45.24 (-27.9)
2016.03	105,550 (30.3)	2,338.82 (80.3)	45.13 (-27.7)
2016.04	72,108 (-38.2)	1,525.61 (-20.3)	47.27 (-22.4)
2016.05	74,540 (-28.3)	1,551.17 (-14.4)	48.05 (-16.2)
2016.06	87,879 (-17.7)	1,889.20 (-5.5)	46.52 (-13.0)

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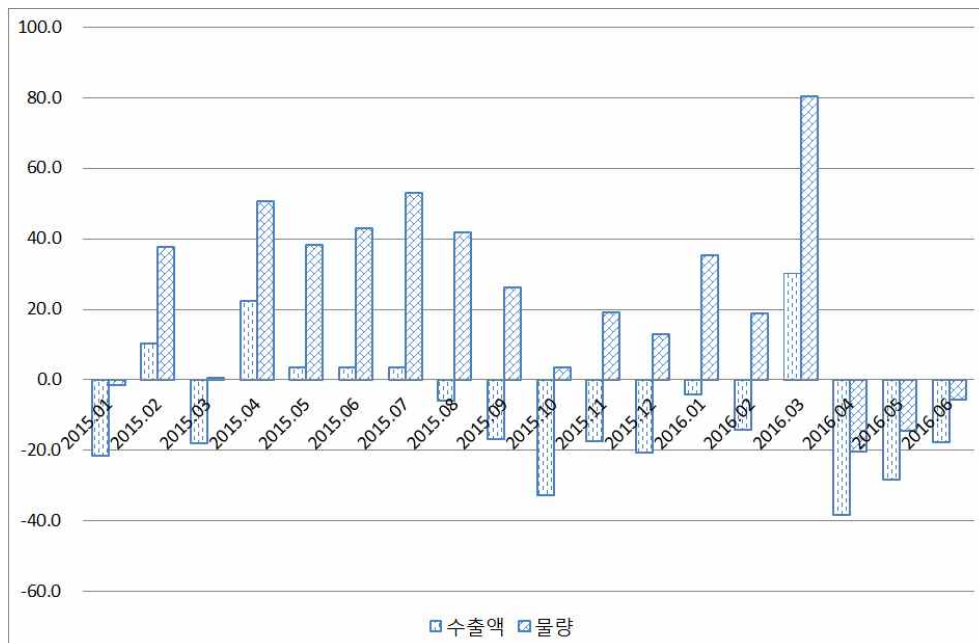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그림 2-6] 무연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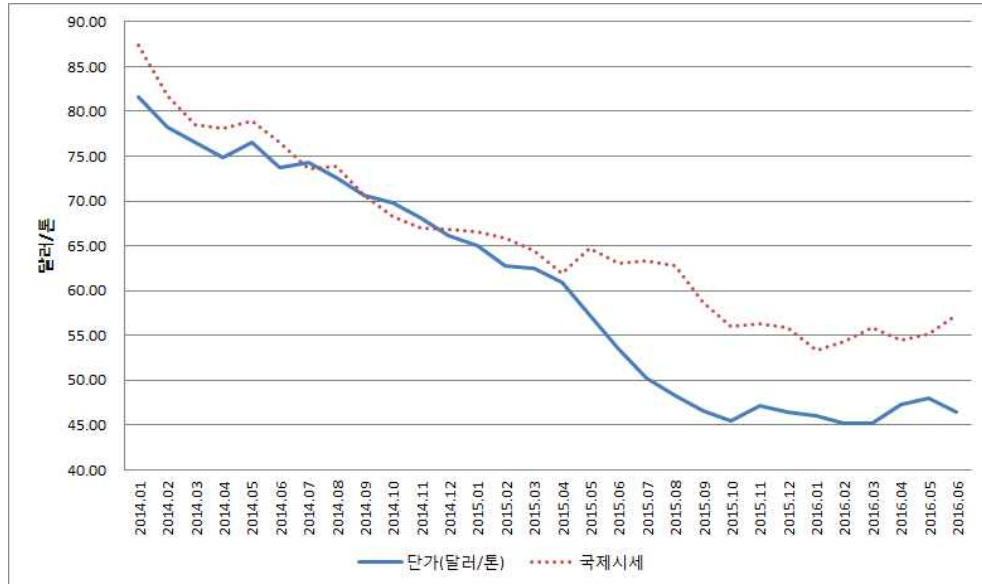


[그림 2-7] 월별 무연탄 수출의 전년 동기대비 변화

(단위: %)



[그림 2-8] 무연탄 수출단가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IndexMundi(<http://www.indexmundi.com/commodities/?commodity=coal-australian>), 검색일 2016. 7. 24.

<표 2-9>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2: 철광석(HS코드 260111)

(단위: 천달러, 천톤, 달러/톤, %)

	수출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4.01	23,646 (1.5)	242.05 (0.5)	97.69 (1.0)
2014.02	18,150 (44.1)	196.47 (67.2)	92.38 (-13.8)
2014.03	14,314 (5.1)	151.31 (11.6)	94.60 (-5.8)
2014.04	20,188 (23.4)	229.22 (39.1)	88.07 (-11.3)
2014.05	23,796 (-18.5)	284.56 (-3.0)	83.62 (-16.0)
2014.06	19,452 (-34.9)	241.91 (-19.0)	80.41 (-19.5)
2014.07	21,466 (-33.6)	289.42 (-13.7)	74.17 (-23.0)
2014.08	23,915 (-17.8)	304.78 (-4.6)	78.47 (-13.8)
2014.09	18,474 (-26.3)	256.32 (-0.2)	72.07 (-26.2)
2014.10	15,502 (-33.1)	252.28 (3.6)	61.45 (-35.4)
2014.11	10,307 (-63.0)	173.26 (-40.6)	59.49 (-37.6)
2014.12	9,373 (-70.5)	172.25 (-46.5)	54.42 (-44.9)
2015.01	7,568 (-68.0)	144.34 (-40.4)	52.43 (-46.3)
2015.02	4,126 (-77.3)	81.50 (-58.5)	50.63 (-45.2)
2015.03	6,799 (-52.5)	134.45 (-11.1)	50.57 (-46.5)
2015.04	3,752 (-81.4)	89.09 (-61.1)	42.11 (-52.2)

〈표 2-9〉의 계속

	수출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5.05	6,822 (-71.3)	139.62 (-50.9)	48.86 (-41.6)
2015.06	3,809 (-80.4)	86.94 (-64.1)	43.82 (-45.5)
2015.07	5,860 (-72.7)	128.58 (-55.6)	45.58 (-38.5)
2015.08	6,640 (-72.2)	150.63 (-50.6)	44.08 (-43.8)
2015.09	8,011 (-56.6)	172.91 (-32.5)	46.33 (-35.7)
2015.10	7,120 (-54.1)	153.20 (-39.3)	46.47 (-24.4)
2015.11	3,913 (-62.0)	86.91 (-49.8)	45.03 (-24.3)
2015.12	5,455 (-41.8)	129.50 (-24.8)	42.13 (-22.6)
2016.01	2,660 (-64.8)	72.36 (-49.9)	36.76 (-29.9)
2016.02	2,645 (-35.9)	77.07 (-5.4)	34.32 (-32.2)
2016.03	3,945 (-42.0)	107.02 (-20.4)	36.86 (-27.1)
2016.04	4,536 (20.9)	110.27 (23.8)	41.13 (-2.3)
2016.05	9,977 (46.2)	216.09 (54.8)	46.17 (-5.5)
2016.06	11,703 (207.2)	248.52 (185.9)	47.09 (7.5)

주: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뜻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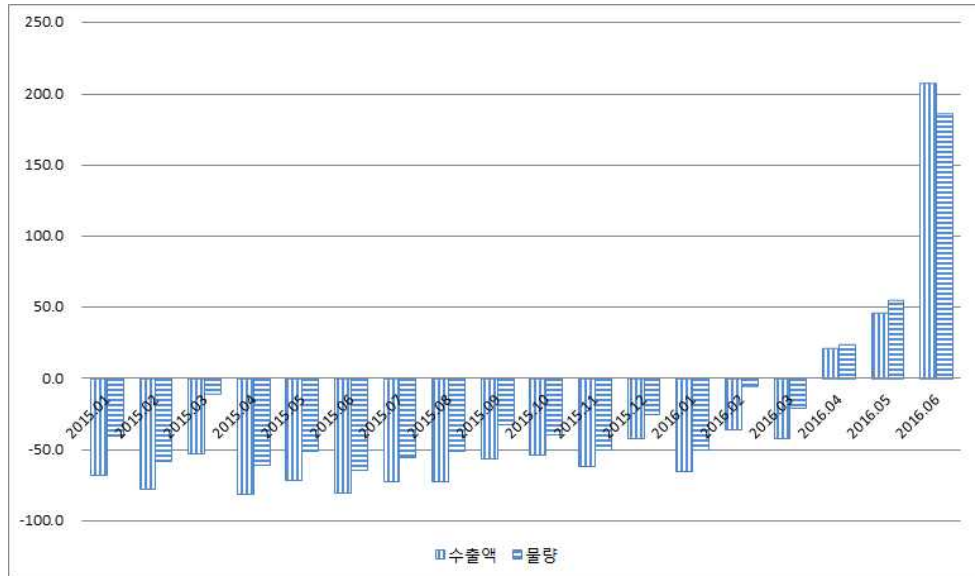
[그림 2-9] 철광석 수출



주: 점선은 수출액과 물량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그림 2-10] 월별 무연탄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그림 2-11] 철광석 수출단가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IndexMundi(<http://www.indexmundi.com/commodities/?commodity=coal-australian>), 검색일: 2016. 7. 24.

〈표 2-10〉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3: 의류(HS코드 61 &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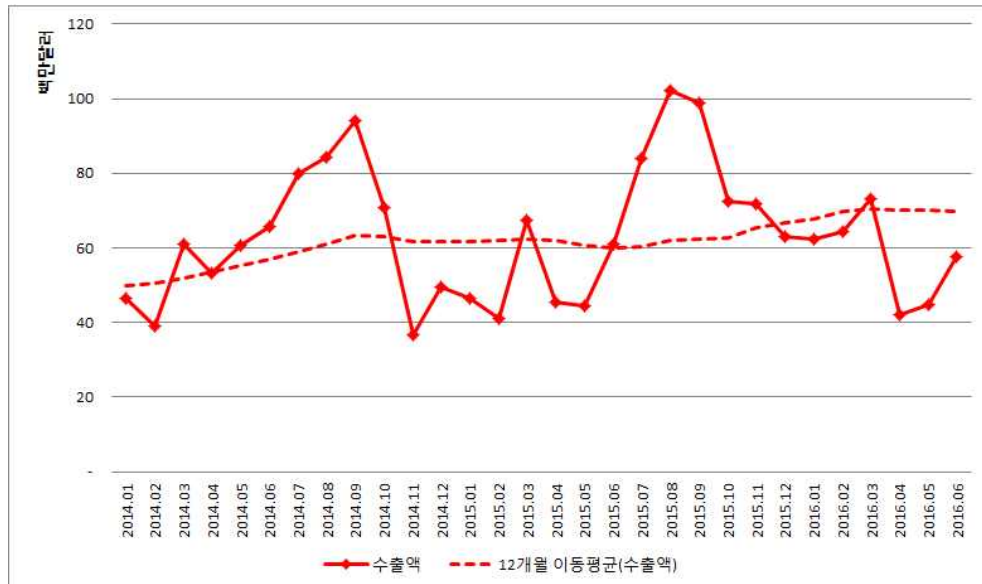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

	HS 61 수출액 (증가율)	HS 62 수출액 (증가율)	HS 61 + 62 수출액 (증가율)
2014.01	7,219 (53.4)	39,227 (30.3)	46,446 (33.4)
2014.02	5,457 (-0.4)	33,460 (36.0)	38,917 (29.4)
2014.03	14,474 (43.7)	46,436 (35.3)	60,911 (37.2)
2014.04	14,531 (62.3)	38,551 (64.0)	53,082 (63.5)
2014.05	9,481 (5.8)	51,217 (51.3)	60,698 (41.8)
2014.06	6,854 (54.1)	58,888 (49.9)	65,742 (50.3)
2014.07	8,139 (42.9)	71,845 (40.4)	79,984 (40.7)
2014.08	12,189 (78.3)	72,172 (34.5)	84,361 (39.5)
2014.09	15,152 (54.7)	78,839 (47.8)	93,992 (48.9)
2014.10	10,279 (8.0)	60,438 (-8.0)	70,717 (-6.0)
2014.11	6,196 (2.2)	30,425 (-35.6)	36,621 (-31.3)
2014.12	9,013 (23.1)	40,535 (-4.6)	49,548 (-0.5)
2015.01	10,188 (41.1)	36,475 (-7.0)	46,663 (0.5)
2015.02	8,565 (57.0)	32,688 (-2.3)	41,253 (6.0)
2015.03	20,708 (43.1)	46,680 (0.5)	67,388 (10.6)
2015.04	14,562 (0.2)	30,991 (-19.6)	45,554 (-14.2)
2015.05	12,882 (35.9)	31,660 (-38.2)	44,542 (-26.6)
2015.06	13,133 (91.6)	48,035 (-18.4)	61,168 (-7.0)
2015.07	9,795 (20.3)	74,081 (3.1)	83,876 (4.9)
2015.08	17,390 (42.7)	84,943 (17.7)	102,333 (21.3)
2015.09	18,586 (22.7)	80,400 (2.0)	98,986 (5.3)
2015.10	13,529 (31.6)	59,050 (-2.3)	72,579 (2.6)
2015.11	14,841 (139.5)	57,020 (87.4)	71,860 (96.2)
2015.12	11,917 (32.2)	51,185 (26.3)	63,102 (27.4)
2016.01	10,069 (-1.2)	52,380 (43.6)	62,449 (33.8)
2016.02	16,395 (91.4)	48,022 (46.9)	64,418 (56.2)
2016.03	13,284 (-35.9)	59,887 (28.3)	73,171 (8.6)
2016.04	11,602 (-20.3)	30,482 (-1.6)	42,085 (-7.6)
2016.05	6,685 (-48.1)	38,170 (20.6)	44,854 (0.7)
2016.06	11,634 (-11.4)	45,965 (-4.3)	57,599 (-5.8)

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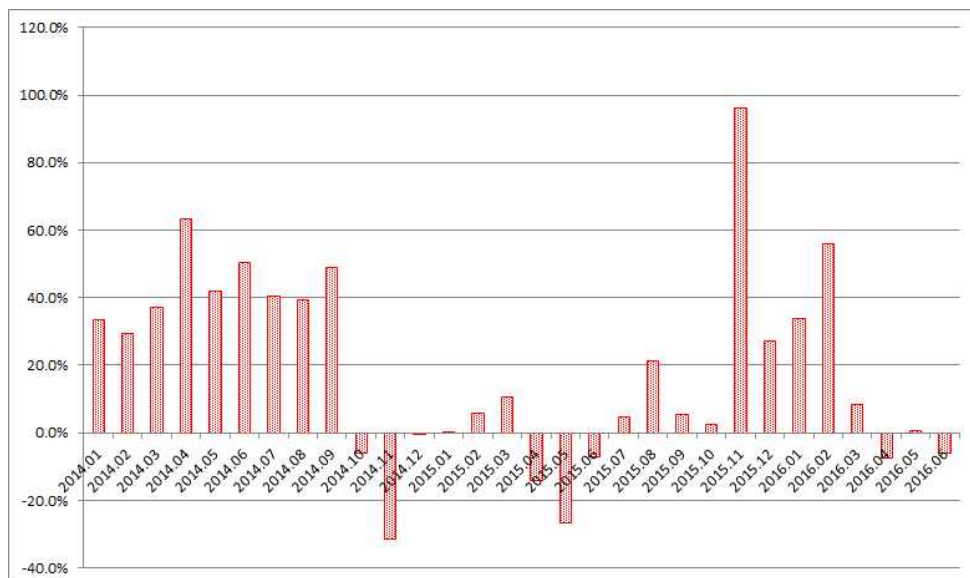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그림 2-12] 의류 수출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그림 2-13] 월별 의류 수출의 전년 동기대비 변화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표 2-11〉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입 상품: 식량(쌀·옥수수)(HS코드 쌀: 100630, 옥수수: 100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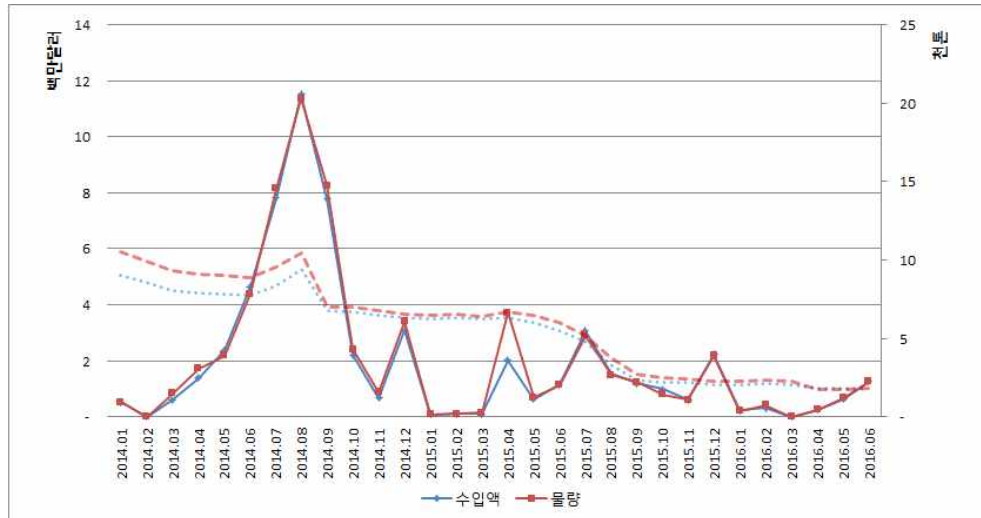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천톤, 달러/톤, %)

	수입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4.01	527 (132.2)	0.93 (72.6)	565.00 (34.5)
2014.02	- (-100.0)	- (-100.0)	- (-100.0)
2014.03	622 (-85.1)	1.50 (-83.7)	414.54 (-8.4)
2014.04	1,380 (46.7)	3.07 (-45.7)	449.43 (-1.9)
2014.05	2,374 (-7.4)	3.91 (-20.9)	607.03 (17.0)
2014.06	4,641 (-9.9)	7.84 (-15.5)	592.26 (6.6)
2014.07	7,819 (112.2)	14.54 (116.8)	537.72 (-2.1)
2014.08	11,504 (143.8)	20.29 (127.8)	566.91 (7.0)
2014.09	7,784 (-69.2)	14.74 (-73.7)	528.12 (17.2)
2014.10	2,204 (-14.8)	4.31 (-10.7)	511.56 (-4.5)
2014.11	669 (-68.9)	1.59 (-65.0)	420.23 (-11.0)
2014.12	3,068 (-26.8)	6.07 (-25.9)	508.96 (-1.2)
2015.01	94 (-82.2)	0.16 (-83.2)	596.43 (5.6)
2015.02	104 (-)	0.18 (-)	580.00 (-)
2015.03	110 (-82.3)	0.28 (-81.5)	398.70 (-3.8)
2015.04	2,011 (45.7)	6.63 (115.9)	303.17 (-32.5)
2015.05	640 (-73.0)	1.26 (-67.8)	508.96 (-16.2)
2015.06	1,165 (-74.9)	2.05 (-73.9)	569.52 (-3.8)
2015.07	3,079 (-60.6)	5.19 (-64.3)	593.71 (10.4)
2015.08	1,547 (-86.6)	2.67 (-86.8)	579.48 (2.2)
2015.09	1,206 (-84.5)	2.20 (-85.0)	547.11 (3.6)
2015.10	999 (-54.7)	1.42 (-67.2)	706.08 (38.0)
2015.11	610 (-8.7)	1.11 (-30.3)	550.22 (30.9)
2015.12	2,221 (-28.1)	3.90 (-35.8)	569.91 (12.0)
2016.01	229 (144.9)	0.37 (138.1)	613.35 (2.8)
2016.02	327 (213.2)	0.77 (325.0)	427.45 (-26.3)
2016.03	0 (-99.7)	0.00 (-99.8)	600.00 (50.5)
2016.04	267 (-86.7)	0.47 (-92.9)	567.34 (87.1)
2016.05	633 (-1.1)	1.20 (-4.5)	527.10 (3.6)
2016.06	1,271 (9.1)	2.26 (10.6)	561.91 (-1.3)

주: 증가율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을 뜻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그림 2-14] 쌀·옥수수 수입



주: 점선은 수입액과 물량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그림 2-15] 쌀·옥수수 수입단가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6. 7. 24.

III. 환율과 시장가격

〈표 3-1〉 환율

(단위: 북한원/달러)

	데일리NK 월간 전환치 환율			
	평양	신의주	혜산	관찰일수
2014.01	8,400	8,280	8,350	0*
2014.02	8,400	8,300	8,400	7
2014.03	7,300	7,500	7,550	7
2014.04	7,650	7,700	8,000	7
2014.05	7,800	8,140	8,260	7
2014.06	7,300	7,690	8,100	7
2014.07	7,100	7,350	7,500	7
2014.08	7,940	8,120	8,310	7
2014.09	8,100	8,230	8,470	7
2014.10	8,125	8,231	8,460	8
2014.11	8,316	8,450	8,670	13
2014.12	8,000	8,000	8,300	7
2015.01	8,000	8,000	8,150	7
2015.02	8,100	8,170	8,390	7
2015.03	8,100	8,185	8,395	0*
2015.04	8,100	8,200	8,400	7
2015.05	8,180	8,250	8,490	7
2015.06	8,150	8,200	8,025	7
2015.07	8,200	8,200	8,155	2
2015.08	8,200	8,200	8,155	5
2015.09	8,260	8,200	8,320	7
2015.10	8,600	8,900	9,000	7
2015.11	8,620	9,330	8,900	0*
2015.12	8,640	9,760	8,800	7
2016.01	8,190	8,260	8,190	7
2016.02	8,190	8,260	8,210	7
2016.03	8,128	8,150	8,065	7
2016.04	8,100	8,250	8,100	7
2016.05	8,020	8,085	8,010	7
2016.06	8,400	8,417	8,515	7
2016.07	8,325	8,310	8,32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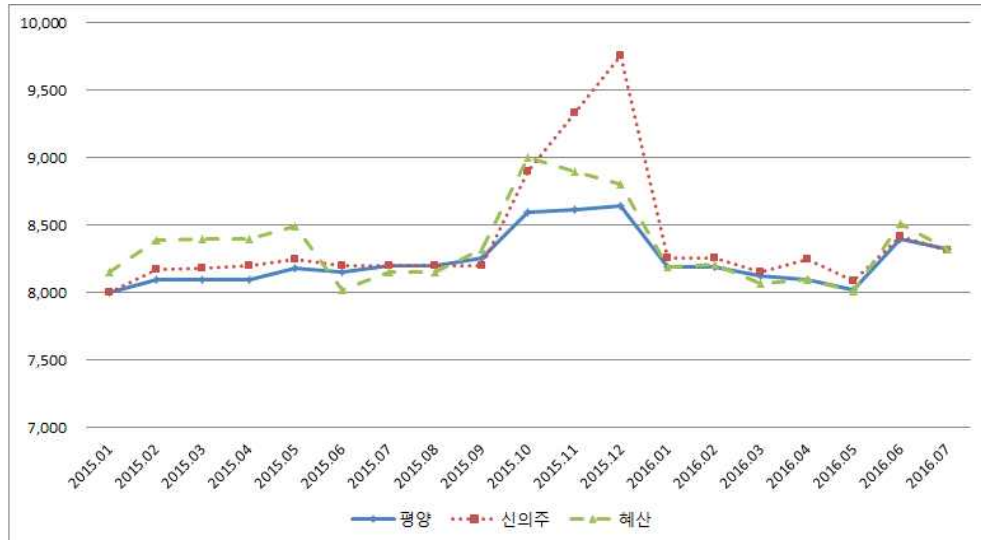
주: 1) 관찰일수가 0인 달은 임의로 바로 전 달과 다음 달 환율의 평균을 구함.

2) 데일리NK 환율은 관측기간과 일수가 매우 불규칙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자료에서는 이를 월간 단위 환율로 환산하고, 이에 사용된 자료의 관측일수를 별도로 표시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6. 7. 11.

[그림 3-1] 북한의 시장환율 추이

(단위: 북한원/달러)



주: <표 3-1>에서 월간 단위로 전환된 환율을 사용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6. 7. 11.

<표 3-2> 시장가격 - 쌀

(단위: kg/북한원)

	데일리NK 월간 전환치 쌀 가격			
	평양	신의주	해산	관찰일수
2014.01	4,100	4,700	4,550	0*
2014.02	4,200	4,500	4,500	7
2014.03	3,900	4,100	4,550	7
2014.04	3,800	3,900	4,000	7
2014.05	4,200	4,700	4,900	7
2014.06	4,300	4,500	5,050	7
2014.07	4,250	4,380	4,800	7
2014.08	5,800	5,850	6,000	7
2014.09	6,100	6,300	6,750	7
2014.10	6,550	6,288	6,388	8
2014.11	4,746	4,800	5,062	13
2014.12	4,500	4,800	5,500	7
2015.01	5,000	5,000	5,300	7
2015.02	5,000	5,000	4,500	7
2015.03	5,000	5,000	4,250	0*
2015.04	5,000	5,000	4,000	7

<표 3-2>의 계속

	데일리NK 월간 전환치 쌀 가격			
	평양	신의주	혜산	관찰일수
2015.05	5,100	5,100	5,200	7
2015.06	5,100	5,100	5,500	7
2015.07	5,150	5,200	5,500	2
2015.08	5,150	5,200	5,500	5
2015.09	6,000	6,000	6,200	7
2015.10	5,400	5,300	5,100	7
2015.11	5,400	5,350	5,300	0*
2015.12	5,400	5,400	5,500	7
2016.01	5,019	4,970	4,980	7
2016.02	5,019	5,000	5,150	7
2016.03	5,150	5,090	5,080	7
2016.04	5,120	5,050	5,050	7
2016.05	5,000	4,900	5,000	7
2016.06	4,950	4,900	4,850	7
2016.07	5,100	5,169	5,50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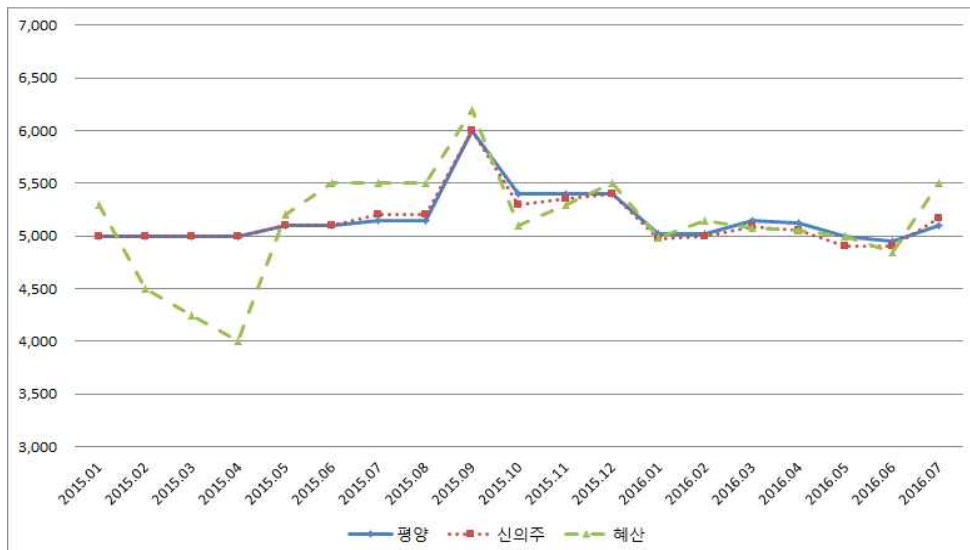
주: 1) 관찰일수가 0인 달은 임의로 바로 전 달과 다음 달 쌀값의 평균을 구함.

2) 데일리NK 쌀값은 관측기간과 일수가 매우 불규칙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자료에서는 이를 월간 단위 쌀값으로 환산하고, 이에 사용된 자료의 관측일수를 별도로 표시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6. 7. 11.

[그림 3-2] 북한의 시장 쌀 가격 추이

(단위: kg/북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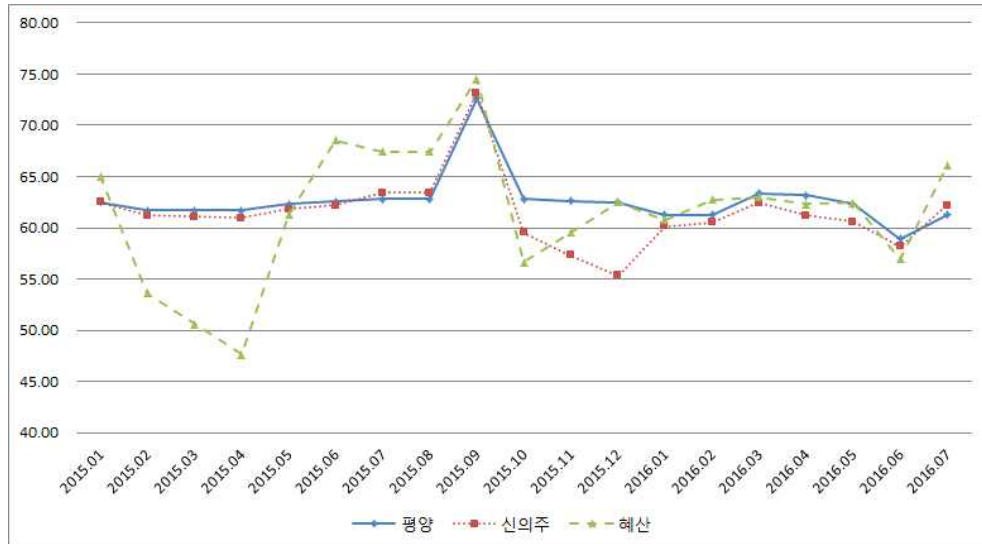


주: <표 3-2>에서 월간 단위로 전환된 쌀 가격을 사용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6. 7. 11.

[그림 3-3] 북한의 달러 표시 쌀 가격 추이

(단위: 달러/kg)



주: <표 3-1>과 <표 3-2>에서 월간 단위로 전환된 환율과 쌀 가격을 사용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6. 7. 11.

〈표 3-3〉 달러 표시 쌀 가격

(단위: 달러/100kg)

	달러 표시 쌀 가격		
	평양	신의주	해산
2014.01	48.81	56.76	54.49
2014.02	50.00	54.22	53.57
2014.03	53.42	54.67	60.26
2014.04	49.67	50.65	50.00
2014.05	53.85	57.74	59.32
2014.06	58.90	58.52	62.35
2014.07	59.86	59.59	64.00
2014.08	73.05	72.04	72.20
2014.09	75.31	76.55	79.69
2014.10	80.62	76.39	75.51
2014.11	57.07	56.80	58.39
2014.12	56.25	60.00	66.27
2015.01	62.50	62.50	65.03
2015.02	61.73	61.20	53.64
2015.03	61.73	61.09	50.63
2015.04	61.73	60.98	47.62
2015.05	62.35	61.82	61.25
2015.06	62.58	62.20	68.54
2015.07	62.80	63.41	67.44
2015.08	62.80	63.41	67.44
2015.09	72.64	73.17	74.52
2015.10	62.79	59.55	56.67
2015.11	62.65	57.34	59.55
2015.12	62.50	55.33	62.50
2016.01	61.28	60.17	60.81
2016.02	61.28	60.53	62.73
2016.03	63.36	62.45	62.99
2016.04	63.21	61.21	62.35
2016.05	62.34	60.61	62.42
2016.06	58.93	58.22	56.96
2016.07	61.26	62.20	66.11

주: 달러 표시 쌀 가격(100kg 당 쌀 가격) = 쌀 가격 / 환율 X 100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6. 7. 11.

IV. 식량

1. 생산

〈표 4-1〉 생산

(단위: 천M/T)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FAO	쌀	2,060	2,186	2,244	2,370	2,583	2,479	1,870	2,862	2,336	2,426	2,479	2,681	2,901	2,626*	-
	옥수수	1,483	1,651	1,725	1,727	1,630	1,750	1,587	1,411	1,705	1,683	1,857	2,040	2,002	2,594*	-
	계	3,543	3,837	3,969	4,097	4,213	4,229	3,457	4,273	4,041	4,109	4,336	4,721	4,903	5,220*	-
통계청	쌀	1,680	1,734	1,720	1,795	2,024	1,895	1,527	1,858	1,910	-	-	2,037	2,101	2,156	2,016
	옥수수	1,588	1,636	1,710	1,674	1,630	1,751	1,587	1,544	1,301	-	-	1,732	1,762	1,722	1,645
	계	3,268	3,370	3,430	3,469	3,654	3,646	3,114	3,402	3,211	-	-	3,769	3,863	3,878	3,661

주: *는 비공식 수치를 의미함.

자료: FAO(<http://faostat3.fao.org/>), 통계청(<http://kosis.kr/bukhan/>), 검색일: 2016. 7. 7.

2. 원조

〈표 4-2〉 원조

(단위: 천M/T)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곡 물 (Cereals)	1,136	1,426	1,033	892	824	1,037	1.6	710	339	274	76	75	332	30	16	22

주: *는 WFP의 잠정 수치를 의미함.

자료: FAO(<http://faostat3.fao.org/>), 검색일: 2016. 7. 7.

V. 북한의 중국 방문자 수 추이

〈표 5-1〉 방중인원

(단위: 만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방문자수		12.58	11.01	11.37	10.18	10.39	11.64	15.23	18.06	20.66	18.44	18.83
증가율(%)		(1227)	(1248)	(3.25)	(1042)	(2.02)	(1204)	(3086)	(1856)	(1442)	(1077)	(2.16)
입국 방식	선 박	2.79	2.82	3.98	3.69	3.58	4.51	6.22	6.81	7.90	7.74	8.09
	비 행	1.98	2.51	2.90	2.76	2.78	3.00	3.39	3.81	3.32	3.19	3.26
	기 차	1.96	1.65	2.35	1.92	2.19	1.68	1.91	1.85	3.70	3.72	3.94
	자동차	5.39	3.57	1.67	1.43	1.46	1.98	3.18	5.03	4.94	3.18	2.97
	도 보	0.47	0.45	0.47	0.38	0.38	0.47	0.52	0.56	0.79	0.60	0.59
나 이	14세미만	0.11	0.11	0.09	0.07	0.09	0.08	0.13	0.13	0.15	0.15	0.12
	15~24세	0.56	0.61	0.77	0.63	0.59	0.73	1.12	1.89	2.38	1.53	1.32
	25~44세	7.08	5.61	5.33	4.52	4.65	4.91	6.48	7.63	8.85	7.20	7.24
	45~64세	4.59	4.47	4.97	4.79	4.86	5.70	7.29	8.17	9.06	9.35	9.97
	65세이상	0.22	0.20	0.21	0.17	0.19	0.22	0.21	0.24	0.23	0.21	0.19
성	남 성	11.39	9.71	101	8.93	9.18	120	13.05	14.12	15.75	15.08	15.82
	여 성	1.19	1.29	1.36	1.26	1.21	1.44	2.18	3.94	4.91	3.35	3.02
목 적	출 장	2.92	2.69	2.06	1.83	1.94	2.53	3.90	5.52	5.51	3.39	2.59
	여 행	0.40	0.54	0.79	0.49	0.41	0.43	0.46	0.45	0.29	0.15	0.15
	친지 / 지인방문	0.21	0.15	0.03	0.07	0.03	0.04	0.01	0.02	0.03	0.01	0.01
	파견근무	6.48	5.08	5.42	4.68	5.21	5.39	7.53	7.96	9.33	8.91	9.42
	기 타	2.58	2.55	3.07	3.12	2.80	3.24	3.33	4.11	5.50	5.97	6.67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http://www.cnta.gov.cn/>), 검색일: 2016. 7. 7.

[그림 5-1] 분기별 방중인원 및 증가율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http://www.cnta.gov.cn/>)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검색일: 2016. 7. 7.

부문별 주요 기사

6월 1일~6월 30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교류

부문별 주요 기사

6월 1일~6월 30일

대내경제 121

<식량 및 영양>

식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2분기 식량 배급량 감소한 북한

황해남도에서의 장마철 피해 대책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문제에 대한 토론

대외경제 122

<대북제재>

미국, 북한에 추가 금융제재

중국,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북중관계>

두 달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북중무역

북중 석탄·철광석 무역량

투먼국제물류센터 9월 개장

<북러관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려는 러시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남북교류 125

〈개성공단〉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불허한 통일부

대내경제

〈식량 및 영양〉

중앙일보(6.2), 중도일보(6.3), 한겨레(6.13), UPI(6.16), 노동신문(6.20), 노동신문(6.30)

식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북한의 식량난은 201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2015/2016 북한 식량 공급·수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콩·작곡 등 대체작물의 생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옥수수 등 주곡 생산량이 감소해 올해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최대 69만 4천톤에 이른다고 함. 이는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임.

한편 FAO는 6월 2일 공개한 ‘작황전망과 식량 향’ 2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재 지정함. 이는 북한이 식량 부족분 중 아직 2만 3천톤(3.3%) 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또한 식량이 부족해서 중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식량 100만톤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음.

2분기 식량 배급량 감소한 북한

북한당국의 2016년 2분기 주민 하루 식량 배급량이 지난 분기 배급량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식량 배급량은 하루 360g으로 이 수치는 지난 2015년 배급량과 비교하여 12% 낮은 수준임. 현재 북한당국의 식량배급량은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2%에 불과한 상황임. 『미국의 소리』는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쌀과 옥수수 수확량 하락이 2분기 배급량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함.

황해남도에서의 장마철 피해 대책

황해남도에서는 장마철 피해 대책을 세우는 일은 경제실무의 일이 아니고 올해 알곡 생산을 늘리기 위한 일임을 강조함. 이는 황해남도에서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 수령님의 유훈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함. 관개구조물과 강하천, 배수로, 배수 양수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토론함.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문제에 대한 토론

조선노동당 7차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5개년 전략 중에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토론함. 자력자강의 정신을 통해 현대적인 농기계와 부속품을 더 생산해서 알곡생산 증대에 나서겠다고 다짐함.

대외경제

〈대북제재〉

NY Times(6.1), 환구시보(6.2), National Law Review(6.14), 동아일보(6.28)

미국, 북한에 추가 금융제재

미국 재무부가 지난 6월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er)’으로 지정하며 북한의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조치를 함. 재무부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은행이나 기업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 할 수 없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미국 금융제재의 최대 피해자는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은행들과 싱가포르와 홍콩 등 중국 영토의 일부 기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추가적으로 이번 금융제재의 목표는 북한이 전 세계 금융회사 간 결제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 코드 시스템 망에 대한 접속 차단임.

중국,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중국이 6월 21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함. 이로써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6월 24일 기준으로 총 35개국으로 늘었음. 2270호 이행 보고서 제출기한은 결의안이 발표된 3월 2일의 90일이후인 6월 2일이었으나, 안보리는 마감 이후에도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받고 있음.

〈북중관계〉

CBS노컷뉴스(6.2, 6.22), 인민일보(6.15), UPI(6.22),

두 달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북-중 무역

북한의 대중무역 규모가 4월에 이어 5월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무역협회 중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1억 7,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6% 감소했으며 북한의 대중수입액은 2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함.

북중 석탄·철광석 무역량

중국 세관 당국에 따르면 5월 북중 석탄 무역량은 155만

〈북·중 5월 무역액〉

(단위: 백만달러, %)

	대중수출	대중수입
2015년	201(-14.0)	254(-15.9)
2016년	176(-12.6)	239(-5.9)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베이스, 검색일:
2016. 7. 15.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작년 동월(약 181만톤) 대비 14.4% 감소했으며, 지난달 거래량(약 153만톤)과 비교하면 1.4% 소폭 상승한 수치임.

5월 북중 철광석 무역량은 21만 6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작년 동월(약 14만톤) 대비 54.8% 증가했으며, 지난달 거래량(약 11만톤)과 비교하면 196% 급증한 수치임.

투먼국제물류센터 9월 개장

중국 『연변일보』는 중국 지린성 투먼에 조성 중인 ‘투먼 국제물류중심(센터)’이 9월에 개장할 것이라고 밝힘. 투먼 국제물류센터는 총투자비 2억 3천만위안, 연간 물동량이 150만톤에 이른다고 함. 『연변일보』는 이 국제물류센터가 투먼철도통상구를 확대해 북한의 나진, 청진 두 항구와 연동하여 동북아국제상업무역의 주역으로 부상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소개함.

〈북러관계〉

KBS(6.3)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려는 러시아

러시아 갈루슈카 극동개발구 장관은 6월 2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북한 복합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함. 갈루슈카 장관은 결의안에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에도 200만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운송될 예정이라고 밝힘. 한국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다가 올해 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참여중단을 결정한 바 있음.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데일리한국(6.2), CBS노컷뉴스(6.8), news1(6.9), Radio Free Asia(6.17), 연합뉴스(6.29), NEWSIS(6.30)

아래 표는 6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2015년	지원금	800만달러	2011년 1,500만달러 2012년 1,200만달러 2013년 1,500만달러 2014년 600만달러
유럽연합	1995~2016년	지원금	1억 3,530만유로	130여 가지 대북 사업 지원
프랑스	2016년	지원금	30만유로	대북 식량 사업 지원
세계기금(Global Fund)	2016년	지원금	368만달러	말라리아 퇴치 사업
세계식량계획(WFP)	2016~2018년	식량	30개월 동안 15만톤의 식량	- 1억 2,590만달러의 예산 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북한 주민 170만명 지원
스위스	2016년 1~6월	지원금	920만달러	WFP를 통해 분유 지원
유엔	2016년 1~6월	지원금	800만달러	2015년 200만달러
유럽연합	2016년 1~6월	지원금	360만달러	
인도	2016년 1~6월	지원금	100만달러	
러시아	2016년 1~6월	지원금	300만달러	

남북교류

<개성공단>

동아일보(6.9)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불허한 통일부

통일부는 6월 8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해 불허 방침을 발표함. 개성공단 기업인 29명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기계설비 점검 및 보존 대책 수립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방북은 부적절하다며 불허함.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의 일방적 청산을 선언했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 uj_lee@kdi.re.kr

기사 원문 리스트

[2016.6.01] Treasury Imposes Sanctions on North Korea, Cutting Access to Banks
(The New York Times)

[2016.6.02] 북 대표단, 중국에 식량 100만t 요청 (중앙일보)

[2016.6.02] 유엔, 北에 부족자금 800만 달러 지원 (데일리한국)

[2016.6.02] 中 지린성, "북-중 국경지역 '투먼국제물류센터' 9월 개장" (CBS노컷뉴스)

[2016.6.02] US announces further steps to restrict DPRK's access to global financial system (한국시보)

[2016.6.03] 러 극동장관 "대북 제재에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속 추진" (KBS)

[2016.6.03] FAO "北 식량부족분 3.3% 확보"...식량부족국가 재지정 (중도일보)

[2016.6.08] EU "20여 년동안 대북사업에 약 1억 5400만달러 지원" (CBS노컷뉴스)

[2016.6.09]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 (동아일보)

[2016.6.09] 프랑스, 대북 식량 사업에 34만 달러 지원 계획 (news1)

[2016.6.13] 북, 올해 식량 부족분 5년만에 최대 (한겨레)

[2016.6.14] U.S. Treasury's 311 Action Against North Korea Intensifies Pressure on China (United Press International)

[2016.6.15] China bans exports of more items to DPRK (인민일보)

[2016.6.16] North Korea reduces rations again for malnourished population
(United Press International)

[2016.6.17] 북 말라리아 퇴치에 360만 달러 지원 (Radio Free Asia)

[2016.6.20]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노동신문)

[2016.6.22] China's trade with North Korea falls 13 percent (United Press International)

[2016.6.22] 북-중 교역 두달째 감소 추세 (CBS노컷뉴스)

[2016.6.28] 中,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총 35개국으로 (동아일보)

[2016.6.29] WFP, 北 170만 명에 식량지원 계획 승인 (연합뉴스)

[2016.6.30] 제재 불구 국제사회의 對北 지원 올 상반기 60%↑ (NEWSIS)

[2016.6.30]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한 토론 (노동신문)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히 드립니다.